

since 1996



한인뉴스

Vol. 170



2010 8

Korean News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홈페이지(www.innekorean.or.id)에서 한인뉴스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HYUNDAI
TRUCK & BUS**



 **HYUNDAI**



More than a game, it's a way of life.

Hyundai, Official Partner of 2010 FIFA World Cup™

 **KORINDO MOTORS** CONTACT: (021) 596-0445

180° 평면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해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의
Kosmo Sleeper Seat, 이코노미 클래스의 모든 좌석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주문형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머큐리 어워드(Mercury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품격 기내식과 웨지우드(Wedgewood)에서 제작한 우아한 식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대한항공이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From departure to arrival, Excellence in Satisfaction

Polyurethane Foam의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Your dream can come true
with PT.SERIM Indonesia*



PT. SERIM INDONESIA

www.serimindonesia.com

Tel. (021) 547-6453~9

Fax. (021) 546-2739/6601

Medan Factory

Tel. (061) 6874-3330~1

Fax. (061) 6874-3332



서울 메디칼 크리닉·서울 치과

올해 2월로 서울 메디칼 크리닉·서울치과가 개원 12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병원에 지금까지 보내주신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한결 같이 교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민건강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진료 과목

- 전과목 1차 및 2차 진료

■ 피부-비만 클리닉

- 미용: IPL, Lifting, 피부 scalling, 보톡스 Filer, Peeling, 여드름치료
- 비만: 침술, Mesotherapy, 질환별 다이어트 프로그램

■ 화장품 셀렉스-C 전 품목 판매

- 순수식물성 화장품 셀렉스
- 클로렐라 등 건강보조식품 판매
- 소독약, 붕대 등 상비약, 콘돔판매

■ 종합검진

- Type 별 종합검진(혈액 및 암 검진 포함)
- 소아 종합검진, 회사 단체 종합검진
- 현지인 식모, 유모 / 기사 필수기본검진
- 회사, 학교, 국적취득 등에 필요한 서류 및 진단서

■ 응급처치 및 수술

- 외상에 의한 상처, 골절 처치 및 수술
- 포경, 정관수술 및 음경 확대수술
- 얼굴, 전신의 점 제거 및 흉터제거 수술
- 치핵, 치루, 항문 부위 농양수술(레이저 사용)

■ 검진 및 치료장비

- 전자내시경
- 칼라초음파(감상선, 유방, 복부, 자궁, 전립선 등)
- X-ray, 심전도, 체지방분석기, 레이저
- 안압측정기, 골다공증 검사기
- 자동 임상병리 검사 장비(약60여종의 혈액검사)
- 이비인후과 진찰 및 치료 세트 (이경, 후두경, 비경)

■ 예방 접종

- 자궁경부암
- 계절 독감 및 장티푸스
- 소아 정기 예방접종

■ 치료 진료 과목

- 소아, 성인 교정
- 임플란트시술 (Implant)
- 보철, 충치수복, 근관치료

■ 진료 시간

★ 서울 메디칼 클리닉

- 평 일: 오전 8:30 ~ 오후 6:00
- 토요일: 오전 8:30 ~ 낮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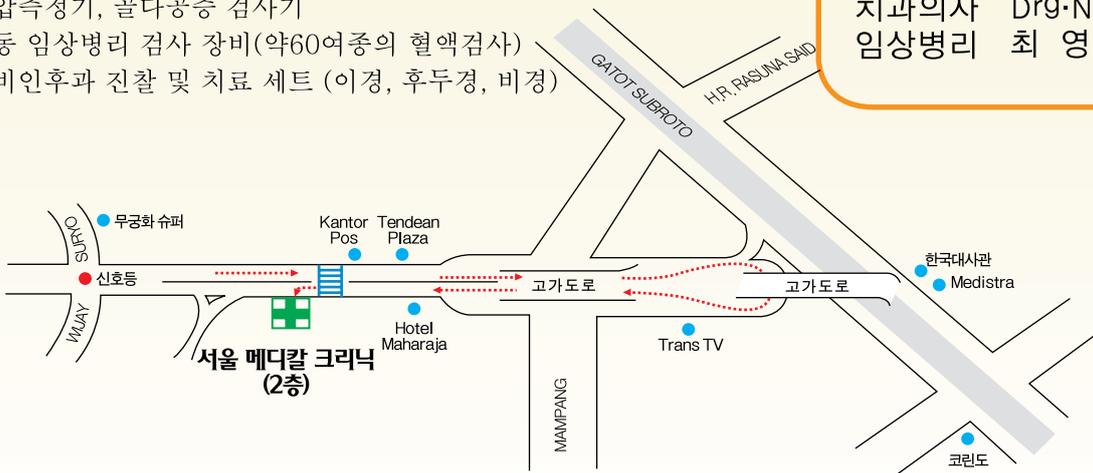
★ 서울치과

- 월~목: 오전 9:30 ~ 오후 7:00
- 금요일: 오전 9:30 ~ 오후 7:00
-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5:00 (한인의사)
- 월~목: 오후 2:00 ~ 오후 7:00
- 금요일: 오후 1:00 ~ 오후 7:00
- 토요일: 오후 1:00 ~ 오후 5:00

*치과는 예약을 해주세요



전문의
의학박사 이 호 완
현지의사 Dr.Nurul
치과의사 변 상 연
치과의사 DrG·Novi
임상병리 최 영 미



Wisma Tendean 2nd Floor, Jl. Kapt. Tendean No.7, Jakarta Selatan
전화: 799-1333(병원), 799-6169(치과), 팩스: 799-6165

국민을 위한 Garuda Orient Holidays 서비스 모음

GOH와 여행하기

국제선*국내선 항공권 발권서비스 및 전 세계 호텔예약 서비스



국제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대한 항공, 싱가포르 항공, 캐세이퍼시픽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에바 에어, 로얄 타이 항공, 일본항공, 차이나 에어라인, 전일항공, 콰타스 항공, KLM로얄 더치 항공, 에미레이트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 에어프랑스, 스위스에어

국내선 항공권

가루다 항공, 라이언 에어, 바타비아, 스리 위자야

GOH와 인도네시아 가기 1, "가루다 항공 자카르타 AIRTEL"

9월 30일 까지 유효

| 호텔 | 객실종류 | 요금(원) | |
|---|-----------------------------------|------------------------|--------------------------------------|
| | | 준 성수기 (7~9월/성수기 제외) | 준 성수기 (7월19일~8월31일 / 9월15일~9월23일) |
| ★★★ IBIS Slipi IBIS Mangga Dua | Standard | 670,000 | 760,000 |
| | Superior | 670,000 | 760,000 |
| ★★★★ Mercure Convention Centre Aston Marina | Superior | 670,000 | 760,000 |
| | 1 BedRoom | 680,000 | 780,000 |
| ★★★★★ Crowne Plaza Gran Melia | Deluxe | 700,000 | 790,000 |
| | Deluxe | 700,000 | 790,000 |
| ★★★★★ Mulia Senayan Four Seasons | Superior | 800,000 | 900,000 |
| | Splendor | 780,000 | 870,000 |
| 포함사항 | 인천-자카르타 왕복 항공권, 자카르타 GOH 호텔 2박 숙박 | | |

GOH와 인도네시아 가기 2, "인도네시아 국민 가족초청 발리 AIRTEL"

| 지역 | 호텔 | 요금(원) | |
|------|--|---------------------------|-------------|
| | | 7월1일~7월18일 8월16일~9월30일 | 7월19일~8월15일 |
| 짐바란 | ★★★ Best Western New Kuta Condotel | 589,000 | 689,000 |
| | ★★★★★ Intercontinental Bali Resort | 759,000 | 869,000 |
| 사누르 | ★★★★★ Sanur Beach Hotel | 629,000 | 729,000 |
| 꾸따 | ★★★ Bali Kuta Resort & Convention Center | 639,000 | 739,000 |
| | ★★★★★ Holiday Inn Resort Baruna Bali | 699,000 | 799,000 |
| 누사두아 | ★★★★★ Aston Bali Resort & Spa | 659,000 | 759,000 |
| | ★★★★★ Melia Bali Villas & Spa Resort | 699,000 | 799,000 |
| | ★★★★★ Nikko Bali Resort & Spa | 769,000 | 869,000 |
| | ★★★★★ The Westin Resort | 719,000 | 819,000 |
| 우붓 | ★★★★★ Beji Ubud | 669,000 | 779,000 |
| | ★★★★★ Alila Ubud | 819,000 | 919,000 |
| 따나룻 | ★★★★★ Le Meridien Nirwana | 719,000 | 929,000 |
| 스미낙 | ★★★★★ Sofitel Seminyak | 699,000 | 739,000 |
| 포함사항 | 인천-자카르타-발리-인천 간 항공권, 발리 GOH 호텔 2박3일 숙박 및 발리공항-호텔간 차량 | | |



문의 및 예약

다르마왕사 스퀘어 3층 55호

전화 : (021) 7278-0856/0859

이메일 : oh_kumju@primef.co.id / michelle.lee@primef.co.id

8.15 광복절 기념, 한인회 행사 안내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주권을 되찾고 동시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주국가를 처음으로 세운 날입니다. 매년 한인회는 광복절을 기념하여 모든 교민들이 참여하고 조국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친목과 단결의 경축한마당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광복 6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도 한인회에서는 뜻 깊은 경축행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8.15 경축행사 및 체육대회

1. 일시 : 2010.8.15 (일)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2. 장소 :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대 운동장 및 강당
3. 광복절 기념식 및 체육대회, 경축공연

A. 일반 체육대회 : 09:30 ~ 12:00 [운동장]

- ▷ 체육종목 :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비석치기, 어린이 달리기, 성인 달리기, 엄마와 달리기, 축구
- ▷ 진행 : 팀으로 운영하오니 입장 시 등록 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팀은 당일 날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B. 점심식사 : 12:00~13:00 [운동장]
- C. 광복절 기념식 : 13:30~14:00 [강 당]
- D. 경축공연 : 14:00~16:30 [강 당]

4. Lucky Draw 추첨 [강 당]
※상품이 푸짐합니다. 모두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 골프대회

1. 일시 및 장소
 - A. 일시 : 2010년 8월 15일 (일) 오전 7시 Tee-Off
 - B. 장소 : Halim Lama CC
2. 회비 : Rp. 450,000
(조식, 중식, Caddy Fee, Green Fee포함, 참가기념품, Tip은 개인 부담)
3. 티켓 판매
 - A. 티켓 : 남 - 120매, 여 - 30매
 - B. 판매 기간 : 2010년 7월 16일~8월 6일 (선착순)
 - C. 판매처 : 한인회 (021-521-2515)
4. 티켓 구입 시 주의사항 :
성명, 핸디캡,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 구입한 티켓은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5. 참가 자격
 - A. 남 : 핸디캡 28이하, 여 : 핸디캡 30이하



재 인도네시아 한인회



신청사 건립동안 대사관 임시 이전



플라자 오피스 타워 정문에 대한민국 대사관 현판이 걸려있다.

대사관 신청사 건축을 위해 임시 이전했다.

30년 이상 사용해 오던 대사관 건물은 노후화로 인해 기존의 청사를 헐고 그 자리에 신청사를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 9월 착공되는 신청사는 2013년 초 건립되게 된다.

따라서 대사관(영사관 포함)은 신청사 시공기간 동안 자카르타 중심지로 임시 이전해 지난 7월 26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사관 임시청사는 인도네시아 관청 및 외교공관이 밀집되어 있는 자카르타 시내 중심지 M.H. Thamrin 도로변에 위치한 46층의 플라자 빌딩(The Plaza Office Tower) 1개층(30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4개의 민원창구를 6개로 늘려 교민들의 영사민원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사관 임시청사를 방문하는 교민들은 보안 및 테러 예방을 위해 자카르타 시내 여타 주요 빌딩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방문시 로비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과 교환해서 출입해야 한다.



대사관 임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종전과 동일)



1



2



3



4

1. The Plaza Office Tower 로비에서 신분증과 출입증을 교환하고 나서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에 오르면 된다.
 2. 30층에 위치한 영사과.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종전 보다 넓혔다. 3. 영사과 복도 맞은 편에 위치한 대한민국대사관.
 4. 2013년 완공될 예정인 대사관 신청사 모습.

대사관 임시청사 이용 안내

○ 일반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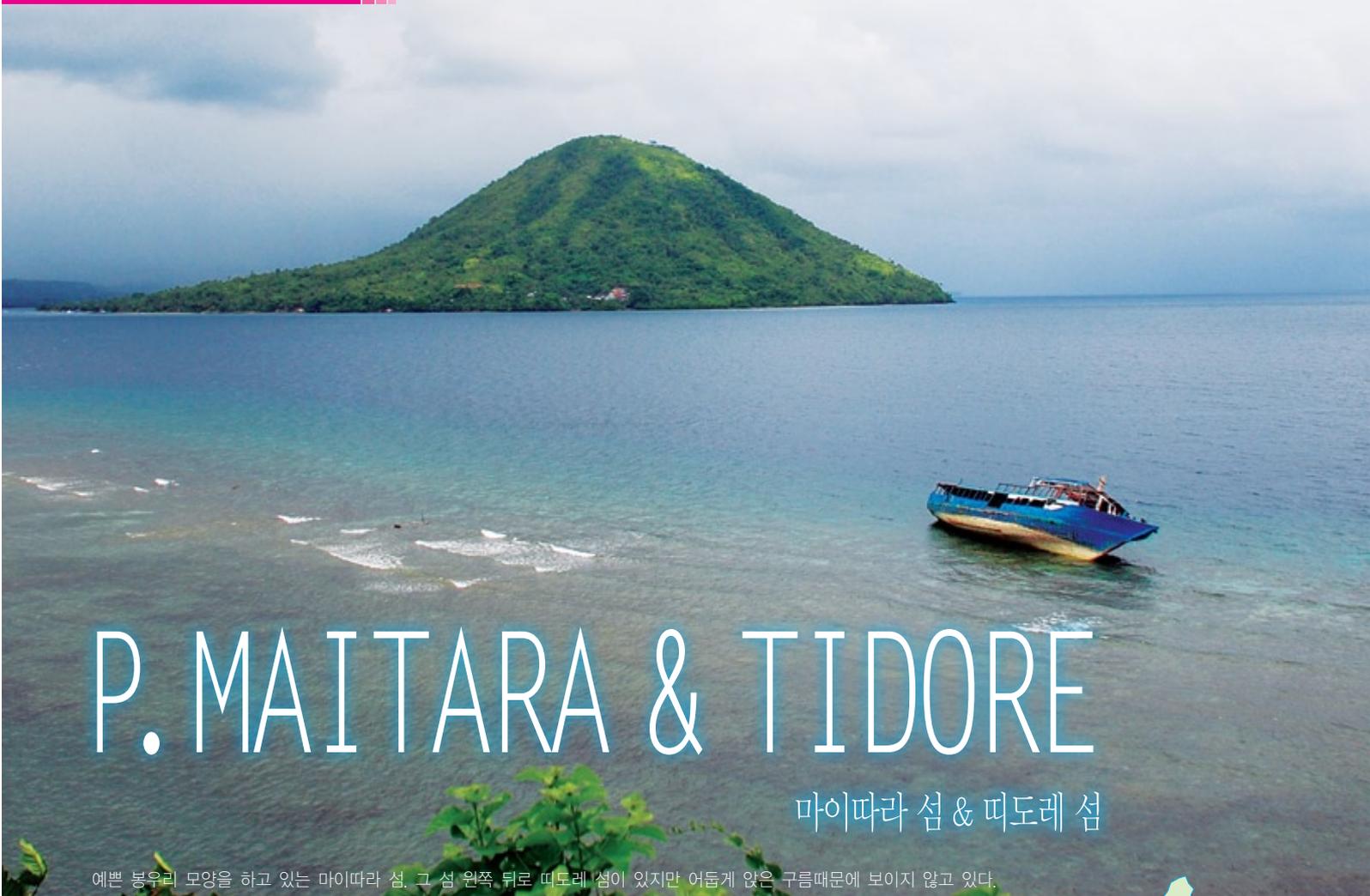
- 1층 로비 원편 안내데스크에서 사진이 있는 아래 신분증 중 1개와 출입증 교환
- 인도네시아 이민청 발행 신분증인 KITAS 또는 KITAP
 - 인도네시아 경찰청 발행 외국인 등록 관련 신고증 (SKLD)
 - 인도네시아 운전면허증 (SIM)
 - 대한민국 여권
 - “MID” 라고 표시된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설치된 출입문 센서에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용 대사관(30층) 도착
 -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출입증과 신분증 교환

○ 예외절차

- 〈신분증이 여권만 있고, 영사과에 여권업무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상기 안내데스크에 여권을 제시하면, 빌딩측 안내데스크 직원이 여권을 복사하고 출입증 발급
- 〈여권도 없고, 신분증이 전혀 없는 경우〉
- 상기 안내데스크에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빌딩측 안내데스크 직원이 대사관 영사과에 통화, 영사과 직원이 내려와서 모시고 30층으로 안내

○ 기타사항

-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 Rp.150,000을 변상해야 하므로 대사관 용무를 마치신 후 출입증을 반드시 1층 안내데스크에 반납 요망.



P. MAITARA & TIDORE

마이따라 섬 & 띠도레 섬

예쁜 봉우리 모양을 하고 있는 마이따라 섬. 그 섬 왼쪽 뒤로 띠도레 섬이 있지만 어둡게 앉은 구름때문에 보이지 않고 있다.

Maitara섬과 Tidore섬은 인도네시아 동쪽 말루꾸 군도 중 가장 큰 섬인 할마헤라섬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국적인 경관에 편의시설들이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두 섬을 찾는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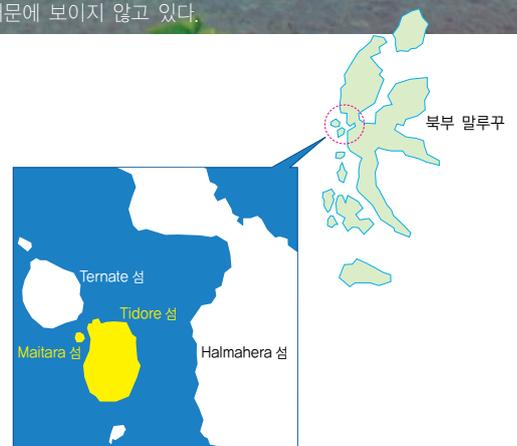
두 섬은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통용되는 지폐들 중 가장 작은 단위인 천 루피아의 뒷면에 그려져 있어 호기심을 자극하는 섬이기도 하다.

지폐에 그려진 섬은 두 섬과 인접해 있는 Ternate 섬에 위치한 한 해변가 식당에서 그려졌다고 해서 여행객들이 꼭 거쳐가고 싶은 명소가 되었다고 한다.

가이드는 인도네시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동쪽의 작은 섬을 기억하기 위해 화폐에 그려 넣었지 않았을까 하고 이야기를 해줬다.

16세기 서양의 열강들이 식민지 확장과 향신료무역을 위해 인도네시아 동쪽의 작은 섬인 이곳에 상륙했고 네덜란드와 스페인은 근척지간인 Ternate왕국 및 띠도레왕국과 각기 동맹을 맺어 서로 견제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에 의존하는 Ternate왕국에 비해 독립심이 강했던 띠도레 왕국은 1663년 스페인 철군 이전 독립국을 선포했고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한 네덜란드의 내정간섭에도 불구하고 18세기 후반까지 강력한 독립국으로 남아있었다고 한다.

수백년간 식민지배국에서 독립한 인도네시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두 섬의 존재는 수려한 경치만큼이나 역사적 귀감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소주가 뭐길래! 한인사회 이미지 실추 될라

소주문제로 교민사회가 다시 소란스럽다. 지난해 한국인이 연류된 대량의 소주 밀수 적발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밀수소주유통 문제가 다시 한인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전체 소주 유통의 절반을 넘기고 있는 밀수소주유통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시점에까지 이르자 소주를 정식으로 수입하고 있는 교민수입업체들이 현지 로펌을 선임해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요식업체들에게 보냈고 결국 수입업체와 요식업체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친대 덩친 격으로 정품소주 품귀 상황에서 일부 한 식당들은 밀수소주를 정품소주 가격으로 판매하자 밀수소주를 마시면서도 비싼 값을 지불 해야 한다는 교민들의 불만도 폭증해 수입업체, 요식업체, 소비자 3자간의 불신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민 편집위원



수입업체-식당 ‘갑론을박’

- 소주수입업체 : ‘불법소주거래 말라’
- 식당 : ‘정품소주 제때 공급하라’

지난 6월 22일과 7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세 곳의 교민 소주수입업체들이 현지 로펌을 선임해 각 한식당에 ‘권고요청문’을 발송하고 식당측의 답변을 요청했다. 지난해 소주밀수 적발사건으로 밀수소주 근절을 위한 암묵적 합의가 파기되고 최근 정품소주 품귀현상으로 인해 다시 유통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권고요청문의 주된 내용은 “교민 식당에서 소주 및 막걸리 등이 불법 유통으로 인해 정식수입업체 측에 막대한 영업지장과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주세부담이 소비자에게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주류유통 시 현지법을 준수하고 차후 불법유통 발각 시 직접적인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몇몇 식당주들은 한국인들끼리의 문제에 왜 현지로펌을 선임해 공문을 보냈는지 의심스럽다며 현지 로펌이 식당에 잠입해 밀수소주 증거품을 찾고 법적소송까지 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또한 말이 권고요청문이지 협박문서와 다를 없는 공문발송과 식당업주들을 모두 밀수가답자로 간주하는 분별없는 행위라고 수입업체들을 질타했다. 소주통관지연으로 인한 품귀현상이 밀수소주 유통을 부추겼다면 ‘소주공급만 잘된다면 왜 밀수소주를 쓰겠냐고 항변하기도 하고 현재 막걸리 수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막걸리 판매도 제재하겠다고 나서는 수입업체측의 의중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민들, 수입업체 로펌조치에 ‘발전 Vs 삭막’

인도네시아 최대의 외국인 사회라곤 하지만 4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교민사회에서 주류수입업체들이 한국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소주문제에 현지 로펌을 대동하고 적극적으로 밀수근절에 나서겠다는 점은 익명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작은 교민사회에서 용기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만은 확실하다. 한 교민은 로펌을 전면에 내세운 특단의 조치가 식당주들의 발전에 기회를 줄 것이며 밀수근절에 한몫할 것임엔 틀림 없다고 수입업체의 용기에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민사회가 너무 삭막하게 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 교민은 점점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교민사회에 드디어 교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난타전이 시작되었다며 결국 더 쉼(?) 법정대리인을 세운 덩치 큰 업체가 돈으로 이기는 게임 아니냐며 과거 친목으로 다져졌던 한인사회는 지나갔고 한인사회의 이미지는 점점 실추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업체-식당, 先합의 노력해야

올해 4월 이후 기존의 특소세 폐지 대신 관세부과방법(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변경으로 인한 주세 및 부가세 인상으로 수입가가 약 28% 인상되어 당연히 식당 공급가도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3개월 이상 지연된 통

관 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밀수소주가 전체유통의 절반을 상회하자 수입업체 측의 피해가 컸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대사관에서 인니 관세청에 소주 통관지연에 대한 항의와 함께 지연 문제를 체크하고 나선 상황이고 종전의 국영업체인 PT. Sarinah에서 8개 민영업체로 주류수입처가 늘어나 향후 통관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행인 것은 식당 스스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식당주는 공급부족에다 소비자가 원하는데 어떻게 잠자코 있느냐라는 논리로서 소비자의 요구만을 너무 앞세운

식당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법소주유통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식당들이 소주 공급업체들에서 적절하게 소주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회사 밀수소주라도 찾는 소비자가 있기에 밀수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유야 어떻든 밀수근절 약속을 어긴 것 만큼은 사실이고 밀수유통이라는 사실이 우리 국민 모두를 공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의 잣대로 재단하기 이전에 양자간의 합의와 동의로서 중용을 이끌어 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불법유통, 한인사회 공범으로 몰고 갈 수도 밀수소주 NO! 소비자가 나서야

J회사 소주를 찾는 고객들이 많다는 한 음식점은 소주 통관 지연으로 인해 타회사 정품소주만 구입해 판매를 했다. 처음엔 식당에 들렀다가 발길을 돌리는 J회사 소주 애주가들이 많아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얼마 후 곧 정상으로 되 돌아 왔다. 이 음식점은 외부요건으로 인해 매출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이곳뿐만이 아닌 세계 어느 곳, 어느 업종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보기에 지금도 정품소주만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식당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밀수소주 판매가격을 정품소주가격과 같게 판매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을 더욱 기만하는 행위이고 소비자들의



눈엔 당연히 모든 요식업체들의 폭리와 횡포 등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상호간 불신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밀수근절과 건전한 소주유통문화정착을 위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품이든 밀수품이든 식당에서 주는 대로 마셔야지 하는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밀수소주에 대해 NO! 라고 정정당당히 주장하고 정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많을 때, 소비자가 원해 밀수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해묵은 변명으로 정당화했던 밀수유통 합리화를 근절하는데 조금이나마 다가서지 않을까 한다.

소주한잔 할까?

대한민국 국민은 평균 일주일에 2-3회 소주를 즐긴다고 한다. 직장일로 속상할 때, 간만에 친구를 만나 기쁠 때, 친구에게 고민 상담할 때, 객기부릴 때... 이처럼 소주는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 술'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가격 부담이 없고 숙취도 덜해 한마디로 마시기에 부담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60년대 중반부터 '서민을 위한 술'로 자리잡았던 소주지만 이곳에선 웬만한 양주만큼 비싼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귀한 몸만큼이나 그에 얽힌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또 억울한 오명으로 얼룩져 있다.

한국 식당에선 원가의 3배를 받지만 이곳에선 원가의 두 배도 남기지 않는다며 애써 소주가격을 합리화하는 일부 식당주도 그렇고 '소주는 한국인에게 술이 아닌 음료수이고 문화'라며 과도한 주세부과에 대한 인니 당국의 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해프닝을 연출하는 일부 수입업체의 억지 주장 또한 결국 '남는 장사다'는 욕심으로 부추겨진 오명일 수도 있다.

비싼 소주가격에도 '소주 한 잔' 할 때의 국민들의 마음은 욕심 없이 정을 나누는 평범한 대한민국 서민의 마음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독립전야

獨立前夜

글: 김문환 논설위원

‘광복(光復)의 달’ 8월이 돌아왔다. 대한민국의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해방을 맞이하였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의 진주만기습으로 발발한 태평양전쟁의 개전초기, 일본제국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도서지역 대부분을 점령하여 일시적이거나 세계전사상 유례없이 광활한 점령지를 구축하게 된다. 1942년 3월 1일 새벽, 일본육군 제16군은 자바 북부 해안지역에 상륙하여 불과 일주일 여가 지난 3월 8일 오후, 서부자바 수방(Subang)시 인근에 위치한 칼리자띠(Kali-jati) 군용비행장으로 네덜란드령동인도 총독인 짜르다(Tjarda van Starckenborgh), 군사령관인 테르 포르텐(Hein Ter Poorten) 중장, 그리고 반둥지구 방어사령관인 페스만(Pesman) 소장을 불러내어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다. 항복과 동시에 포로가 된 짜르다 총독은 ‘가택연금’을 제외한 일본군의 호의를 거절하고 다른 네덜란드 포로들과 함께 고난의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3년 반 동안 수카미스킨, 대만의 포로수용소를 전전하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한 다음 날인 1945년 8월 16일 짜르다는 필리핀이 함락되면서 포로가 되어 역시 같은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미군사령관 웨인라이트(Jonathan Wainwright) 중장과 함께 만주국 길림성 서안(西安)의 포로수용소에서 소련군에 의해 구출된다.

일본군이 자바점령을 마친 직후인 3월 12일, 일본육군 제25군이 수마트라 최북단 사방(Sabang) 지역에 상륙할 당시, 수카르노는 벵쿨루(Bengkulu) 지역에 유배되어 있었다. 수카르노는 함께 호주로 피신하자는 네덜란드 당국의 말을 믿고 부부가 도보



독립선언의 주역인 수카르노, 핫따, 수바르조, 마에다 제독(좌로부터)

로 이틀간 산행을 한 끝에 서부 수마트라 빠당(Padang)에 도착하나 도시는 무정부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네덜란드 관리들은 수카르노를 버리고 이미 호주 다윈(Darwin)으로 도주한 뒤였다. 제25군 선전부 소속인 사카구찌 대위는 어느 날 수카르노를 찾아와 점령군 사령부가 위치한 부킷팅기(Bukittinggi)로 데리고 가 그의 건강과 정신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7월이 되어서야 수카르노 부부는 자카르타로 이송되어 자바 점령군인 제16군 소속 선전부장 마치다 게이지(町田啓二) 중좌와 시미

동원'과 '미곡공출운동'을 선동하게 되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카르노, 핫따, 하디구스모(Ki Bagoes Hadikoesmo) 3인은 11월에 도쿄를 방문하여 히로히토 천황으로부터 최고훈장을 수여 받고 일본의 명승지와 군수산업 현장을 17일간 둘러보게 된다. 이때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수상 부인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온 기모노를 입은 수카르노의 부인 화뜨마와띠(Fatmawati)의 상반신 사진이 '자와 바루(Jawa Baru)'라는 일간지의 1944년 1월 1일자 일면을 크게 장식하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즈 사이또(清水薺) 과장 앞에 서게 된다. 수카르노의 독립운동 동지들인 핫따(Hatta)와 수판 샤희리르(Sutan Sjahrir)는 서부 과푸아(현 과푸아 주)의 보벤 디굴(Boven Digul)이라는 악명 높은 유배지에서 일본군에 의해 석방되어 이미 일본군의 협조자가 되어 있는 시점이였다. 수카르노에 대한 이용가치는 누구보다도 높았으나 그의 극단적인 국수주의적인 성향으로 인해 일본군정 당국은 그의 합류를 꺼려오다가 시미즈 과장의 강력한 추천에 의해 뒤늦게나마 그를 불러들인 것이다. 1943년 4월 일본 군정당국은 선전부 예하에 계민문화지도소(啓民文化指導所)를 설립하여 문화, 예술 분야의 젊은 유망주들을 차출하여 점령지의 문화정책을 총괄하였고 지도소가 설립한 국민운동본부(PUTERA), 자바민중봉사회(Jawa Hokokai)의 전면에 수카르노를 내세워 선전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수카르노는 선전부에 의해 설립된 일본영화사가 제작하는 35밀리 영화에 한 달에 한 번 출연하여 그의 탁월한 대중연설을 통해 '노무자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군이 본토뿐만 아니라 점령지 주민들에게 승전보만을 전달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순간,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전투, 사이판 전투, 괌 전투 등에서 연전연패하며 전세가 절망상태에 빠지게 되자 개전의 주역이었던 도조 수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며, 조선 총독인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가 1944년 7월 그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다. 수상으로 취임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9월 7일, 고이소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독립약속을 내, 외에 천명하게 된다. 경직된 육군과는 달리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던 해군무관부의 자카르타 책임자인 마에다 다다시(前田泰) 제독은 인도네시아 독립에 대비하기 위해 1944년 10월 지금의 꼬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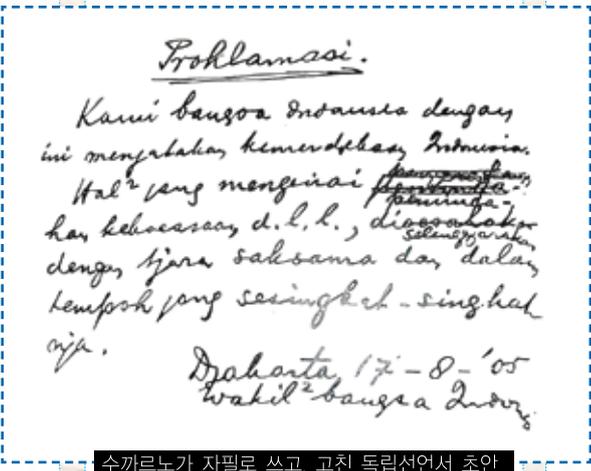
란 지역(Jalan Bungur Besar)에 기숙사를 완비한 ‘독립숙(獨立塾)’이라는 지도자 양성기관을 설립하게 된다. 모든 학비와 경비는 해군에서 지원하였고 해군무관부 소속의 현지인인 위카나(Wikana)가 교장직을 맡았으며, 후일 9.30공산 쿠데타의 주역이 되는 아이딧(Aidit), 룩만(Lukman) 등이 이 당시의 학생들이었다. 한편 1945년 3월 해군의 독립숙에 대응하여 육군은 똑같은 목적의 ‘건국학원(建國學院)’을 설립하였으나 일본인을 교장으로 내세우고 일본어로 강의하는 등 모든 절차를 일본식으로 고집하여 해군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1945년 1월 17일 맥아더 장군이 루손도의 Red Beach에 상륙하면서 순양함 내슈빌(Nashville)호 선상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나는 드디어 돌아 왔습니다(I have returned)’라는 감격적인 일성을 토해내며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자 단파방송을 통해 인근국가의 전황을 파악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독립지도자들은 고이소의 약속 이후 반년이 넘도록 아무런 가지적인 후속조치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종전의 협조적인 태도에서 돌변하여 일본군정 당국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다. 군정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서둘러 천황

의 생신일인 4월 29일 자로 독립준비조사회(BPUPKI: Badan Penyelidik 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를 결성하여 미봉책으로 삼고자 하였다. 의사 출신의 선각자이며 연장자인 라지만 웨디오디닝그랏(Radjiman Wedyodiningrat)을 의장, 수로소(Soeroso)와 일본인 요시오를 공동 부의장으로 하고 수카르노, 핫따, 아구스 살림, 와히드 하심, 야민 등 62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미야노 등 몇몇 일본인이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5월 28일부터 시작된 제1차 총회에서 라지만 의장이 국가의 기본이념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는 주제를 던지자, 그 다음 날인 5월 29일 야민(Yamin)이 5개 항목, 5월 30일엔 수보노(Soepono) 교수도 5개 항목, 6월 1일엔 수카르노가 소위 뽀자실라(Pancasila)라고 제

원장인 헌법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헌법초안(Undang-Uundang Dasar)이 승인되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다음 날인 8월 7일, 일본은 종전의 독립준비조사회를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대체한 독립준비위원회(PPKI: 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를 출범시켜 수카르노, 핫따를 각각 주석,부주석으로, 그리고 친일인사 2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절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8월 9일, 수카르노, 핫따, 라지만 3인의 독립준비위원회 지도자들은 남방총군사령관 테라우치 히사이치(寺内壽一) 원수(元帥)의 초청을 받아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사이공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50키로 떨어진 고원지대 달랏(Da Lat)을 방문하여 뇌경색으로 와병 중인 테라우치를 8월 12일 면담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독립준비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가동할 것이며 준비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독립선언 시기를 자체적으로 정하되 가끔적이면 8월 24일자로 일본정부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게 좋겠다.”는 테라우치의 제안을 수용하고 일행은 8월 14일 자카르타로 돌아온다. 그러나 8월 14일 지하 라디오방송(BBC)을 통해 일본이 이날 자로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여 항복을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멘청청년그룹(Pemuda Menteng 31) 요원들인 하이롤 살레, 아스마라 하디, 하나피, 수디로, 프리 무르티는 꼬마요란(Kemayoran) 공항으로 나가 베트남에서 마약 돌아오는 수카르노, 핫따 일행을 붙잡고 즉각적인 독립선언을 요청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자, 이날 밤 11시, 청년그룹은 위카나(Wikana), 다르위스(Darwis) 등 4명의 대표를 다시 수카르노의 자택으로 보낸다. 이 자리에는 핫따를 비롯한 독립준비위원회 간부들도 배석해 있었다. 군정감부의 공식발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수카르노의 완고한 주장에 청년그룹은 두 번째의 요청마저 거부당한 채 그들의 아지트(Asrama BAPERPD)로 돌아온다. 바로 이 시각 도쿄에서는 히로히토 천황이 궁내성 2층



수카르노가 자필로 쓰고, 고친 독립선언서 초안

목을 붙인 5개 항목의 국가이념안을 차례대로 발표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제안된 세가지 안을 심의하기 위해 수카르노를 팀장으로 하는 ‘9인 소위원회(Panitia Sembilan)’가 결성되어 6월 22일 이슬람, 사회주의, 민족주의 진영의 이념을 절충하며 수카르노가 제안했던 5개 항목의 안을 근간으로 삼아 ‘이슬람 신도들에게는 이슬람법(Sharia) 준수 의무화 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이슬람 진영과 민족진영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는데, 이를 ‘자카르타 헌장(Piagam Jakarta)’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어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2차 총회에서는 국가형태, 영토, 시민권, 헌법 초안, 경제 및 재정, 국가방위, 교육문제 등이 분과위원회 별로 심의되었으며, 7월 14일 수카르노가 위

원장인 헌법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헌법초안(Undang-Uundang Dasar)이 승인되었다.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다음 날인 8월 7일, 일본은 종전의 독립준비조사회를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이를 대체한 독립준비위원회(PPKI: 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를 출범시켜 수카르노, 핫따를 각각 주석,부주석으로, 그리고 친일인사 21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절차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마에다 다다시 제독의 자택(Jalan Imam Bonjol No.1). 현재 '독립선언서 기초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세 집 건너에 대한민국 대사관저가 위치하고 있다. 당시 자카르타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일본육군 제16군과 해군간의 연락사무소 격인 해군무관부의 책임자였던 마에다 소장은 독립을 목전에 두고 점령자와 피점령자 간의 갈등, 독립주체간의 이념적 상충으로 인해 복잡한 양태를 보이고 있던 정국을 자신의 자택을 선언서 기초 장소로 제공하면서까지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여 독립선언이 결실을 맺도록 유도하였다. 이후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수카르노는 1950년 마에다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생활비를 송금하였으며, 1958년 1월 수카르노가 독립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제국호텔에 여장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마에다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달려가자, 옛 일본점령군 간부들 사이에선 '그래도 수카르노는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곤 하였다.

에서 병풍으로 둘러진 채 '무조건 항복'을 발표하는 내용의 녹음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낮 시간대의 뉴욕 변화가 타임즈 스퀘어 광장엔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가 털 것 없이 서로 키스공세를 퍼부으며 승전(勝戰)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8월 15일의 아침이 밝아오자 자카르타 시내의 분위기는 어수선하였으며 수카르노, 핫파는 이 와중에 일본의 항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정감부(현 대통령궁 자리)를 찾았으나 간부들은 모두 부재 중이었고, 할 수 없이 인근에 위치한 해군무관부 사무실로 발길을 돌려 현지인 간부인 수바르조(Achmad Soebardjo)의 안내를 받아 오후 4시경 마에다 제독과 마주하게 된다. 마에다는 그의 보좌관인 니시지마를 함석시킨 자리에서 달 랏에서의 회담결과에 대해 치하하며 일본의 항복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만 할 뿐 무관부는 아직 본국으로부터 어떤 훈령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믿기지 않는 갑작스런 일본의 항복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마에다의 사무실을 나온 수카르노, 핫파는 자신들의 향후 거취문제에 대해 전전공궁하며 일단 독립준비위원회 사무실로 돌아가 위원들과 대책을 협의하여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0시에 독립준비위원회 사무실(Jalan Pejambon No.2)에서 전체회의를 앞당겨 소집하기로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며 8월 15일의 마지막 시각을 마감하고 있었다.

8월 16일 아침 8시, 수바르조의 비서인

수디로(Sudiro)가 수카르노, 핫파 일행이 행방불명 되었다는 사실을 수바르조에게 황급히 보고한다. 멘헝청년그룹의 핵심 지도자들인 수카르니(Sukarni: 청년그룹 의장, 1960년 주 중국대사 역임), 하이롤 살레(Chairul Saleh: 청년그룹 부의장, 부수상 역임), 위까나(Wikana: 해군무관부 소속, 1948년 마디운 공산당 반란에 연루, 9.30사태 후 행방불명), 하나피(Hanafi: 병풍투 출신의 수카르노 가신, 1963년 주 쿠바대사 부임 후 1965년 9.30쿠데타가 터지자 쿠바에 망명), 아담 말릭(Adam Malik: 청년그룹의 지략가, 동맹통신사 기자, 외무부 장관, 부통령 역임) 등 15명은 8월 14일 밤 늦게까지 두 번에 걸쳐 수카르노를 설득하다 실패하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에 이른다. 즉 향토방위용군(PETA: Tentara Sukarela Pembela Tanah Air) 소대장인 수빠노 싱기(Supeno Singgih)의 도움을 받아 8월 16일 새벽 4시 30분, 수카르노의 부인 화뜨마 와띠, 생후 9개월 난 장남 군투르(Guntur)를 포함하여 수카르노, 핫파를 서부자바 까라왕(Karawang) 지역 령아스텡글록(Rengasdengklok)의 향토방위군 아지트로 납치하게 된다. 독립준비위원회 위원이며 해군무관부 소속인 수바르조는 수소문 끝에 이를 멘헝청년그룹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같은 무관부 소속인 위까나를 다그친 결과 이들이 저지른 소행임을 확인하게 된다. 수바르조는 "독립선언은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수카르노, 핫파 일행을 일단 자카르타로 모시고 와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켜 자신의 비서인 수디로(Sudiro)와 함께 납치장소를 알고 있는 의과 대학생 유습 쏬뜨(Jusuf Kunto)를 앞세워 8월 16일 오후 4시 령아스텡글록을 향하여 출발한다. 지아우 끼 시옹(Djiaw Kie Siong)이라는 중국계 현지인의 자택에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수빠노 싱기와 담판을 벌이는 과정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기도 하였으나 수바르조의 용기있는 행동에 의해 "8월 17일까지 여하한 일이 있어도 독립선언을 끝낼 것이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야 수카르노, 핫파 일행은 연금상태에서 풀려난다. 8월 16일 밤 11시가 되어서야 자카르타로 귀환한 수카르노 일행은 통행금지 시행되는 관계로 호텔 데스 인데스(Hotel Des Indes, 현 Duta Merlin 상가)로 가려던 계획이 어렵게 되자 무관부 소속의 니시지마(西嶋重忠, 후일 일, 인천선협회장 역임)의 보장에 마에다 제독의 자택을 회의장으로 정하게 된다. 이들을 맞이한 마에다 제독은 일단 군정감인 야마모토 모이치로(山本茂一朗) 육군 소장 자택으로 이들을 안내하였으나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대신 야마모토는 군정감부 총무부장인 니시무라 오토시(西村乙嗣) 소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상대하도록 지시한다. 8월 17일 새벽 1시, 수카르노 일행과 마에다 제독, 마에다의 참모인 니시지마를 맞이한 니시무라 자택에는 군정감부 대변인인 미요시 슌키치로, 정무반장인 사이토 시즈오(齋藤鎮

男, 1964~1966 주 인도네시아 일본대사 역임), 나카타니 통역(당시 21세, 깔리만탄에서 출생하여 네덜란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일본 거류민 자녀), 아사히신문 기자인 야마모토 히데마사 등이 패전에 대한 좌절감에 통음을 하여 만취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자리에서 니시무라는 일본의 항복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나, 현재 상황이 '현상유지 상태(Status Quo)'인 관계로 마에다 자택에서의 집회도 불허한다고 강조하였다. 한술 더 떠 사이토 정부반장은 해군의 유희적인 행태에 대해 이는 천황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공안조사(公安調査)감'이라는 등의 극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수카르노, 핫따는 "달 랏에서의 테라우치 원수의 약속을 펴개치고 연합군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속셈인 이러한 처사가 바로 일본이 내세우는 '사무라이 정신'이나"며 격렬하게 항의하자 분위기가 한때 위험수위를 넘나들기도 하였다. 결국 수카르노는 니시무라에게 "장군의 입장이 정 그렇다면 독립준비위원회가 진행하는 일을 모른 채 하며 방해만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새벽 2시에 나카무라의 자택을 나선다. 수카르노, 핫따가 다시 마에다의 자택으로 돌아오자 마에다는 육군이 꼭 참여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사이토 정부반장의 동참을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당하였고, 대신 미요시 대변인만 육군을 대표하여 마에다 제독의 자택으로 합류한다.

이후 선언서 초안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에다는 2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로 올라 일부러자리를 피하였으며 군정감부의 미요시와 해군무관부 조사부 제3과장인 요시즈미, 마에다의 참모인 니시지마만이 통역인 나카타니를 대동하고 독립선언서 초안작업을 참관하게 된다. 새벽 3시 수카르노, 핫따, 수바르조 3인이 등근 식탁을 중심으로 삼각형으로 둘러앉고 수카르니, 디아, 수도로,사유띠 등이 벽면에 있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앉아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언서 초안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나머지 준비위원과 청년그룹 요원들은 응접실과 거실에 모여 이 역사적인 순간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수카르노가 펜대를 잡

고 핫따와 수바르조가 구두로 조언하며 문안의 골격을 잡아 나가면서 일본군을 자국하지 않도록 가급적 직선적인 문구 대신 유희적인 어휘를 선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청년그룹의 강권에 의해 '권력의 쟁취(Perebutan Kekoeasaan)'라는 강렬한 어휘가 사용되었으나 마에다 제독을 대리하여 시종일관 자리를 지킨 니시지마가 '행정권이양(Pemindahan Administratif)'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여 격론이 일자 결국 '권력의 이전(Pemindahan Kekoeasaan)'으로 절충되었다. 새벽 4시경 선언서 초안이 확정되어 인근 독일 해군무관인 헤르만(Herman Kandler) 소령의 자택에서 타이프 라이터를 빌려와 사유띠(Sayuti Melik)가 2층 계단 밑 작은 골방에서 타이핑에 들어가게 된다. 15명의 청년그룹 이름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립을 선포하자는 소장파의 의견도 나왔지만 수카르노와 핫따만이 선언서에 서명하자는 수카르니의 제안이 수용되었다. 선언장소 문제에 이르자, 이까다 광장(현 모나스광장 동쪽 끝 지역)에서 대중이 보는 앞에서 선언문을 낭독하자는 건의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각된 채, 8월 17일 오전 10시, 수카르노의 자택(Jalan Pegangsaan Timur No.56) 앞 뜰에서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역사적인 독립선언서(Proklamasi Kemerdekaan)가 수카르노에 의해 낭독되었다. 단 두 문장에 지나지 않는 선언서가 낭독되자 수카르노의 부인인 화띠마와 띠가 며칠 전에 재봉질해 만들어 둔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이어 자카르타 부시장인 수위르요(Soewirjo)와 수카르노의 영향하에 있는 선봉대(Barisan Pelopor) 지휘관인 모와르디(Mowardi)의 인사말이 끝난 직후 국가(Indonesia Raya)가 합창되었다. 한편 이까다 광장에 모여있던 선봉대원 100여명이 뒤늦게 눈치채고 황급히 달려와 재차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도록 강권하였으나, 핫따가 이들에게 간단한 인사말을 대신함으로써 사태를 수습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찰한대로 340여 년간의 네덜란드 식민통치에서 인도네시아를 해방시켜 3년 반 동안 강점하다 독립을 허용하는 과정에, 젊은 간성들을 모아 독립속(獨立

藝)이라는 교육기관을 만들어 독립에 대비하며 독립전야에는 자신의 자택을 초안작업 장소로 제공하여 인도네시아 독립선언이 연착륙되도록 유도한 인물은 마에다 다다시라는 일본해군 제독이었고,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는 재임 20년 동안, 15회에 걸쳐 58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그 중 11회를 일본에 집중하였으며 이 기간 중 일본에 체류한 일수는 무려 117일에 달하였으니, "도쿄가 인도네시아의 임시수도였고 제국호텔이 임시 대통령궁이었다."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했었다. 어찌 그뿐이라. 수카르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Suharto) 장군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니, 그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군이 자바와 수마트라에 창설한 항토방위의용군(PETA)의 중대장 출신이었다. 그래서 그 어느 인도네시아 역사평론가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은 '메이드 인 저팬(Made in Japan)'이라는 자조 섞인 낚두리를 거침없이 내뱉기도 한다.

*각주 1:

본문에 언급된 군정감부 총무부장 '니시무라 오토시(西村乙嗣)'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 정사(正史)에 따른 인명이지만, 일본 쪽에서 나온 육군편제에 관한 사료를 보면 니시무라는 이미 3개월 전에 전출되었고, '나카무라 준지(中村淳次)' 육군소장이 총무부장 직책을 수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로는, 인도네시아 측에서 사료를 정리할 때 외국인인 양자의 이름이 비슷하고 근속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이를 혼동하였던가, 아니면 나카무라가 1945년 5월 31일자로 발령을 받았지만 종전 전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나카무라 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겨 니시무라가 계속 그 직책을 수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각주 2:

상기 기고문은 필자가 지난 5월 20일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사공경, 신유희) '열린강좌'와 6월 19일 '문화탐방'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ZARA

Fast Fashion에 점령당한 패션업계

하민수 Inkordan International 대표

1. 비싸게 사기는 싫다.

2. 허름한 시장에서 사기도 싫다

3. 알아주지 않는 브랜드 입기도 싫다

4. 유행에 떨어져 보이기도 싫다.

요즘 소비자들이 옷을 구매 하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 H&M, ZARA, GAP, UNIQLO 등 글로벌 SPA 브랜드다. [SPA란 ‘자기 상표 부착 유통 의류 매장’을 말한다]

과거의 옷의 구매는 아주 비싼 백화점에 가서 사거나, 동네 시장의 옷 가게에서 아주 싼 옷을 구매하는 2가지의 구매 형태가 있었다.

이제 SPA 브랜드는 백화점과 다름없는 고급 매장을 만들고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으로 가격을 대폭 떨어뜨렸다. 따라서 소비자가 요구 하는 위에 열거된 “1] 비싸게 사기는 싫다, 2] 허름한 시장에서 사기도 싫다”의 욕구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다.

이제 SPA 브랜드의 남은 과제는 “3] 알아 주지 않는 브랜드 입기도 싫다, 4] 유행에 떨어져 보이기도 싫다” 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Fast Fashion 이라고 불리는 Lead Time 의 단축이다. 즉, 디자인-생산-매장 진열이라는 리드 타임을 6개월에서 2주로 단축시키려 하고 있다.

수백 명의 디자이너를 두고 매월 수천 가지의 디자인을 쏟아내고 있다. 매주 새롭게 창조된 디자인을 주변국에서 생산하여 비행기를 이용하여 각 매장으로 발송한다. 이렇게 하여 리드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킬 수 있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리드 타임의 단축은 재고 보관 기일을



슬로우 패션[slow fashion]이란?

남은 옷은 고쳐 입고, 필요 없는 옷은 바꿔 입자. 라는 것이 슬로우 패션이다.

유행을 쫓기 보다는 자기의 개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재활용 의류, 리폼된 의류, 핸드메이드 의류를 입는 패션을 슬로우 패션이라고 한다.

입지 못하는 오래된 가죽 옷은 가방으로 만들고, 오래된 원피스는 스커트로 만들고 길이가 짧은 청바지는 반바지로 만들어 입으면 유행도 따라 가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의류 소비 형태를 구축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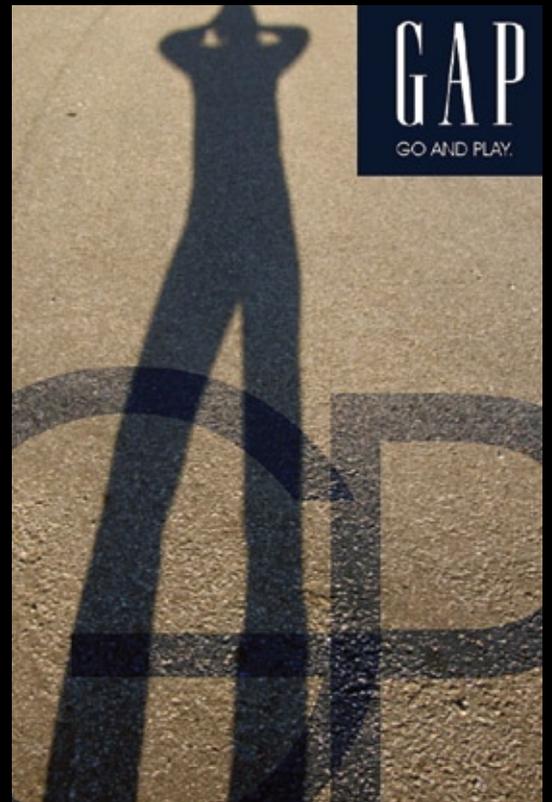
경제가 계속 어려워 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운동이 대중화 될 때에는 언젠가 슬로우 패션이 뜰 날이 있지 않을까?

단축하여 Cash Flow를 원활하게 만드는 유행유가 되었다.

이제 SPA 브랜드의 남은 과제는 3] 알아 주지 않는 브랜드를 유명한 브랜드로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브랜드에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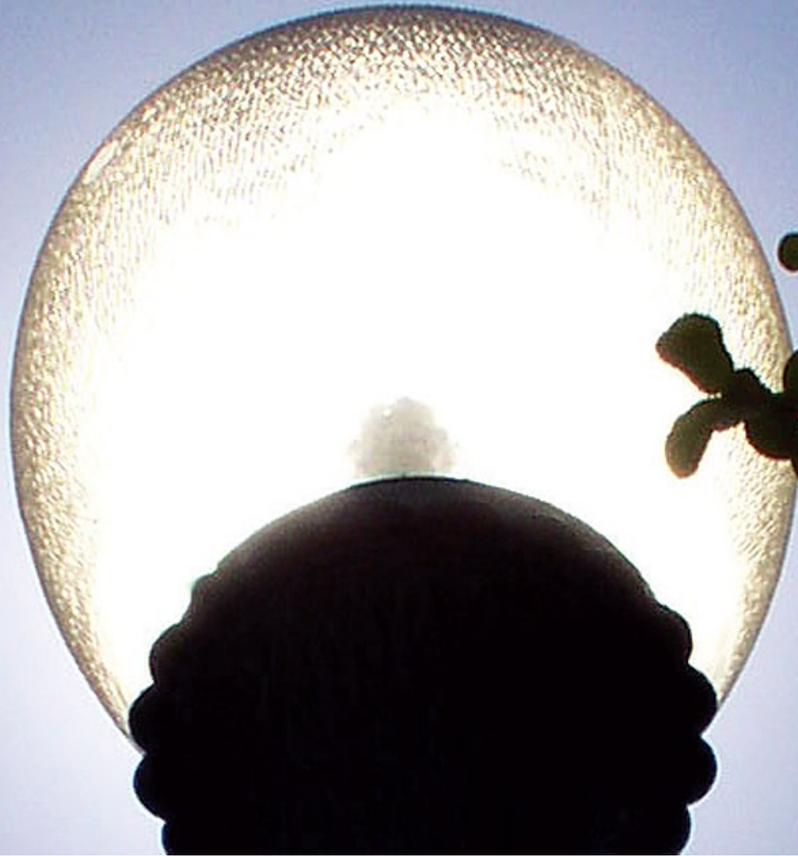
유니클로는 기본적인 디자인, 기초적인 디자인을 통한 스트리트 루킹을 기본 개념으로 깔고 있고, 스웨덴의 H&M은 튼튼하고, 편리한 실용적인 개념을 옷에 도입하였다. 또 세련된 광고, 스포츠 스타를 통한 기능성 광고를 통해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알렸다. 이렇게 하여 SPA 브랜드는 한국에 진출하여 획기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41개, 겹 21 개, 파파야 23 개, 자라 12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고, 유니클로의 매출은 2006년 300억원 에서 2009년 1500억, 2012년에는 매장 108개 매출 4200억원을 꿈꾸고 있다.



필립, '숨' 쉬고 싶다

- 필립 그를 위한 변명



<김영민 편집위원>

지난 7월 6일 이른 새벽, 본지기자과 한국대사관 홍영규 영사는 인도네시아 동쪽에 위치한 북부 말루꾸주의 한 작은섬인 떠르나떼(Ternate)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5시간을 넘겨서야 겨우 도착해 호텔에 잠시 여장을 풀고 난 후 우리는 섬 중앙에 우뚝선 가마라마(Gamalama)산 쪽으로 반시간 넘게 차를 몰고 나서야 산 기슭에 자리잡은 떠르나떼 교도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삭막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교도소 외관은 모범교도소란 이름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정돈 되어 있었다.

이곳을 찾은 이유는 두 해전 말루꾸주에서 불법벌목 혐의로 구속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배모씨(이하 필립)를 만나기 위해서다. 불법벌목혐의로 구속된 필립은 수감생활 중 인도네시아 교민이 운영하는 한 웹사이트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며 불법벌목의 책임이 있는 회사를

대신해 그가 모든 책임을 지고 구속된 사연과 회사측의 안일한 대처 및 무관심 등에 대한 억울함 등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의 글들이 인니 교민 사이에 화자 되기 시작하자 교민들의 관심과 반응은 급기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필립측과 회사측의 공방으로까지 뻗어나갔었다.

교도소와 첫 대면

신분확인과 필립을 위해 준비해 온 물품들을 검사하기 위해 까다롭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절차가 있었다. 우리는 필립을 위해 약간의 먹거리들을 준비해왔다. 교도관들은 참치와 햄 통조림, 고추장, 된장, 참기름, 김, 담배 등 내용물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그리고 햄 통조림을 들어 보이며 무슨 고기냐고 묻는다. 돼지고기라고 말하자 '하람'이라며 기겁을



북부 말루쿠주의 떠르나떼 섬에 위치한 교도소 모습. 이곳에서 유일한 외국인인 필립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 자기들이 먹지도 못하는데 왜 이런걸 가져왔냐는 눈치였다.

검사가 끝난 후 교도관들은 우리에게 너무도 태연히 금품을 요구했다. ‘민따 우양’. 잠시 귀를 의심했지만 ‘민따 우양’이 확실했다. 기자와 경찰영사의 외교관 신분증을 확인하고도 이런 말이 나오다니….

돈 상납이 없자 교도관들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몇 번의 철창을 지나고 도착한 푹푹 찌는 좁다란 복도였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필립을 만날 수가 있었다.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필립의 모습은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푸른색 복장이나 빼빼용 영화에 나오는 줄무늬 복장이 아닌 사복을 입은 모습에 조금 어리둥절 했지만 인도네시아 교도소는 사복을 입는다고 한다. 간단한 상견례를 뒤로 하고 교도소 생활에 대한 그의 심경을 들을수가 있었다.

필립과 교도소의 현실 - 숨 쉬고 싶다

필립의 떠르나떼 교도소 생활은 3개월 정도 되었다. 이전에는 배로 7시간이 걸리는 바짠(Bacan) 교도소에서 생활을 했다. 필립은 떠르나떼 교도소로 이송된 이후 외국인인 자신이 현지인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한다. 교도소장은 필립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고 금품은 고스란히 관할 상사의 교도소 방문 시 접대비 명목이나 심지어 그의 개인적 욕구를 위해 쓰인다고 하며 또한 교도관들도 필립이 부실한 식사가 전부인 그곳에서 나시고랭이라도 먹고 싶을 땐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조건으로 겨우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

필립은 외국인으로서의 약점을 교도관들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도소내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돈줄’로 통했고 이는 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었다.

필립의 모습, 걸으론 건강해 보였지만 심심치 않게 찾아오는 위궤양과 치통을 제대로 치료받을 곳조차 없어서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것 또한 그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다. 필립은 대화 곳곳마다 ‘숨을 쉬고 싶다’는 말을 계속 되풀이 했다. 그는 제때 금품 상납이 이뤄지지 않을 때 문을 걸어 잠그거나 방안의 수도를 끊는 등의 조치 때문에 결국 눈물을 삼키며 교도소 내 생활비 명목의 운영비를 토해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조용히 살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그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했다.

필립의 구속: 회사와 자신을 위했던 순간의 선택

인도네시아 경찰은 A사의 별목담당과장으로 북부 말루쿠주 메이아 말루쿠포스에서 별목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필립이 허가된 별목 지역이 아닌 보호림지역에 대한 불법벌목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008년 9월 13일 필립을 구속시켰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의 항소가 이어졌고, 필립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지난 2009년 12월 대법원 상고결과 기각 결정으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필립이 말하는 사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필립은 지난 2008년 3월 18일 목재회사 취업허가를 받고 목재 관련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현장이 아닌 벌목회사인 A사 계열사인 B사에서 A사의 현장업무지원과 경리업무를 담당했었다. 그 후 같은 해 6월 A사 벌목현장소장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현장직원 관리 차원으로 잠시 A사 일을 돕고 B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9월 경찰들이 B사에 들이닥쳐 필립은 불법벌목 지시 책임자로 조서를 받았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벌목 증거물인 지도를 발견했지만 그가 불법벌목을 지시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자 선적서류에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그를 현장책임자로서 구속했다고 한다.

필립에 의하면 그 후 회사 대표이사 및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사측 관계자가 모두 구속이 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거라는 그의 판단과 회사측에서 그를 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거라는 믿음으로 모든 불법벌목에 관한 회사관계자의 개입여부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후 회사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며 현지인들도 힘들다는 유치장에서 두 달 여간 버텼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필립은 회사측에 1심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통보했다. 변호사 선임 및 비용지불에 대한 회사측의 안일한 대응이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회사측은 필립에게 1심 재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하고 그의 급여 및 보상, 교도소 생활 운영비 명목에 대한 지불약정서를 작성했다.

필립은 다행히 회사의 노력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5년 형을 선고 받게 되고 결국 대법원에서 필립의 상고 기각으로 5년 형이 확정되었다.

벌목회사 불법행위에 말단 직원만 구속... 상식적으로 이해 안가

관계 당사자가 아닌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필립 자신이 불법벌목 현장에 있었다는 점과 선적서류에 서명을 한 점은 그를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한 구속의 연유가 되었으며 그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 또한 순간의 판단착오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목회사에서 근무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한 말단직원 만이 불법벌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홀로 구속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 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대표 M 회장과 Y이사가 필립에게 서명해 건넨 지불약정서는 필립이 회사의 책임을 지고 홀로 감당해 내야할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였음이 확실해 보인다.

현실은 교도소 이송, 야외노역, 감형, 가석방...

오랜 수감생활로 심신이 지쳐있는 필립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굳게 닫혀 있는 교도소 정문. 회사측의 적극적인 구명 노력으로 필립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길 바래본다.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고 있었다. 대신 필립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었다.

필립은 우선 타 교도소로의 이감을 여러 차례 이야기 했다. 그가 생각하는 타 교도소란 Ternate로 이송되기 전 수감생활을 했던 Bacan 교도소였다. 그가 애써 재심장소로 Bacan 지역을 말했던 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곳엔 지인들이 많이 있었고 운영비만 충분히 지원 된다면 교도소 외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야외 노역 혜택이다. 야외노역은 현실적으로 구형의 절반이 지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8월, 3개월의 감형이 확정되는 조건이면 올 12월에 야외노역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교도소에서 출퇴근 형식인 야외노역의 조건은 교도소 인근에 회사를 만들어 개인사업을 하거나 기존의 회사에 취업해 급여를 받는 조건이면 된다고 한다.

세 번째는 감형 혜택이다. 필립은 올 8월 17일에 약 3개월의 감형확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내년 5월과 8월 감형 노력을 통해 각 1개월과 3개월의 감형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총 7개월의 감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가석방 혜택이다. 가석방은 최종 형량의 2/3를 복역해야만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총 7개월의 감형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된다면 2012년 1월 가석방 신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회사측의 적극적인 구명 노력 급선무, 대사관의 측면 지원도 중요해

필립의 수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도소장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타 교도소로의 이감, 야외노역, 감형, 가석방 등 현실적 대안들을 위한 금전적인 지원들이 그에겐 절실했다. 필요악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회사측이 필립과 약정한 약정서 내용대로 성실한 이행을 하는 것 만으로도 수감 생활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자의 반, 타의 반 회사의 책임을 대신 지고 외롭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점점 작아지는 회사측의 관심에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는 홀어머니에게 차마 지금의 상황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립은 대화 도중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필립에 대한 ‘회사의 인간적 배려’가 너무도 절실했다.

또한 대사관과 한인회의 교도소 모니터링 강화다. 대사관 경찰영사는 필립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처럼 교도소내의 부당행위나 감형, 가석방 등에 필요한 대사관의 조치에 대해 언제든지 연락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영사는 대사관의 지나친 관여는 내정간섭으로 비쳐질 수 있는 실정법상의 한계와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도움을 줄 것 약속했다. 또한 감형 및 가석방에 대한 필요공문 발송 등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임을 밝혔다. 필립 구명을 위해 회사측이 교도소 및 지방법무청 등 관계 부처에 적절한 로비를 통한 관계형성을 만들어 준다면 대사관의 구명 노력에도 큰 탄력이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필립을 위한 변명

인도네시아 현 정부가 마약과 도박에 준하게 엄중 처벌하고 있는 불법벌목과 관련해 한국인이 구속 수감되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필립의 구속사실이 인터넷을 통해 교민사회에 급속히 확산되자 구명을 위한 청원서명 운동을 전개되기도 했으며 언론을 통해 정부를 움직여야 한다는 소리들이 거침없이 터져 나왔다. 필립도 경찰영사와의 면담 시 직접 사과하긴 했지만 그도 인터넷을 통한 거센 항의로 좀더 깊은 대사관의 관심을 유도했음이 사실이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솔직히 밝혔다. 다만 자생적으로 생겨난 일부 필사모(필립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과 네티즌들은 회사측과의 진실공방을 벌이며 때론 독설과 비방을 여과 없이 표현해 내면서 결국 교민들 서로간 잠시나마 불신과 원망이라는 상처를 주었음은 사실이다.

숨을 쉬고 싶다는 필립, 홀어머니만 생각하면 어느새 떨어지는 눈물에 참을 수 없는 슬픔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하는 필립, 그래도 그는 홀로 있어서 차분히 인도네시아말을 공부할 수 있는 점이 좋다는 긍정의 자세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남길 희망했다. 상처가 있지만 이곳이 좋다고 했다.

필립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민들의 한결 같은 바람일 것이다. 당사자인 회사측은 물론 교민사회의 관심과 지혜로운 행동을 기대해본다.

좋은 드라마가 있는 인생

너무나 자극적이고, 혹은 만화적인 드라마들 탓에 간혹 인생도 죄다 저럴 거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다. 이미 그런 독한 혹은 지나치게 단 드라마에 익숙해서 그저 그런, 그냥 착하기만 한 드라마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요즘 나는 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말썽꾼 작은 아들이 있고, 어딘지 울타리 같은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우직한 장남이 있고, 그에 딸린 식솔들이 아옹다옹 하며 만들어 가는 잔잔한 일상이 있는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 인도네시아 생활 이년 차에 접어들면 발견한 재미이다.

예전엔 폭풍 같은 이야기가 튀어나오고,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가 좋았는데, 이제 사절이다.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인가보다. 몰입하기 보다는 바라보기, 혹은 관조하는 것이 더 좋아지는 걸보면 말이다. 그래도 가끔은 빵 터지는 걸 보면 것도 완전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참 애매한 시절이다. 시절이 그러해서 인가, 요즘 나는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을 기다렸다가 꼭 챙겨서 본다.

매주 토요일 아침 일찍 방영하는 드라마 <산 너머 남촌에는>을 좋아하는 이유는 열 가지도 넘지만 그중 첫 번째가 드라마 전체에 흐르는 그리움과 정겨움이다. 한국에 있을 땐 이런 드라마가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던 작품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정말 새롭게 다가온다.

TV를 보고 있노라면 내가 마치 그들의 시골길을 걷는 것 같고, 그들이 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종갓집을 지키는 대문 앞의 소나무 같은 아들과, 오래된 병풍처럼 모든 걸 지켜보고 감싸는 할머니가 있는 있는데, 이 할머니는 오래전 세상을 떠신 나의 할머니 김부용 여사를 떠올리게 한다.

한 때 나도 할머니가 아끼던 된장 독 옆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된장을 찍어먹고, 박으로 만든 바가지에 열무김치와 고추장을 넣고 밥을 비벼먹으며 매워서 코를 훌쩍인 적이 있었다. 할머니의 텃밭 옆에 앉아서 블루베리와 비슷한 까마중 열매를 따서 먹을라치면 어디선가 따오신 개똥참외를 머리에 쓰셨던 수건으로 쓱쓱 문지른 다음 건네주시곤 했다. 할머니의 텃밭이 있고, 집이 있던 서초동 642번지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기억만은 아직도 생생하다.



유준강 / 소설가, 카피라이터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엔 미군부대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전엔 그곳에 성황당과 떠돌다가 객사한 사람,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 무덤이 있었던 곳이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런 곳에 백화점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우리도 그땐 인도네시아와 다를 바가 없었던 셈이다.

어느 날인가. 할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미국인 나란히 우리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자고 했다. 아마도 그는 미군부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지금 같으면 싫다고 했을 터인데 참 바보 같이 나란히 셋이 서서 포즈를 취했으니, 수건을 쓴 할머니와 참, 민망하게 깎은 상고머리의 두 아이가 서있는 풍경은 상상만 해도 우습다.

할머니의 텃밭과 막 강남 개발이 시작되느라 여기저기 밀어 놓은 벌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 개발 덕분에 자두가 익어가던 과수원이 사라졌고, 언덕배기의 배 밭이 사라졌다. 그때는 자두를 독에 채워 놓고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너무 비싼 자두 탓에 한국가면 반드시 먹을 리스트에 올리고 침만 삼키다 만다.

요즘 자이언트라는 드라마를 보면 강남 개발 이야기가 나온다. 나의 기억으로도 그땐 강남이 별 볼 일 없었다. 할머니의 밭과 논이 있던 강남역 칠성사이다 공장부지 쪽은 뻑 하면 물이 들어오는 골치 아픈 땅이었으니 말이다.

아마도 그 때 찍은 촌스럽고 이상한 사진은 이름 모를 미국인의 앨범에 대책 없이 끼어 있거나 혹은 어디엔가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미국인의 시각으로 볼 때 참 못 사는 한국인의 두 어린소녀와 노파라는 제목을 붙인 채 기록사진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 지금 생각하면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는 하지만 그 때는 다 그러했던 때라는 걸 안다.

내가 요즘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어쨌건, 그때가 어쨌건 간에 할머니와 나의 추억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흥드라마였을 수도 있다고 <산 너머 남촌에는>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나는 매일 차를 타고 지나가며 사람을 본다. 아이를 안고, 혹은 기타를 치며 구걸을 하는 사람, 혹은 오젝ojek이라 쓰인 허름한 간판 아래서 손님을 기다리는 남자의 눈을 본다. 공허하거나 아니면 분노가 담긴 듯한 강한 눈빛을 보며 그들의 삶이 아직은 흥드라마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한 인간의 인생이 흥드라마 쪽으로 가거나, 혹은 국가가 대부분의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선, 지도자가 강하게 헤치고 나아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걸.

내 유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국민 교육 현장을 외우느라고 고생하고, 학교 교정은 사루비아 꽃밭 사이로 페인트로 쓰인 반공과 유신 어찌고 하는 구호가 난무했지만, 물론 나의 견해와는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리라.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인도네시아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주제넘은 생각일까?

한인뉴스가 후원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15일 창간 이후 교민사회의 길라잡이로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올 후반기를 맞아 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교민사회의 중추적인 정문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교민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인뉴스 후원사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제공됩니다. 후원방법 및 후원특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직접 귀사를 찾아 뵙거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문의: 한인뉴스 편집부 (담당 김영민 한인뉴스 편집위원)
전화: 021-521-2515 /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보내주신 많은 지지와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인뉴스 발행인 승은호 배상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논설위원: 김문환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주소: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웹사이트: <http://www.innekorean.or.id>

웹사이트에서 한인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07 8.15 광복절 기념, 한인회 행사 안내

08 대사관 임시 이전 안내

10 Landscape in Indonesia 마이따라 섬 & 띠도레 섬

11 커버 스토리 소주가 뭐길래! 한인사회 이미지 실추 될라

14 시사포커스-23 독립전야 獨立前夜

18 *Fast Fashion*에 접형당한 패션업계

20 특별취재 필립 숨쉬고 싶다 - 필립을 위한 변명

24 유춘강의 긍정 칼럼 흥드라마가 있는 인생

28 한인사회 소식

- 2010년도 한인회 이사회 총회 개최
- 한인회, 이사회 골프대회로 친선 도모
- 코참, 조찬간담회 재개
-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 우수한 한국주조기술 인니에 보급한다
- 10월 더욱 커진 '한-인니 주간' 개최된다
- 대한민국 대검찰청, 인니 마약퇴치 적극 나선다
- 한인회, 신임 이사 6인 선임, 청년층 적극 동참
- 땅그랑한인회, 현지인 57쌍 합동결혼식 열어
- 동부자바 소식

지난해 빼앗긴진 구호성금, 보건소와 이슬람사원으로 모습 드러내

Contents

- 38 8월 공저사항
- 43 생활정보 가이드
- 48 재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인터넷 공모전
- 49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솔로왕국의 제3대 왕 시누흔바꾸부워노**
- 52 여행에서 만난 거장 미켈란젤로
- 54 김효영 원장의 건강 칼럼 **다운 씩콩**
- 38 인터뷰 **이왕규 / KITA 해외마케팅 본부장**
- 57 인도네시아법률해설 **주주의 권리와 책임**
- 60 이병수의 보험 교실-1
- 62 평통광장
- 64 와칭 코리아
- 66 6.25 60주년 특별기고 **내가 겪은 6.25(마지막)**
- 69 김신의 알고싶은 컴퓨터 이야기 6 **컴퓨터 바이러스**
- 72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 61 인니 한인사회의 문화 실재 5 **교육문화의 실제**
- 76 BOOKS
- 78 MOVIES





한인회 이사회 총회에 참석한 임원들이 희망찬 2010년을 바라며 손을 들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0년도 한인회 이사회 총회 개최

지난 7월 21일 한인회 이사회 정기 총회가 재적 82명 중 위임장을 보내온 이사들을 포함 67명이 참석해 회칙 20조에 의해 성원, 개최되었다.

국민의례 후 승은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세계에 한인회 3천여 곳 중 잘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지만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인도네시아한인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한인회, 상공회의소가 교민사회에 봉사과 도움의 계기를 만들자고 전했다. 또한 승은호 회장은 “대기업 등이 인니에 속속히 진출하고 있는 만큼 한인회와 협조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기업 수석부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한인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음을 전하고 한인회 사무국 강화, 홈페이지 보강, 한인뉴스 재정 확보 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민서비스 강화가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임을 밝혔다.

올해 4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총 26명의 회장단이 구성되었다. 이에 신임회장단 소개 및 상견례 자리도 마련됐다. 박동희 신임 부회장은 “한인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모두 잘살 수 있도록 기지를 모으자”며 한인회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한인회는 한인회 초기부터 임원으로 재임했던 김재유 전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전수석부회장은 “현재



승은호 회장(오른쪽)이 김재유 전수석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수석부회장으로 재임했던 김재유 전수석부회장은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인사회의 위상 높아졌고 주재국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오늘 모임에 많은 이사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참여로 교민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줬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인회 이사회는 맑게 갠 화창한 하늘 아래서 치러진 골프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했다.

한인회, 이사회 골프대회로 친선 도모

한인회 이사회는 지난 7월 21일 이사회 총회전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했다.

골프대회는 총 45여명이 참석, 10개조로 나뉘어 12시 30분 세미샷건 방식으로 시작해 맑은 하늘 아래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날 골프대회의 영예의 우승은 김상태 이사가 4언더파(80/핸디12)로 영예를 안았다. 이세호 부회장은 2언더파로 메달리스트 프로피를 거머쥐었다.

퍼스트리너엔 강호성, 세컨드리너 김두련, 롱기스트 이민재, 니어리스트 이준하 그리고 배상경 자문위원이 럭키프라이즈 상을 받았다.

한편 골프시상식과 동시에 행운권 추첨과 잠깐의 여흥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친목의 시간을 만들었다.

골프대회에서 우수한 김상태 이사(위 사진 왼쪽)와 메달리스트 영예를 안은 이세호 부회장(아래 사진 왼쪽)





코참, 조찬간담회 재개

- 매 간담회에 인니 각계 실력자 초빙해 유대관계 힘쓸 것

올해 대대적으로 개편된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이하 코참)는 지난 7월 20일 약 30여 상공인들을 초청해 조찬간담회를 갖고 코참 활성화의 시작을 알렸다.

승은호 한인회장은 현지와의 조화를 위해 현지의 경제, 문화, 관습 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전하며 조찬간담회가 지속되기를 바랐다.

첫 강사로 나온 최창식 코참 부회장은 세계 및 인니경제 동향에 대한 기조 발표를 통해 ‘현장으로 가라, 시나리오를 준비하라, 항상 전략을 준비하라’며 미래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외부연사로 초빙된 인도네시아경총(APINDO)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 최근 전기세 인상 제한을 위한 경총과 경제단체들의 노력과 노동법 개정안건(아웃소싱, 해고금액 제한,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자제, 해고정리 단순화) 추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며 경총 및 국제상공회의소, 코참 등이 정부에 건의해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전했다. 또한 그는 타 외국기업들처럼 많은 한국기업들이 경총회원에 가입하면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의 김남규 상무관은 코참과 코트라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무역투자장벽보고서 작성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의 무역 및 투자환경의 애로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요청했다.

한편 코참은 매 경제간담회 마다 정부요직관료 및 인니 각계 실력자를 초빙해 현장의 소리와 유대관계 유지를 힘쓸 것임을 밝히고 동남아한상대회(8월 19일~21일), 국제노사관계협회대회(IRA, 9월20일~23일)에 많은 기업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참 연락처: 김육찬 사무총장(0816-180-1073), 이주한 사무차장(0811-821-577), 남지화 간사 (0812-826-6485)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은 KOTRA와 공동으로 한국기업의 무역 및 투자환경의 애로사항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아래 설문지를 작성하여 상공회의소로 보내 주시면 애로사항 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문지 작성요령을 참고하시어 되도록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 kocham@cbn.net.id / 팩스: 021-5296-0586

담당: 남지화 (전화 : 021 -527-7539)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
|-----------------|--|
| 건명 | |
| 분류 | [] 노동/노사관계 [] 금융분야 [] 조세제도 [] 투자허가 [] 지적재산권 [] 통관/관세 [] 생활환경 [] 기타_____ |
| 현황/ 문제점 | |
| 개선요망 | |
|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 |
| 비고 | |

설문지 작성 요령 :

1. 건명 : 서술하시려는 애로사항의 제목입니다. 아래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 1) 노동/노사관계 분야의 경우
 -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 비정규직 사용허가 분야 완화 등
 - 2) 금융 분야의 경우
 - 금융실명 확인절차의 개선
 - 중소기업 대출 비율 규제의 철폐 등
 - 3) 조세제도 분야의 경우
 - 부가세 환급에 관하여 등
 - 4) 지적재산권분야의 경우
 - 특허출원 절차의 개선
 - 모조품의 규제, 단속강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제고 등
 - 5) 생활환경 분야의 경우
 - 생활환경 개선
 - 쇼핑카트의 위생관리 등
2. 현황 문제점은 되도록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선 요망은 문제점의 개선 방향에 대한 귀하의 제안을 적어 주십시오.
4. 본 애로사항의 관련 기관이나 법령을 아시면 적어 주십시오.(공란도 무관)
5. 기타 사항이 있으시면 비고란에 작성해 주십시오.
6. 작성자의 회사 정보,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해 주십시오.

□ 작성자 정보

| | | | | |
|-------|------|------|------|--|
| 회사정보 | 회사명 | (국문) | | |
| | | (영문) | | |
| | 대표자명 | | | |
| | 주소 | | |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홈페이지 | | | |
| 작성자정보 | 사업분야 | | | |
| | 성명 | | 전화번호 | |
| | 핸드폰 | | 이메일 | |



한-인니 주조센터 개소 이후, 7월 7일부터 3일동안 컴퓨터를 이용한 주조설계기술 이론 및 실습 교육 워크샵이 25개 현지 주조기업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우수한 한국주조기술 인니에 보급한다

‘한-인니 주조센터’ 개소, 한국기술의 확산메카로 기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KITECH, 원장 나경환)과 인도네시아대학교(이하 UI, 총장 Gumilar), 인도네시아 산업부(장관 MS Hydayat) 3자는 지난 7월 6일 Depok시 소재 UI 내에 ‘한국-인도네시아 주조센터’(KICC : Korea-Indonesia Casting Center) 를 개소하고, 주조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인도네시아 기술협력센터(KITC : 소장 김평순)는 지난 2006년 2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인도네시아 산업부간 협약에 따라 설립된 한-인니 간 기술협력 전담기관으로, 설립 이후 KITC 에서는 양국간 다양한 기술협력 및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KITECH과 인니 산업부, UI 3자간에는 그간 주조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공동연구, 기술지원, 세미나, 워크샵, 전시회, 한국연수, 전문가교류 등 각종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왔으며, 금년 3월에는 3자간 ‘한국-인도네시아 주조센터(KI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MOU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개소식은 상기와 같은 협력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한 주조기술을 인도네시아 현지 및 인근 동남아 지역에 보급, 확산시키기 위한 시발점이자 주조분야 기술지원, 교육, 기술개발,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력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거행되었다. KICC 는 향후 인도네시아 대학교 공대 금속공학부 건물에 위치하게 되며, 주조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퓨터 Lab.과 강의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공학연구동 신축완공에 따라 새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날 KICC 개소 및 세미나 행사에는 한국측에서 KITECH 권혁천 부원장 및 한국 주조설계기술 업체 등이 참석하였고, 인



도네시아 측에서는 인도네시아 산업부 안사리 차관 및 데디 연구개발청장, UI 아니스 부총장 및 밤방 공대학장 등이 대거 참석하였고, 이외에도 인니 기계금속연구소, 인니 주조협회, 주조 전문가 협회, 각 회원사 및 관련 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출범하는 KICC 의 앞날을 축하했다.

UI 아니스 부총장은 ‘기계소재산업의 근간으로서 주조산업의 필요성과 KITECH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했고 KITECH 권혁천 부원장은 ‘뿌리산업으로서의 주조기술의 중요성과 그간 국가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향후 웹기반 하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역설했다. 한편, 인니 산업부 안사리 차관은 KITECH의 지원과 협력에 대하여 감사의 말과 함께 KICC의 발전을 통하여 향후 주조기술 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분야에서 양국 기술협력력이 보다 공고해 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10월 더욱 커진 '한-인니 주간' 개최된다

- 문화 외 다채로운 경제협력, 국제교류 행사
통해 국가브랜드 업그레이드



한인회, 대사관과의 합동회의. 뒤쪽 왼쪽부터 국가브랜드위원회 송정수 박사, 김근태 전문위원, 이동철 사무관.

오는 10월 11일부터 일주일간 자카르타 곳곳에서 한-인니간 각개 분야 교류증진을 위한 '한-인니 주간'이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달리 본국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주최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열흘에 걸쳐 문화 양국간의 문화교류에 집중했던 '한-인니 문화주간(주최: 대사관)'의 연장이 되는 이번 행사는 문화행사 외 경제협력 및 국제교류 행사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 지난해보다 월등히 커진 규모로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총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지난 6월 16일 국가브랜드위원회 소속 3인은 대사관 및 한인회 임원진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금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가 두번째 행사국이 된 것에 대해 위원회의 이동철 사무관은 '인니가 G20 국가 중 중요 아세안 국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송정수 박사는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되고 문화부, 노동부, 교육부, 지경부, 농림부, 방통위, 코이카 등 정부 각 부처가 한국국가브랜드 격상을 위해 전문적인 행사를 개최하지만 현재 기획 및 취합 단계'라며 현지사정에 능통한 교민들이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송창근 한인회 부회장은 국가브랜드 격상을 위한 리스트를 뽑아볼 때 '한국문화원 설립'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면서 문화원의 역할에 주목해 주길 제안했다.

신기업 수석부회장은 교민 2세대 및 1.5세대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교민자녀 교육환경 증진과 현지에 붙고 있는 한국학 관심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또한 다소 피동적인 입장에 섰던 지난해 행사에서 탈피해 교민사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견을 내었다.

개소식 이후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UI, KITECH, 인니 주조 전문가 협회 등에서 주조제품의 용해성능 향상, 3차원 주조설계 기술, 미래 유망산업으로서의 주조설계 기술 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한국형 3차원 주조설계기술 전문가로서 금번 KICC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KITECH 황호영 박사는 KICC가 현지에서 보다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 당분간 로컬 기업 및 기관 등을 중심으로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국 진출업체 및 진출희망업체 등으로 점차 사업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 KICC 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주조설계기술 이론 및 실습(3차원 모델링 기술교육, 3차원 주조방안 설계기술교육 등) 교육 워크샵이 25개 현지 주조기업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번 개소한 한국-인도네시아 주조센터(KICC)는 그간 수년간 기록된 한국-인도네시아 3개 기관간 노력의 산물로서, UI에서 대학 내에 공간과 운영인력 제공, 인니 산업부에서 장비 및 운영비 지원, KITECH에서 기술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이상적인 다자간 역할분담체제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인도네시아 주조협회 및 회원사, 관련 기업, 한국 진출기업 및 교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관련기술 보급, 단·중·장기 기술교육 및 기술인력 양성, 실무 및 현장으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모범적인 한국기술의 확산메카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를 주관한 KITC 김평순 소장은 전했다.

문의처 : KITC 김평순 소장
021) 526-6801 / psoon@kitech.re.kr



대한민국 대검찰청, 인니 마약퇴치 적극 나선다

대한민국 대검찰청,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BNN)와 마약퇴치 발대식 개최 및 국제협력사무소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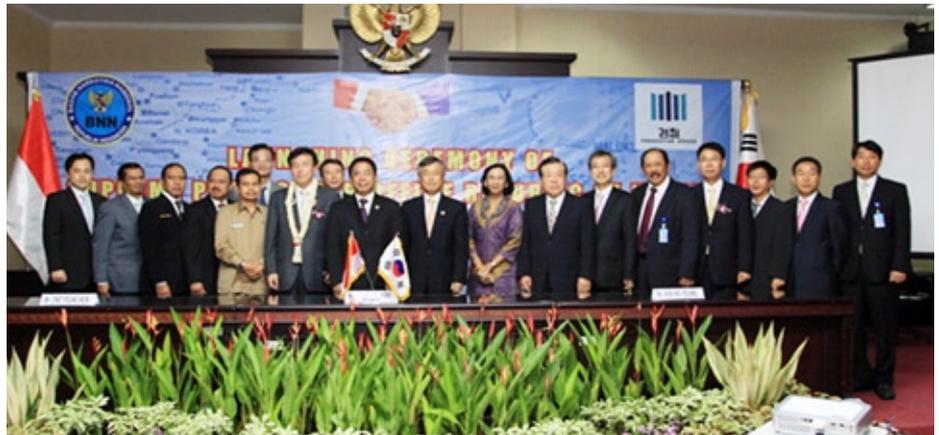
지난 2010년 6월 25일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BNN)에서는 한-인니 공동주관 마약퇴치 발대식 및 국제협력연락사무소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위원회(BNN)내에 아세안 프로젝트 마약퇴치국제협력사무소(LOICOG)를 설치하고, 대한민국 마약수사전문가 2명(검찰수사관 이승재, 이익노)을 파견하였다.

파견단은 약 1년의 기간동안 현지 실정에 맞는 마약수사 지원방안을 개발하는 한편 최신 마약수사기법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07년부터 아세안사무국으로부터 특별협력기금을 지원받아 양귀비 대규모 재배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라오스·미얀마·태국) 및 주변국가의 마약통제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젝트 시행 첫 해에 라오스를 시작으로 2008년 캄보디아와 베트남, 2009년 필리핀에서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강력부장(조영곤 검사장)은 ‘아세안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주도적, 선도적으로 마약퇴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호영 대사를 비롯하여 승은호 한인회장, 최성호 코이카 소장, 고리스 국가마약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발대식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김경국



김상태



김종현



양태화



정용완



조호신

한인회, 신임 이사 6인 선임, 청년층 적극 동참

8월 1일 승은호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은 김상태, 김종현, 양태화, 정용완, 조호신(이하 5명) 씨를 신임 한인회 이사로 선임했다.

한인사회 젊은 경제인들을 대폭적으로 이사진으로 새로 선임하게 된 배경은 최근 들어 직종이 다양해지고 젊은 층이 두터워 지고 있는 한인사회의 변화에 맞게 한인회를 정비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선임된 신임이사들은 한인사회의 대표-대변단체인 한인회 임원으로서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수고하게 된다.

신임 이사 명단

| 성명 | 회사명 |
|-----|----------------------|
| 김경국 | PT. NES |
| 김상태 | SMS GROUP |
| 김종현 | PT. KOIN BUMI |
| 양태화 | PT. BOSUNG INDONESIA |
| 정용완 | PT. HUNG-A INDONESIA |
| 조호신 | PT. SONERGY |

지난해 뼈당강진 구호성금, 보건소와 이슬람사원으로 모습 드러내

지난해 한인회는 강진 발생 후 약 두 달여에 걸쳐 구호성금 모금을 전개하고 10월 28일 성금 7억여 루피아를 이르만 구스만 인도네시아지역대표협회의 의장을 방문하고 전달했었다.

전달된 구호성금은 지난 7월 25일 피해지역인 아잠군 서부 말라락 지역의 조롱홀루반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와 서부 뽀씨시르군 시아야름뿌 지역의 ‘이슬람사원’ 이 준공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냈다.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및 인니지역대표협의회의 재난대책본부 태스크포스 팀을 진두지휘한 함다니 국회의원 및 파우지 바하르 뼈당시장 그리고 한인회 대표로 김재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친한파이기도한 함다니 의원은 지진피해지역 재건사업에 큰 도움을 준 한인사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보건소와 이슬람 사원은 양국 사이의 친교의 상징으로 오래토록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혼증명서를 들고 있는 젊은 부부(왼쪽)와 기뻐하는 현지인 부부들

땅그랑한인회, 현지인 57쌍 합동결혼식 열어



올해 2월 땅그랑, 반펜주 교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창립되어 지역사회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 진정한 친교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땅그랑한인회(회장 이세호)는 지난 7월 29일

땅그랑 시에 위치한 알-아잠 사원에서 가정형편 이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현지인 동거부부 57쌍의 합동결혼식을 열고 기쁨을 함께 했다. 땅그랑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코린도, LG, 삼성, 한국세라믹, 하이론 등 많은 한인 기업들이 합동결혼식에 필요한 결혼반지 및 절차비용을 전액 후원했다.

전통 브파위 예식으로 치러진 합동결혼식엔 부부들의 어린 자녀들과 친지들을 비롯해 김호영 대사, 아리프 땅그랑 부시장, 이세호 땅그랑한인회장 및 교민들이 참석해 진심

어린 축하를 했다.

일반적으로 수 주일이 걸리는 정식결혼 서류기간이 땅그랑한인회의 특별 요청으로 하루 만에 이뤄졌고 이날 즉석에서 결혼증명서를 받게 된 부부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두 자녀를 두고 있고 현재 임신중인 한 부인은 땅그랑한인회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이세호 땅그랑한인회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땅그랑 지역 현지인들을 자주 보게 되어 한인회에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땅그랑한인회에서 정기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할례행사 및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쌓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지역신문사인 세틀라이트 뉴스의 후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며 언론사와의 상호신뢰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다”고 전했다.

지역신문인 Satellit News 1면을 장식한 합동결혼식 소식(왼쪽)과 금번 행사를 주최한 땅그랑한인회 회원들



동부자바 소식

6, 7월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 였습니다.

6월23일부터 7월5일까지는 아세안 10개국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어 한국 팀으로는 2009-2010년 시즌 우승팀 KT & G 팀이 참가해 아쉽게도 9위를 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북한 팀 19명이 참가를 하였으며, 이에 자카르타 북한대사관을 비롯해 수라바야 거주 북한 사람들이 매 경기마다 응원을 나와 신경이 무척 곤두섰습니다.

여자배구 선수권 대회가 끝난 후 7월7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비롯해 12개국이 참가하는 아시아 피시픽 리틀야구 선수권 대회가 수라바야에서 개최되어 3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라바야 시에서 주최하는 국제문화교류행사인 2010년 Cross Culture Festival에 한국을 포함한 8개국 자매결연 도시와 인도네시아 12개시가 참석 해 7월16일부터 25일까지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12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명실 공히 국제 문화행사로 발돋움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라바야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광역시 부산시립국악 관현악단 유경조 악장 및 단원 16명이 참석 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07년부터 매년 15명에서 50여명까지 부산시립국악 무용단 혹은 부산시립국악 관현악단을 파견하여 한국 전통 음악과 무용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양 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 한인회는 특별히 부산광역시장과 수라바야 시장의 협조로 PT. CJ Indonesia(21일)과 PT. Miwon Indonesia(22일)에서 동부자바 주에 진출한 한인기업체에 종사하는 한국인과 현지인, 주변 주민들 대상으로 공연을 가졌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내부터는 한인기업체 대상을 넓혀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24일 각 도시 및 동자바주 정부, 경찰청, 이민국, 투자청 등 주요인사 및 수라바야 시민 4천명이 넘는 관객들이 수라바야 시청 광장 야외무대에 모인 가운데 1시간이 넘는 화려한 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행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부산광역시 시장님, 부산문화회관 최성달 관장님, 수라바야시 시장님, 관광청장, 국제협력국장의 관계 공무원, 수라바야 공항 이민국, 세관, CX 항공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PT.CJ Indonesia Pasuran 공장 임승호 공장장, PT.Miwon Gresik 공장 임덕진 공장장 및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부자바한인회 제65주년 광복절 행사 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솟는 물가 속에 교민 여러분들의 영위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제65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전 교민 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조국이 해방된 감격의 그 날을 기리며, 또한 올해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을 수라바야에 건립한 뜻 깊은 해입니다.

이에, 저희 2세들에게 광복절의 의미와 조국애를 심어줄 때이며, 또 전 교민 체육대회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누적된 피로를 풀고 이웃과 가족의 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행사 당일에는 개별적으로 골프게임을 지양하여 주시고, 전 교민이 동참하여 뜻 깊은 하루가 되며,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한 후원금 및 상품을 후원을 받고 있으니,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 : 제65주년 광복절 기념행사 및 전 교민 체육대회.

일시 : 2010년 8월 17일(화요일) 10:00 부터 17:00까지.

장소 : 수라바야 국제학교(SIS) 실내체육관.

홍팀 : 제일제당,콜트약기,이원,그레식,다르모,그라하,부킷마스,다르모센토사, 메이젠송꼬노,두꾸꾸뽕,수꼬마농갈, 기타 백팀에 편성되지 않은 전지역.

백팀 : 미원,한사프라타마,리라약기,시도아르조,와루,모조꺼르토,뽀단안,뜨레터스,찌뜨라, 빠꾸원,인터내셔널 빌리지,위웅,꾸띠사리,구농사리,저무사리,꺼르따자야.

경기종목 : 전년과 유사 종목.

공지사항 :

- (1) 모든 경기는 실내체육관에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됨.
- (2) 참석자 전원 중식을 한인회에서 한인식당 협조를 받아 제공을 함.
- (3) 광복절 기념식을 위하여 09시45분까지 실내체육관에 도착하시기 바람.
- (4) 홍팀은 붉은색 티셔츠, 백팀은 흰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오시기 바람.

제5차 동남아 한상대회 개최 안내

동남아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동남아 한상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0년 8월 20일(금) ~ 8월 21일(토)

장소 : 말레이시아 건뎡 하일랜드

주최 : 동남아 한상연합회

후원 : 재외동포재단

참석대상 :

인도네시아를 비롯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시는 모든 사업주.

접수 및 문의처 :

동남아한상연합회 사무국(인니코참사무국)

전화 : (62-21) 527-7539

팩스 : (62-21) 5296-0586

이메일 : kocham@cbn.net.id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l. Jend.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컨설팅, M&A, 부동산, 저작권, 자원개발, 채권회수, 파산관재인,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인(한인회 자문변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문제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KOREAN AIR

여름성수기, 여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대한항공에서 서울행 추가편을 운항하며, 특히 9월 르바란 기간에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운항일을 변경 운영합니다. 변함 없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이 앞으로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운항 시간표]

추가운항편

| 편명 | 운항일 | 운항기간 | | 출발 | | 도착 | |
|-------|-----|-----------|-----------|------|-------|------|---------|
| | | From | To | | | | |
| KE626 | 화금토 | 2010.6.8 | 2010.8.31 | 자카르타 | 23:59 | 서울 | 08:54*1 |
| | 수토일 | 2010.9.4 | 2010.9.5 | | 00:25 | | 09:35*1 |
| | 르바란 | 2010.9.7 | 2010.9.9 | | | | |
| | 르바란 | 2010.9.18 | 2010.9.20 | | | | |
| | 수토일 | 2010.9.22 | 2010.9.26 | | | | |
| KE625 | 화금토 | 2010.6.8 | 2010.8.31 | 서울 | 17:40 | 자카르타 | 22:25 |
| | 화금토 | 2010.9.4 | 2010.9.5 | | 18:00 | | 23:00 |
| | 르바란 | 2010.9.6 | 2010.9.8 | | | | |
| | 르바란 | 2010.9.17 | 2010.9.19 | | | | |
| | 화금토 | 2010.9.21 | 2010.9.25 | | | | |

기존운항편 : 스케줄 변동 없음

| 편명 | 운항일 | 운항기간 | | 출발 | | 도착 | |
|-------|-----|-----------|------------|------|-------|------|---------|
| | | From | To | | | | |
| KE628 | 매일 | 2010.3.28 | 2010.10.30 | 자카르타 | 22:05 | 서울 | 07:05*1 |
| KE627 | 매일 | 2010.3.28 | 2010.10.30 | 서울 | 15:45 | 자카르타 | 20:35 |

제5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열린강좌

인도네시아, 굴곡의 현대사 수카르노 시대

- 주제; 독립 후의 수카르노와 영부인 (1945~1965)
- 강사: 한인뉴스 논설위원 김문환 칼럼리스트
- 진행; 강의, 질문, 다과
- 대상: 인니문화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
- 일시; 2010. 8. 21. (토) 10.00~12.30
- 장소; 한인회문화회관(도서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때 인도네시아는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설 것입니다. 한인회인니문화연구회는 이러한 나눔과 공존을 향해 열린 교민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린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알차고 뜨겁게 전개되는 굴곡의 인니현대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교민사회의 거대한 문화의 줄기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성취도는 세상으로 나가 이바지해도 좋다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영주권자(장기체류자격) 입영제도 안내

외국의 영주권(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이 자진하여 입영하는 경우 별도의 군적응프로그램에 의한 교육 및 인센티브 부여로 활기찬 병영생활과 보람된 병역이행이 되도록 병무청과 軍이 함께 지원합니다.

○ 인센티브 부여

-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입영전까지 언제나 입영신청 취소 가능)
- 일반병사보다 1주전부터 <군 적응프로그램> 이수 후 정상 교육훈련 시작<군 적응프로그램>-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
- 특성·능력이 맞는 보직부여와 부대 배치
-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연1회 국외여행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및 국내여비 지급(전역시 편도 항공료 지급)
-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인 자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시 연1회에 한하여 항공료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접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병무청홈페이지 ⇒ [국외여행, 국외체제 민원신청] ⇒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 ⇒ 주민등록번호, 이름 입력 ⇒ 입영일자 및 징병검사일자 선택

제출서류: 영주권 사본

※ '10년도 영주권자 입영일자
(육군훈련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10. 3.8.(월), '10. 5.10.(월), '10. 8.09.(월), '10.10.11.(월)

☎ 문의: 병무민원상담소 (82) 1588-9090,
서울지방병무청 (82-2) 820-4331~5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목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공항만 국경통제관리시스템 구축 시행

이민청은 국제공항만에 십지문 채취 및 안면사진촬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을 구축하여 2010.3.27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출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경통제관리(BCM-Border Control Management)시스템이란?

-출입국자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국 심사시 여권 스캔,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 자동 출입국규제자 조회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 기존에 없던 십지문 채취 및 안면 사진 촬영에 따른 출입국심사 지연이 예상됨.

2. 적용대상

- 출국 및 입국하는 모든 자국민 및 외국인
- 단, 14세 미만 미성년자, 외교 또는 관용여권 소지 외국인, KITAS 또는 KITAP 소지 외국인, BCM 시스템 등록 외국인(수시 출입국자는 최초 1회만 실시)

3. 시행일자

- ADI SOEMARMO 공항(SOLO 소재) : 2010. 03. 09
- ADI SUCIPTO 공항(JOGJAKARTA) : 2010. 03. 11
- SOEKARNO HATTA 공항 : 2010.03.27

※ 금년 중으로 27개 출입국공항만에 구축 예정

4. 따라서, 당분간 출입국심사 지연에 따른 불편이 예상되나, 동 시스템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국의 안전 및 이익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음을 감안, 교민 여러분께서는 출입국심사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19주년 행사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코자
감사 특별할인 및 사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행사기간 : 2010년 8월 1일 ~ 8월 30일까지

S아시아진주 Asia pearls

20여년간 진주양식 직영을
바탕으로 최상의품질을
정직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아시아 진주가 되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결제 및 배달가능)
정품다이아(GIA 감정서 첨부) 판매 - 90% 환매 보장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결혼 예물셋트(다이아,진주)
출장 상담 및 공급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City Walk Lt.1 No.28
Jl.Darmawansa VI&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본점(수출/무역)

HP: 0816-876-176
HP: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사 등 100여사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인미술협회 신입회원 모집

재인도네시아 한인미술협회(회장 인치혁)이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교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기간 : 수시

회원자격 : 미술 전공자 또는 전시 경력자

연락처 : 김영민 (0818-916-566)

김수영 (0858-8543-6348)

재인도네시아아 한인미술협회

대사관 임시청사

- 업무시작일 : 2010.7.26(월) 08:30부터
- 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30층)
Jl.H.M. Thamrin Kav.28-30, Jakarta Pusat 10350
- 대표전화 : (021) 2992-2500
- 대표팩스 : (021) 2992-3131
- 영사과 직통전화 : (021) 2992-3030
- 영사과 직통팩스 : (021) 2992-1700
- 당직직원 휴대전화 : 0811-852-446 (중전과 동일)

● 주요기관

| | | |
|----------------|------|------|
| 한국대사관 | 2992 | 2500 |
| 영사과 | 2992 | 3030 |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574 | 1522 |
| 한국국제협력단 | 522 | 7771 |
| 코리아센터빌딩 | 525 | 6525 |

● 긴급전화

| | |
|----------------|--------------------|
|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 110 |
| 구급차 | 118,119 |
| 전기고장 및 문의 | 123 |
| 전화고장 및 문의 | 147 |
| 화재 | 113 |
| 수도고장및문의 | 5798 6555/577 2010 |
| 열차시간 문의 | 121 |

● 한인단체

| | | |
|--------------------|------|------------|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 521 | 2515 |
| 땅그랑 한인회 | 5532 | 5555 |
| 반동 한인회 | 022 | 200 6880 |
| 발리 한인회 | 0361 | 286 248 |
| 버카시 한인회(총무) | 0811 | 847 556 |
| 보고르 한인회 | 7782 | 8886 |
| 수라바야 한인회 | 031 | 568 8690~1 |
| 수까부미 한인회 | 0266 | 736 441 |
| 스마랑 한인회 | 0298 | 522 296 |
| 메단 한인회 | 061 | 453 8669 |
| 족자 한인회 | 0274 | 376 741 |
| 바뎀 한인회 | 0778 | 392 014 |
| 보고르 한인회 | 7782 | 886 |
| 빨렘방 한인회 | | |
| 한국 부인회 | 526 | 0878 |
| 한국국제부인회 | 0817 | 110 234 |
|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 0812 | 807 8607 |

● 교민 잡지

| | | |
|------|------|------|
| 한인뉴스 | 521 | 2515 |
| 교민세계 | 739 | 9025 |
| 벼룩시장 | 8983 | 1908 |
| 한울 | 452 | 5655 |
| 여명 | 9955 | 5859 |

● 교육기관

| | | |
|--------|-----|---------|
| 한국국제학교 | 844 | 4958~61 |
| JIS | 750 | 3640 |
| NJIS | 450 | 7660 |
| BIS | 745 | 1667 |

| | | |
|--------|-----|------|
| 간디국제학교 | 690 | 9902 |
| JIMS | 744 | 4864 |

● 유치원

| | | |
|--------------|------|------|
| 사랑 | 835 | 1540 |
| 성모 | 7884 | 2467 |
| 하나 | 844 | 5283 |
|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 723 | 0807 |
| (골라빠가딩) | 471 | 8047 |
| (땅그랑) | 558 | 7227 |

● 은행

| | | |
|--------|-----|------|
| 수출입 은행 | 525 | 7261 |
| 외환 은행 | 574 | 1030 |
| 우리 은행 | 515 | 1919 |
| 하나 은행 | 522 | 0120 |

● 종교 단체

| | | |
|-------------|------|------|
| 기독교 | | |
| 꿈이 있는 교회 | 548 | 3044 |
| 늘푸른 교회 | 766 | 9191 |
| 동부 교회 | 4584 | 3458 |
| 연합 교회 | 720 | 5979 |
| 소망 교회 | 739 | 6487 |
| 순복음 교회 | 739 | 2373 |
| 안디옥 교회 | 765 | 3077 |
| 열린 교회 | 844 | 5537 |
| 위자야 한인교회 | 7279 | 3145 |
|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 420 | 9134 |
| 주님의 교회 | 831 | 3843 |
| 한마음 교회 | 739 | 5035 |
| 한인 성요셉 성당 | 7884 | 3782 |
| (찌까랑 공소) | 8911 | 7547 |

● 불교

| | | |
|---------------|------|---------|
| 조계종 능인정사 | 724 | 7261 |
|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 729 | 0211 |
| (동부자바포교원) | 0818 | 333 491 |
| 법연중 법연원 | 720 | 8607 |
| 조계종 고려정사 | 724 | 3571 |

● 이슬람

| | | |
|------------|-----|------|
|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 871 | 6906 |
|------------|-----|------|

● 가구

| | | |
|---------|-----|---------------|
| 조지언 퍼니처 | 750 | 6109,766 0364 |
|---------|-----|---------------|

자신을 더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Since 1994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현분 현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謙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 변호사 이소왕 배상 -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el: 4587 8833 Fax: 4586 5645
HP: 0812 967 8131
Email: rodem_tours@cbn.net.id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 **건강식품/건강원**

| | | |
|------------------|-----------|------|
|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 520 | 7662 |
| 경동 건강원 | 7028 | 4262 |
| 고려 건강원 | 081 690 | 3990 |
| 부아메라 | 0816 1854 | 580 |
| 한국 건강원 | 5579 | 6411 |
| 황소 건강원 | 5576 | 7628 |
| 진영 삼봉나와 | 8234 | 565 |
| 솔진생 코리아 | 7278 | 8287 |
| 클로렐라 | 470 | 4280 |
| 이름 황성주 생식 | 5296 | 1522 |

● **국제전화 서비스**

| | | |
|-------------|------|------|
| 글로벌링 | 725 | 1606 |
| 넥스텔링크 | 525 | 3187 |
| 데이콤 | 720 | 7551 |
| 킹폰 | 574 | 0888 |
| 현대 텔레콤 | 5579 | 1226 |
| Hallo Phone | 5290 | 0233 |

● **꽃/화환**

| | | |
|--------|----------|------|
| 꽃과 좋은날 | 0816 142 | 5099 |
| 난 이야기 | 0812 913 | 1355 |
| 에셀 꽃집 | 0816 733 | 810 |

● **노래방**

| | | |
|-----------------|------|------|
| 팡팡노래방 & 치킨 | 720 | 7275 |
| Beat Box(골라빠가딩) | 9773 | 4780 |

● **렌트카/기사클럽**

| | | |
|----------|----------|------|
| 강남 렌트카 | 081 2109 | 7631 |
| 서울 렌트카 | 6870 | 9335 |
| 우리 렌트카 | 081 119 | 3069 |
| 한성 렌트카 | 889 | 0471 |
| 짱구 기사 클럽 | 7279 | 8233 |

● **미용실/피부관리**

| | | |
|--------------|------|--------|
| 갤러리 J | 725 | 2856 |
| 국제 미용원 | 739 | 6129 |
| 뷰티 # | 520 | 4428 |
| 스칼렛미용실,피부관리실 | 547 | 5867 |
| 아마란스 화장품 | 723 | 1537 |
| JR SALON | 7279 | 7906 |
| 퀵덤 | 7279 | 2067~8 |
| Hair Perm | 7280 | 1404 |

● **변호사 사무소**

| | | |
|----------------|-----|------|
| 이승민 법률사무소 | 525 | 5959 |
| 법무법인 P.Y.L | 527 | 2422 |
| P.A.K. 변호사 사무실 | 797 | 6254 |
|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 520 | 7153 |

● **부동산**

| | | |
|------------|------|------|
| 그린 부동산 | 726 | 4949 |
| 2005뉴 밀레니움 | 7082 | 0056 |
| 리츠 부동산 | 6896 | 7249 |

● **인테리어**

| | | |
|---------------|------|------|
| LIVING A & I | 7278 | 0704 |
| 로만 인테리어 | 720 | 4851 |
| KEMBAR REJEKI | 527 | 2245 |

● **방송사**

| | | |
|-----------------|-----|------|
| K-TV | 525 | 2922 |
| OKTN(KBS World) | 797 | 6151 |
| KABLE VISION | 527 | 8811 |
| INDOVISION | 581 | 9988 |

● **병원**

| | | |
|-----------------------|------|------|
| 관준 한의원 | 722 | 7745 |
| 길명근 한의원 | 722 | 4646 |
| 뉴 월드 메디칼 | 7279 | 3809 |
| 대한 치과 | 721 | 1850 |
|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 7280 | 1819 |
| 실로암 한의원 | 720 | 1779 |
| 서울 메디칼 크리닉 | 799 | 1333 |
| 솔 한의원 | 7278 | 7410 |
| 신농씨 한방병원 | 7278 | 0563 |
| 아름다운 병원 | 720 | 7628 |
| 한국병원 | 720 | 7727 |
| R.S. BUNDA | 322 | 0005 |
| R.S. GRAHA MEDIKA | 530 | 0887 |
| RS. MEDISTRA | 521 | 0200 |
| R.S. M.M.C | 522 | 5201 |
| R.S. PONDOK INDAH | 765 | 7525 |
| R.S. Siloam(땅그랑) | 546 | 0055 |
| R.S. Siloam(찌까랑) | 8990 | 1911 |

● **비디오**

| | | |
|----------|-----|-------|
| 비디오 서울 | 723 | 2088 |
| 한양 비디오 | 450 | 4364 |
| K-마트 비디오 | 688 | 22040 |

● **사진관**

| | | |
|-------------|-----|------|
| ELGA 포토스튜디오 | 521 | 0862 |
|-------------|-----|------|

● **슈퍼마켓**

| | | |
|-------------|------|------|
| 뉴서울슈퍼 | 725 | 0520 |
| 뉴부산슈퍼(땅그랑) | 5940 | 0375 |
| 만나슈퍼(버까시) | 821 | 8705 |
| 무궁화슈퍼 | 722 | 2214 |
| 무궁화(땅그랑) | 558 | 2214 |
| 무궁화(골라빠가딩) | 453 | 3624 |
| 무궁화(찌까랑) | 7075 | 2214 |
| 서울마트(가라와찌) | 546 | 0844 |
| 서울슈퍼(골라빠가딩) | 450 | 4364 |
| 우리슈퍼(버까시) | 8240 | 4575 |
| 월드마트 | 8430 | 2535 |
| 하나마트 | 8459 | 0064 |
| 한일마트 | 723 | 2086 |
| 한일마트(땅그랑) | 5577 | 8633 |
| G-마트(찌부부르) | 8459 | 9858 |
| K-마트 | 725 | 2122 |
| 위자야마트 | 726 | 9049 |

● **식당**

| | | |
|-----------------|------|------|
| 가나 레스토랑 | 252 | 0077 |
| 가야성 | 725 | 7373 |
| 가호(세노파티) | 5289 | 7044 |
| 가호(골라빠가딩) | 2850 | 7600 |
| 강강수월래 | 380 | 5217 |
| 강나루(땅그랑) | 5576 | 8222 |
| 강촌(땅그랑) | 5579 | 3681 |
| 경복궁(찌까랑) | 8990 | 8822 |
| 고려가든(스마랑) (024) | 746 | 4090 |
| 고목(찌까랑) | 897 | 3463 |
| 고인돌 | 452 | 5597 |
| 고주몽 | 7279 | 6709 |
| 국일관 | 822 | 8974 |
| 금수강산(찌까랑) | 8983 | 3282 |
| 기소야 | 574 | 7581 |
| 뉴 코리아타워 | 3193 | 0311 |
| 뉴서울(땅그랑) | 546 | 0845 |
| 다리아 분식 | 722 | 0276 |
| 대감집 | 726 | 4356 |
| 돌아온 김삿갓 | 722 | 2230 |

| | | |
|----------------|-----------|------|
| 동해복집 | 720 | 7464 |
|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 8243 | 4848 |
| 레드토마토 EX몰 | 315 | 1033 |
| 뿐독인다 | 7592 | 0654 |
| 마포 | 7279 | 2479 |
| 만나 | 821 | 5279 |
| 만리장성(땅그랑) | 552 | 1210 |
| 명가면옥(땅그랑) | 552 | 2745 |
| 모나리자(찌까랑) | 8990 | 9570 |
| 물레방아 | 8990 | 6956 |
| 목우촌 | 450 | 4155 |
| 미르(맨하튼 호텔) | 5296 | 1201 |
| 미추홀(선레이크호텔) | 6583 | 1472 |
| 버까시 서울(버까시) | 8895 | 7604 |
| 부산횃집(골라빠가딩) | 4585 | 1156 |
| 산들(땅그랑) | 5579 | 5821 |
| 산타코리아 | 722 | 9921 |
| 산티카 클래식(버까시) | 8459 | 9282 |
| 상록수 | 8983 | 6047 |
| 서동(찌부부르) | 8459 | 9858 |
| 서라벌 | 572 | 3475 |
| 서울가든 | (0361)768 | 323 |
| 서울 일식(땅그랑) | 546 | 0845 |
| 서울 팔레스 | (024) 447 | 414 |
| 소양강(찌까랑) | 897 | 2231 |
| 송가네 삼계탕(골라빠가딩) | 4585 | 4422 |
| 송도(리뽀찌까랑) | 8990 | 1474 |
| 수라청(세노파티) | 527 | 8721 |
| 수라청(골라빠가딩) | 4585 | 1115 |
| 스카이 코리아(공항) | 550 | 9158 |
| 시티서울 | 5289 | 7506 |
| 신도시 | 897 | 3615 |
| 아랑 22 | 7082 | 0601 |
| 아랑갈비 | 8983 | 6047 |
| 아랑/스시 코리아 | 453 | 1679 |
| 아리랑(리뽀찌까랑) | 8990 | 1662 |
| 아리아 분식 | 722 | 0276 |
| 아랑갈비(찌까랑) | 8983 | 6047 |
| 아리랑(찌까랑) | 8990 | 9917 |
| 이스타나 코리아 | 314 | 4501 |
| 어울림 | 551 | 4853 |
| 아마(땅그랑) | 547 | 2722 |
| 어울(땅그랑) | 551 | 4853 |
| 오장동 오스시 | 739 | 6229 |
| 우리들(땅그랑) | 552 | 4047 |
| 울엄마 | 920 | 7244 |
| 원조식당(수까부미) | 4585 | 1156 |
| 원치킨호프(땅그랑) | 5577 | 6770 |
| 2002 레스토랑(땅그랑) | 5940 | 4189 |
| 장터(골라빠가딩) | 4585 | 4302 |
| 종가집 | 8990 | 6956 |
| 주막레스토랑(찌까랑) | 8990 | 0514 |
| 카사블랑카 | 8241 | 4949 |
| 코레아나 | 390 | 4568 |
| 코리안 하우스(찌부부르) | 844 | 4786 |
| 코리안 하우스(반동) | (022) 203 | 1626 |
| 코리안하우스 횃집 | 844 | 5877 |
| 타임(가라와찌) | 5577 | 6324 |
| 태극관 | 822 | 7011 |
| 토담 | 521 | 0230 |
| 토박 | 725 | 1135 |
| 팔레스 | 5296 | 2001 |
| 천지루(찌까랑) | 8990 | 1662 |
| 청기와 | 726 | 1924 |
| 청마루(골라빠가딩) | 452 | 5597 |
| 청해수산 | 739 | 7032 |
| 초가(가라와찌) | 552 | 6043 |
| 춘하추동 | 5940 | 2846 |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 | | |
|-----------------------|-----------|------|
| 팡팡치킨 | 720 | 7275 |
| 하나레스토랑 | 4482 | 0081 |
| 하나마트 식당 | 8459 | 0064 |
| 하나비(리뽀찌까랑) | 8990 | 6230 |
| 하나정(땅그랑) | 5577 | 6457 |
| 하림각 | 551 | 8511 |
| 한강(Wolter Monginsidi) | 7278 | 7802 |
| 한국관 | 720 | 7322 |
| 한민족 | 725 | 2688 |
| 한성관(골라빠가딩) | 453 | 3033 |
| 한솔 | 5290 | 3417 |
| 한양가든 | 521 | 2522 |
| 한양가든(골라빠가딩) | 450 | 2071 |
| 한우리(찌부부르) | 8459 | 2871 |
| 할매손칼국수(골라빠가딩) | 4585 | 3398 |
| 함지박 | 739 | 6958 |
| 향수 | 645 | 2378 |
| 해물촌 | 451 | 3761 |
| 해운대(땅그랑) | 5577 | 8527 |
| 황소가든 | 8240 | 9670 |
| 황소가든 | (0264)313 | 011 |
| Ah Yat 레스토랑 | 5705 | 333 |
| Beat Box(골라빠가딩) | 9773 | 4780 |
| BBQ(골라빠가딩) | 4584 | 7444 |
| Esse MM2100 | 8998 | 1564 |
| Lobster & King Crab | 515 | 5060 |

●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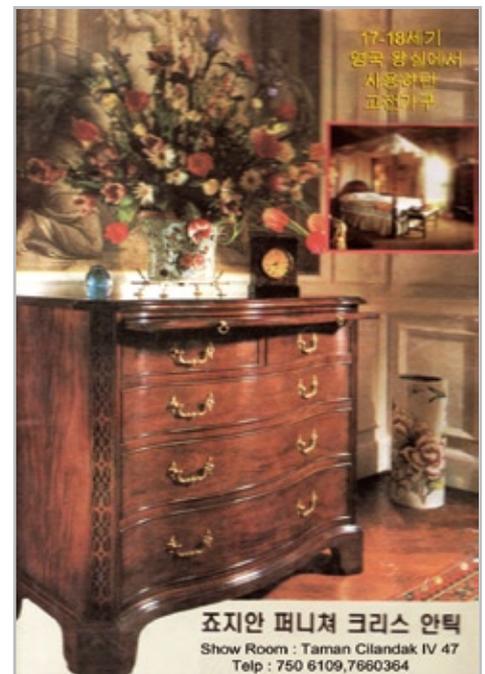
| | | |
|--------------|------|------|
| 동아일보 | 720 | 6802 |
| 데일리 코리아 | 725 | 7447 |
| 조선일보 | 5290 | 7388 |
| 중앙일보 | 7590 | 8308 |
| 한국일보 | 769 | 1081 |
| 한나프레스 | 450 | 9107 |
| 일요신문 | 452 | 5655 |
| 타임 인도네시아 | 5028 | 4996 |
| JAKARTA POST | 530 | 0476 |

● 안경원

| | | |
|--------|------|------|
| 눈사랑안경원 | 9820 | 1493 |
| 시티안경원 | 726 | 5009 |

● 여행사

| | | |
|---------------|------|------|
| 가루다 오리엔트 홀리데이 | 7278 | 0856 |
| 굿데이 투어 | 4586 | 0598 |
| 그린 관광 | 798 | 3322 |
| Red Cap | 5797 | 3397 |
| Rodem Tour | 4587 | 8833 |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ini

Telp. 021-5814690
021-98202086
0812 19285578
0817 113578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Art Style, Baroque, Modern & Minimalist, Italian Empire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ling, Exhibition.



인도네시아가 보이는
리·얼·타·임·뉴·스

데일리코리아는 유료정보입니다.

구독문의

Tel 021-725-7447
HP 0813-1898-9897
dailykoreaindonesia@gmail.com



Senayan · 723 0807
Tangerang · 558 7227
Kelapa Gading · 471 8047

컷 - 머니

MONEY CHANGER

(허가번호 NO.9/49/KEP.GBI/DPM/2007)

100% 환전 송금

- 3시이후 서비스가
- 토 · 일요일 서비스가
- 배달 서비스가

SUDIRMAN PLAZA
Jl. Jend. Sudirman B1
Tel. : (021) 5793-9990. 6840-1
직통 : 0878-8777-0111

| | | |
|-----------------|------|-----------|
| 마타하리 여행사 | 521 | 2212 |
| 부미관광 | 7279 | 0011 |
| 비자여행 Malaysiaro | 603 | 9274 1780 |
| 솔로몬 투어 | 0813 | 1934 1000 |
| 싱가폴투어(비자) | 574 | 2660 |
| 스카이 투어 | 391 | 1381 |
| 153 TOUR | 5720 | 153 |
| 코리아 트래블 | 230 | 3116 |
| 코인 관광 | 720 | 7230 |
| 하나 관광 | 520 | 2450 |
| 호산여행사 | 691 | 3602 |
| HAPPY TOUR | 532 | 7970 |
| Inko Batam(바탐) | 0778 | 462 500 |

• 인터넷

| | | |
|-----------|------|------|
| Net2Cyber | 576 | 3490 |
| S-Net | 7080 | 7886 |
| 넥스텔링크 | 525 | 3187 |

• 인테리어

| | | |
|------------|------|------|
| H2 Stuff | 4586 | 7860 |
| Living A&I | 7278 | 0704 |
| 로만인테리어 | 720 | 4851 |
| 아이니 갤러리 | 581 | 4690 |

• 운송 해운 이삿짐

| | | |
|-------------------|-----------|------|
| 센다이 이주화물 | 719 | 0247 |
| 아네카 트랜스 | 520 | 4181 |
| 트란스 우따마 | 829 | 6218 |
| CARGO PLAZA | 831 | 7779 |
| DHL | 7919 | 6677 |
| FIRSTINDO EXPRESS | 525 | 1628 |
| | 5296-0024 | |
| FNS | 8998 | 2855 |
| HAES IDOLA CARGO | 8591 | 8488 |
| HANINDO EXPRESS | 252 | 5123 |
| KORNET LOGISTICS | 8379 | 3455 |
| QCN | 520 | 4189 |
| Wings Global | 4585 | 8053 |
| ZIMMOAH | 6531 | 1123 |

• 인테리어

| | | |
|--------------|------|------|
| Living A & I | 7278 | 0704 |
| 로만 인테리어 | 720 | 4851 |
| 아이니 갤러리 | 581 | 4690 |

• 자동차 정비소

| | | |
|------------|-----|------|
| 벵켈 코리아 모터스 | 885 | 4034 |
|------------|-----|------|

• 증권/보험

| | | |
|-------------|-----|------|
| 동서 증권 | 526 | 1326 |
| 삼성 화재 | 520 | 5511 |
| 우리코린도 증권 | 797 | 6210 |
| 클레몽 종합금융 | 797 | 6363 |
| 한진코린도 보험 | 797 | 5959 |
| E - TRADING | 574 | 1442 |
| LIG 손해보험 | 391 | 3101 |

• 컨설팅

| | | |
|---------------|------|------|
| 글로벌컨설팅 | 7280 | 0524 |
| 누비라컨설팅(리쁘찌까랑) | 8990 | 0088 |
| 두왕컨설팅 | 520 | 7153 |
| 새천년컨설팅 | 5290 | 0040 |
| 우리컨설팅 | 7918 | 4239 |
| 컨설팅 21 | 799 | 6182 |
| 퓨릭컨설팅 | 5596 | 3213 |
| 한생컨설팅 | 5290 | 0670 |

• 컴퓨터, IT

| | | |
|--------------------|------|------|
| 대인정보시스템 | 230 | 5533 |
| 레드망고(PC방) | 4584 | 4186 |
| 리콤포 컴퓨터 | 725 | 1606 |
| 멀티캡 컴퓨터 | 5579 | 0305 |
| 지텍컴퓨터 | 5696 | 7001 |
| 하나로정보통신 | 9260 | 0950 |
| 한비텔 | 8379 | 1144 |
| www.indoweb.org | | |
| Reading Revolution | 722 | 0833 |

• 택시

| | | |
|-------------|-----|------|
| SILVER BIRD | 798 | 1234 |
| BLUE BIRD | 794 | 1234 |
| CITRA | 781 | 7771 |

• 하숙집

| | | |
|-----------|------|----------|
| 쉘터 하숙 | 726 | 8775 |
| 일박이일 하숙집 | 424 | 0953 |
| 교민 하숙 | 0816 | 163 5558 |
| 미니호텔 뽀독인다 | 0818 | 760 747 |

• 학원/교육업

| | | |
|-------------------|------|-----------|
| 대교 인도네시아 | 5292 | 0911 |
| 다니엘 아카데미 | 722 | 0686 |
| 리앤리 | 725 | 5008 |
|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 546 | 4531 |
| 뮤직 아카데미 | 0815 | 1150 6664 |
| 박학천 논술 | 3342 | 7540 |
| 뽀독 인다 아카데미 | 7590 | 5773 |
| 에쎄드라 아트스쿨(리쁘찌까와찌) | 546 | 4531 |
| 예원 | 720 | 8783 |
| 인재서당 | 739 | 7153 |
| 종로 학원 | 7279 | 1020 |
| 토마토 미술 | 720 | 5194 |
|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 725 | 5757 |
| 하이스트 학원 | 720 | 2022 |
| 해동검도 | 522 | 7204 |
| 해보다 외국어학원 | 0888 | 843 0415 |

• 항공

| | | |
|----------------------|------|----------|
| 대한 항공 (시내) | 521 | 2180 |
| (공항) | 550 | 2389 |
| GARUDA (Call Center) | 2351 | 9999 |
| | 0804 | 1807 807 |
| 싱가폴 항공 | 570 | 4411 |

• 호텔

| | | |
|---------|-----|------|
| 그랜드 멜리아 | 526 | 8080 |
| 만다린 | 314 | 1407 |
| 물리아 | 574 | 7777 |
| 상그릴라 | 570 | 7440 |
| 싸이드 자야 | 570 | 4444 |
| 하야트 | 390 | 1234 |
| 크라운 플라자 | 526 | 8833 |
| 술탄 | 573 | 8011 |

• 환전

| | | |
|-----------|------|-----------|
| 굿-머니 | 5793 | 9990 |
| 그린 환전소 | 0815 | 1423 0114 |
| 플라빠가칭 | 453 | 1166 |
| 사강 머니체인저 | 5290 | 0233 |
| 위나 머니체인저 | 7278 | 0929 |
| 뚜나스 신암 | 797 | 6105 |
| 참피온 머니체인저 | 453 | 0172 |
| 환전 | 712 | 8556 |

● **골프샵**

| | | |
|---------------------|------|--------|
| 교민 프로골프샵 | 5577 | 1006 |
| 따만사리 골프샵 | 546 | 0838 |
| 레네 세계골프 | 739 | 8312 |
| 한양(골라빠가딩) | 450 | 4364 |
| EFC Golf | 725 | 0057 |
| 혼마 플레이골프 | 344 | 2540 |
| MFS 골프 | 725 | 0057 |
| Play Golf | 722 | 9587 |
| 월드 | 552 | 7434 |
| Bridgestone Golf | 7279 | 8123 |
| Love Green Halim | 8778 | 2771~2 |
| Love Green Cikarang | 8990 | 7881 |

● **골프교습**

| | | |
|-------------|------|------|
| Easy Golf | 801 | 2048 |
|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 392 | 178 |
| 골프투어 자카르타 | 7013 | 8166 |
| 심스 골프 | 570 | 3063 |
| 배준원 골프교실 | 781 | 7679 |

● **기타**

| | | | |
|-----------|------|------|------|
| 꽃과 좋은날 | 0811 | 941 | 173 |
| 마음수련 | 722 | 1600 | |
| 바람소주 | 0811 | 85 | 3156 |
| 스폰지 | 7095 | 4771 | |
| 아시아 진주 | 7278 | 8327 | |
| 닥터큐(피부미용) | 5696 | 7090 | |

발리 (지역번호 0361)

● **여행사**

| | | |
|----------------------|-----|------|
| PESONA TAMAN KENCANA | 744 | 1525 |
| PD TOUR | 763 | 845 |
| PENJOR TOUR | 727 | 800 |
| P.B.B | 288 | 999 |
| APA TOUR | 241 | 341 |
| TNB | 773 | 5801 |
| KORUS | 744 | 7200 |
| MARIN TOUR | 224 | 010 |
| VIP TOUR | 762 | 090 |
| SUDINA BALI | 744 | 2121 |
| MATAHARI KORIN | 757 | 474 |
| CAKRAWALA TOUR | 727 | 242 |
| B.J.C TOUR | 284 | 365 |
| M TOUR | 725 | 800 |
| SATYA TOUR | 283 | 305 |
| RED CAP | 754 | 4418 |
| 스피릿투어 | 234 | 825 |
| Varia Tour | 860 | 4977 |
| Korea Travel | 756 | 899 |
| 대한항공지점 | 244 | 988 |

● **식당**

| | | |
|------------------------|--------|--------|
| A One Seoul Garden | 768 | 323 |
| hanil rest | 727 | 250 |
| Seoul Garden | (0362) | 292 20 |
| 청기와 | 287 | 503 |
| 꼬끼레스토랑 | 287 | 503 |
| 발리인터네셔널 라운지 | 759 | 368 |
| Ajengan Korean FOOD | 263 | 793 |
| Grill House Restaurant | 752 | 755 |
| BUGA RESTAURANT | 286 | 909 |

● **서비스업**

- **마사지**

| | | |
|---------------|-----|------|
| 아이시스마사지 | 287 | 503 |
| INKO MASSAGE | 789 | 2000 |
| MASSO MASSAGE | 725 | 475 |

- **빌라, 호텔**

| | | |
|-----------------------|--------|--------|
| 드림랜드빌라 | 708 | 199 |
| 라벤더 호텔 앤 스파 | 752 | 961 |
| BEVERLY HILLS | 789 | 2000 |
| OCEAN BLUE BALI villa | 776 | 700 |
| Arirang Hotel | (0363) | 417 95 |

- **기타 서비스업**

| | | |
|----------------------------|-----|------|
| INT | 720 | 999 |
| HAN STAR | 729 | 099 |
| BALI ZIGI.COM | 745 | 4229 |
| 시나르무띠아라(진주) | 462 | 061 |
| 선주얼리진주가게 | 761 | 539 |
| 발리데와따 | 285 | 501 |
| CLEAN/GREEN | 289 | 070 |
| 환타지가라오케 | 282 | 828 |
| 뜨게아궁 | 298 | 643 |
| 공항(폴로) | 759 | 368 |
| BALI CHIPPENDALE FURNITURE | 812 | 570 |
| 익투스 | 815 | 310 |
| Bali Cable Com | 705 | 266 |
| B.T.I | 284 | 362 |
| DEDO RAYA UTAMA | 720 | 452 |
| G.B.I 발론기구 | 704 | 333 |
| LAPAMA 레프팅 | 288 | 507 |

반둥 (지역번호 022)

● **식당**

| | | |
|---------|------|--------|
| 뉴캐슬 식당 | 201 | 5007~8 |
| 명가 레스토랑 | 200 | 7363 |
| 코리아 하우스 | 203 | 1626 |
| 한국관 | 7081 | 9529 |

● **서비스업**

| | | |
|---------|-----|--------|
| 뉴캐슬 사우나 | 201 | 5007~8 |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haninnews123@gmail.com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 인터넷 공모전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네-

자연을 느끼며, 옛날을 따라 걸으며,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을 생각하고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되게 만드는 일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길이 되어 스스로 길이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교민들에게 인니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타국에서 살아가는데 안정감과 친근감을 갖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눈부신 푸름으로 서로 통하고 싶습니다.

공모개요

인니문화를 통하여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감성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고, 교민사회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화합의 분위기에 일익을 담당하려는 목적으로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주제 : 인도네시아 이야기 - 문화탐방 기행문/생활수기(제목은 자유선택)
2. 원고 모집 기간 : 2010년 6월~9월 20일
3. 대상 : 학생(만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4. 원고분량 : A4용지 2쪽 이상(글자모양=신명조, 글자크기=11, 행간=160%)
5. 보내실 곳 : love.indonesia@hotmail.com / manggis7@hotmail.com
6. 시상 및 시상송회 : 10월 중
7. 시상내역: 일반부, 학생부 별도 시상(*시상내역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상의 종류 | 인원 | 시상 | 시상내역 |
|-----------|----|----------------|--------|
| 대상(1명) | 1 | 재인니한국대사상 | 상장과 부상 |
| 최우수상(각1명) | 2 | 재인니한인회장상 | 상장과 부상 |
| 우수상(각1명) | 2 | 재인니한인문화연구회장상 | 상장과 부상 |
| 우수상(각1명) | 2 | 재인니한인문협회장상 | 상장과 부상 |
| 특별상(각1명) | 2 | 재인니상공회의소수석부회장상 | 상장과 부상 |
| 장려상(5명) | 5 | 한인회문화연구회상 | 상장과 부상 |

8. 후원 : 한인회, 한인뉴스, 한나프레스
9. 문의처 : 사공경(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박정자(0815.1070.3065 / poemever@hanmail.net)

붙임 :

- ① 응모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표기할 것
- ② 원고는 지정된 e-mail로 응모할 것
- ③ 응모작품은 제출일 이전 미발표된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 ④ 기 발표된 작품이나 표절의 경우 당선이 취소 됨
- ⑤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한인회 인니문화연구회 문화탐방 안내

187회

일시: 8월 9일(월) / 7시 한인회에서 출발
탐방지: 폭포가 있는 등산로 (찌보다스)

188회

일시: 8월 28일(토) / 7시 한인회에서 출발
탐방지: 뽕짜; 차밭산책(Wisata Agro) - 차공장 - 메립바가든 - 국립꽃공원
연락처: 신유희 0818-708-228 / plentyhoki@yahoo.co.kr
사공경 0816-190-9976 / sagong@hotmail.com



솔로왕국의 제 13대 왕 시누훈 빠꾸부워노



김성월

수필가 · 방송 프리랜서
hansol0508@hanmail.net

한국 인삼을 맛본 솔로왕국의 시누훈(sinihun)

2010년 7월 8일은 중부자바의 솔로 왕국(Keraton Surakarta Hadiningrat) 제 13대왕 시누훈 빠꾸부워노(SINUHUN Pakubuwono XIII)의 즉위 6년째 기념식이 있는 날이다.

그 행사를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과 입궁하려는데 문지기가 왕실의 가족이 아닌 사람과 특별 손님은 사미르(Samir)노란색 바탕의 빨간색 줄을 목에 걸고 사롱을 꺼내주면서 걸치고 입궁하라고 했다. 입궁에는 비자가 있고 왕궁에는 법도가 있으니 당연히 따라야지. 하체를 칭칭 감은 사롱은 걸어도 제자리걸음하는 것 같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촬영협조로 공문서는 미리 보냈건만 MOU까지 작성해 와서 사인 하라는데, 에어컨 잘 돌아가는 멀쩡한 사무실 놔두고 하필 왕궁 마당 고목아래 앉아서 하자고 했다. 구두를 신어 발이 아팠고 사롱을 걸었다는 생각을 잊고 땅바닥에 앉다가 뒤로 벌러 덩 넘어졌다. 이런, 실수를 아름답게 하려고 내가 먼저 소리 내어 웃으면서 “어떻게 앉아야 하나요?” 물었다. 왕의 여동생이 사롱을 입고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아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주었다. 그 날 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공손하게 무릎 꿇고 MOU에 사인했다.

MOU를 마친 뒤 왕을 언제쯤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확실한 건 잘 모르겠다고 한다. 분명히 된다고 해서 왔는데, 이 것 속 터지는 일이면서 낭패다. 3년 전 TVRI와 KBS가 합작으로 3주 동안 다큐멘터리 제작한적이 있었다. 그 당시 족자왕국(Keraton Jogia)의 술탄(왕)과 인터뷰 시간을 이십 여분 밖에 얻어내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땐 합작이기에 내 책임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왕을 만날 기회만 알려주면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오후다. 정복 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 중에 정복에 배지가 가장 많이 달린 분과 인터뷰를 했더니 그는 주인니 말레이시아대사관 교육 참사관이었고 즉위기념식을 축하하러 온 사절단원들이었다.

행사 끝나고 왕을 만나려고 얼쩡거리니 왕비가 나서서 왕은 바빠서 안 되고 어떤 남자와 이야기길 하라고 했다.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 왕의 남동생이란다. 그 말에 기분이 싹 나빠지네, 그와는 볼일이 없다고 말하며 왕 앞에 가서 내 소개하고 제작진이 준비해 온 인삼을 내밀었다. 푸른 이끼 속에 점잖게 누워있는 인삼을 들고 나는 인삼 장수가 되어 한국인삼효능을 설명했다. 그리고는 잔뿌리 하나 툭 잘라 씹으면서 왕에게도 권했다. 왕은 나를 쳐다보더니 인삼을 받아 씹었다. 옆의 사람들은 아주 신기한 듯이 웅성거리면서 인삼 한번 쳐다보고 왕 한번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은 인삼을 만지고 싶어 손을 가까이 대기도 했다. 그때 말레이시아 사람이 왕에게 어떤 맛이냐고 묻자 ‘쓴 맛이긴 한데 뒷맛은 달콤하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 말레이시아 사람은 한국인삼을 들어만 봤지 실제로 보진 못했다며 실 뿌리라도 한번 씹어봤으면 하는 눈빛으로 결땀거렸다. 그 결땀거림이 유난했던지 왕은 인삼이 든 통을 단아 비서에게 건넸다.

내 마음에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떻게 6년근 인삼을 대가 없이 건네줄 수 있단 말인가. 입을 쳐다보다가 입안의 인삼을 다 삼키기 전에 나는 사적으로 만나 취미와 여러 가지를 취재하길 원한



다고 전했다. 왕은 입안의 마지막 인삼을 삼키면서 이틀 후, 즉위기념식이 끝나고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나는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소리로 두 번이나 확인하면서 그곳을 나왔다.

그래, 내가 이틀만 궁녀가 되어주자

오늘은 왕궁비서실에서 나에게는 궁녀 옷으로 입혀 주고 제작진에는 남자복장을 입혀줬다. 그러면서 내일도 차림이 같다고 말했다. 제작진과 내가 왕궁의 옷으로 입은 이유는 궁내에서 촬영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손님이 아니라 잠시 궁의 식구가 되는 것이란다. 그래, 로마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는데 솔로 왕궁의 법도를 따라 이틀만 궁녀가 되어주자. 나는 궁녀로 변신했다.

궁녀 옷은 치마처럼 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둘둘 말아 흘러내리지 않도록 복부에 붕대를 여러 번 감았다. 그 때문에 숨쉬기가 곤란했다. 가슴에는 궁녀들의 계급을 드러낸 천으로 한 번 더 둘렀다. 다 드러낸 어깨 위에 일반인은 깐바야(kebaya) 걸치지만 솔로왕의 궁녀들은 입지 않는다. 궁녀 옷이라고 입혀 주기에 입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무수리들이 입는 옷처럼 같다. 괜찮다. 무수리면 어떻게 상궁이면 어떤가. 이 나이에 왕궁에서 양어깨를 드러내고 수천 명 사이를 확보한다는 건 여자로서 아름다운 체형(?)이 아닐 수 없다.

기념일 아침이 되었다. 검은색 가방을 둘러멘 남자가 앞서가고 우리는 뒤따르고 있었다. 왕궁으로 들어서 네 번째 문을 통과하니 하인(Abdi Dalam) 문지기가 말했다. 다섯 번째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곳은 귀빈들만 드나드는 왕의 접견실이라고. 그건 맞는 말이다. 우리가 귀빈이니까 이렇게 드나드는 것이 아닐까? 왕과 덕담 나누는 사람들은 얼핏 보기에도 어깨와 가슴에 훈장이 더덕더덕 달려 있어 왠지 귀빈 같았다. 가무잡잡한 남자들은 병풍처럼 둘러서서 그저 사진만 찰찰찰 찍어대고 있었다.

왕, 부모만 잘 만나면 저절로 되는 왕. 만인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왕!

우리 아버지는 생신 날 커다란 케이크 앞에서 손자들이 노래만 불러도 집안에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 왕은 얼마나 부푼 심정일까. 친지와 자녀들, 하인 천여 명들이 엎드려 축하드릴 것이고 외국에서 사절단도 왔었으니…… 귀빈들과 덕담을 나누고 있는 왕을 주시해 보다가 대화가 끝날 무렵 나는 왕 앞으로 쭉르 달려갔다.

“시누훈(왕)! 축하드립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세요?”

“으…… Merasa sedih sepi(슬프고 외로운 느낌)”

푸념을 털어놓듯이 슬픈 느낌이라는 참으로 의아한 대답을 듣고 솔직히 나는 흥미로웠다. 왕의 이런 인터뷰는 귀한 것이니까, 아주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한발 더 다가가서 나지막하게

“왜? 슬퍼요……?”

“이렇게 큰 행사가 일 년에 여덟 번이나 있는데, 러바란, …… 그때마다 난 혼자……”

“네……”

참깨 털어내듯 술술 털어내는 가슴속의 언어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때론 밝은 표정으로 더리는 호기심 많은 얼굴로 들었다. 시누훈(Sinuhun)은 4년 전 쓰러져서 지금은 회복되었지만 발음이 약간 어눌했다. 나와서 이야기가 끝나자 어떤 분이 왕과 뺨을 비비면서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남자끼리라서 그런지 좀 어설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탁 하더니 왕의 안경오른쪽이 조금 깨어지면서 안경다리가 떨어졌다. 왕의 접견실을 나오면서 ‘슬픈 느낌이다’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다.

왕을 알현하러 천여 명의 하인(Abdi Dalem)들이 마당에서부터 왕의 보좌까지 앉아서 걸어갔다. 사롱 걸치고 저렇게 앉아 걷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잘도 했다. 왕궁행사의 모든 순서를 궁녀들이 주관했다. 왕이 등장하는 문 앞에서 창을 들고 대기하는 것도 향을 피우는 것도, 오늘 이 한 시간을 춤을 추기 위해 열흘을 날마다 춤춰온 것도 궁녀들이다. 남자하인들은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궁녀들이 하는 것 쳐다보고 박수나 쳤다. 우리조상들도 그랬을까?



행사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왕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엄청 몰려들었다. 피디는 행사직후 소감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봐도 왕이 너무 바빠다. 피디는 왕비에게라도 듣고 싶다고 나에게 졸랐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왕비에게 접근하여 말을 건네자 한마디로 냉정하게 거절했다.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손사래를 쳐가면서 거절했다.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 만 촬영 중이니까 참았다. 드디어 행사가 완전히 다 끝났다. 이제 왕은 손님들의 왕도, 하인들의 왕도, 궁녀의 왕도, 왕비의 왕도 아닌 우리 'VJ특공대' 제작진의 왕이다. 굳이 설명을 하려면 인삼을 씹으면서 왕이 내게 해 준 약속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왕자 GRM, Suryo Aryo Mustiko
공주 G.K.R Timoer Rumbai Kusuma Dewayani

아침과 같이 왕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춤추던 궁녀(Tari Bedoyo Ketawang)들과 왕은 정원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시누훈(왕/62세) 오늘 피곤하시겠지만 전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아참, 약속을 했었지요.”

어제 대화 중에 취미가 키보드 연주하는 것과 자동차 정비와 꾸미는 것이 생각났다.

“우선 키보드로 음악을 먼저 들려주세요.”

왕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겼다. 철망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입구에는 CCTV가 화면이 보였고 넓고 둥근 방이었다. 한쪽 벽면에 키보드 일곱 대가 놓여 있었다. 연주는 좋아하는 민요

끄론쥙(Keroncong)중의 병아완 솔로(Bengawan Solo)를 들려줬다. 연주가 끝나고 나는 홀룡하다며 박수를 쳤다.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자동차가 일곱 대였다. 그 일곱 대는 모두 선물로 받은 차였는데 낮익은 국산차는 한대도 없었다. 차고 앞에서 왕자를 직접 운전해서 등교시킨다며 끔직한 사랑의 자랑을 듣다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중요한 질문을 건넸다.

“후계자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62세)가 죽으면 내 아들(8세) 저 아이가 후계자가 될 것이지요.” 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니던 왕자를 가리켰다. 이제 왕과의 촬영이 끝났다.

그 때 문밖으로 왕비가 나오더니 왕자를 부르고 우리에게 끝났으면 돌아가라는 식으로 마치 이웃집 수탉 쫓아내듯이 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궁녀들만 대하더니 내가 궁녀 옷 입었다고 궁녀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반발심이 생겼다. 나는 왕에게 왕자와 잠시 놀아도 되겠는지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공주와 인터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 후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왕비를 힐끔 훑쳐봤다. 그리고는 왕비에게 그 동안 가슴 속에 쌓였던 걸 말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네 무엇입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솔로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받는다는 걸 한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려는데,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기에 세 번이나 적군 쫓아내듯 했나요?”

“오, 제가 언제? 그랬다면 상당히 미안합니다.”

“그럼, 지금 인터뷰 할 수 있어요? “네 그러죠”

인터뷰 조금 받으려는데 얼마나 열심히 이야기하는지 안 시켜줬으면 섭섭할 뻔했다는 표현을 이럴 때 하는가 보다. 보통 인터뷰가 길어질 때 피디와 주고받는 코드가 있는데 사인을 줄려고 카메라 액정화면을 보니 배터리가 다 되어 꺼지려 했다. 난 피디에게 카메라가 꺼져도 이야기 멈출 때까지 들고 있자고 하는 동안 카메라가 먼저 꺼졌고 한참 있다가 인터뷰가 끝났다. 나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농담 한마디도 함께 전했다.

“당신은 두리안처럼 처음엔 날카롭더니 마음을 열면 이렇게 좋은 분이군요.”

이런 연유로 왕비와 사진은 한 장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섯 번째 문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왕궁을 빠져 나왔고 나는 이틀간 입었던 궁녀 옷을 벗어 내던졌다. 아니다 고이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왔다.



여행에서 만난 거장, 미켈란젤로

글: 정무승 편집위원



피에타(Pieta)는 Pity의 이태리어로서 성모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슬퍼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말하며 미켈란젤로가(1475-1564) 1499년경 24세에 완성한 피에타상이 가장 대표적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3대 거장으로 꼽히는

그는 피에타를 조각할 때까지만 해도 무명의 조각가였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상을 조각한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라는 것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자 경비병들이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성당에 숨어있다가 성모마리아가 두른 옷깃에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제작(MICHEL. AGELVS. BONAROTVS. FLOENT.

FACIEBAT)이라고 조각을 하고 재빨리 성당을 나온다. 미켈란젤로는 시원한 밤 공기가 너무도 상쾌했고 즐거웠다. 하늘의 아름다운 달과 별, 시원하게 불어오는 밤 바람에 묻어오는 꽃 향기를 즐기며 아름다운 밤길을 걸던 미켈란젤로는 문득 하느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고도 어디에 하나 그의 작품이라는 표시를 남기지 않았는데 겨우 대리석 조각 하나에 자신의 명성을 알리고자 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그 후 어떤 작품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았다. 다비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어느 작품에서도 그의 서명은 찾을 수가 없다.

피렌체로 돌아와 피렌체 시청의 요청에 의해 다비드 상을 완성한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돌아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 요청을 받게 된다. 조각에만 전념했던 미켈란젤로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거절했지만 그를 골탕 먹이려는 브라만테의 추천과 교황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수락하게 되고 4년



에 걸쳐 540평방미터의 천장에 프레스코 기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는 목과 눈, 신장이 크게 상하고 골반이 뒤틀리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1512년 천장화를 완성하게 된다. 조각가였던 그가 불멸의 회화 명작을 완성한 것 만으로도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개의 천장화 중 아담을 창조하는 모습을 그린 천지창조는 신이 아담에게 입을 숨을 불어 넣는 대신 마주한 손가락을 통해 생명을 불어 넣는 유명한 모습으로서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의 영화 ET에서도 패러디된 바 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시스티나 성당 전면에 그리게 된 것은 1541년, 즉 천장벽화 작업을 마치고 30년이나 지난 그의 말년기였다. 클레멘스 7세의 명령에 의해 그림을 시작했으나 그가 죽자 조각가로 남기를 원하던 미켈란젤로는 작업을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교황 바오로 3세의 격려에 의해 그림이 완성됐고 교황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되게 되었다. 공개된 그의 작품 앞에서 관객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작품에 등장하는 400여 명의 수많은 성인과 성녀들이 모두 나체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미켈란젤로는 목욕탕이나 어울린다는 비난, 신성모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전면 철거하라는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그는 그림에 옷을 입히려는 압력을 단호히 거절했다. 이 그림에 대한 논쟁은 그 후 20년이 넘도록 계속되다가 1564년 미켈란젤로가 죽기 한달 전 마침내 철거를 면하게 되었고 대신 수정 명령이 내려지면서 미켈란젤로 사후 볼레라란 제자에 의해 최소한의 옷이 입혀지게 된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제작하고 있을 당시 부패한 의전관이었던 체세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누구보다도 폄하하고 비판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미켈란젤로는 의외로 즉시 응수하지 않고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된 후 만나는 사람마다 체세나에게 그가 작품에 있다고 하자 체세나는 그림에 달려가 자신을 찾아보았다. 천당에서도 연옥에서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그는 결국 지옥

을 훑어 보다가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뱀에 몸이 감기고 성기는 깨물려 고통 받는 당나귀 귀를 한 미노스의 모습에서 그를 발견하게 된다. 미켈란젤로는 작품 안에 그 자신도 그려 넣었는데 그림의 중간부분 살가죽이 칼로 잘려 벗겨져서 순교한 성인 마르톨로메오가 아래를 향해 들고 있는 살가죽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어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었다. 그는 중간아래쪽에 천당과 지옥의 명부 중 지옥의 명부를 훨씬 크고 두껍게 표현해서 당시 인간들의 죄악과 위선을 암시하고자 했으며 자신마저도 연옥과 지옥의 경계에 매달아 놓았다. 높이 13미터 폭 12미터의 거대한 벽에 60세가 다 된 미켈란젤로가 조수도 없이 그려낸 이 프레스코화는 그의 예술가적인 노력, 천재성, 신앙관,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걸작임에 틀림 없다. 조각과 회화 그리고 건축분야에 수많은 업적을 남긴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의 거장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시대를 초월한 미술가이자 건축가였고 현명한 철학자이자 신실한 신앙인 이었으며 시인이자 외로운 천재였다.



인도네시아 어디에선가 먹어본 그 맛

다운 씽콩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씽콩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재배되는 채소로서 단백질이 많이 함유한 옅은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는 열대지방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뿌리 역시 한 끼 식사대용으로 거뜬한 영양 덩어리다.

많이들 들어보고... 많이들 먹어보셨으리라 생각 드는 열대 지방 채소 씽콩. 몇 년 전에 씽콩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 있는데 이번에는 씽콩 못지않게 많이 먹는 씽콩 잎, 다운 씽콩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씽콩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재배되는 채소로 우리가 즐겨먹는 고구마 같은 뿌리, 잎을 통틀어 씽콩이라 얘기 합니다. 특히 잎은 상당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는 열대지방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뿌리 역시 말할 것도 없이 한 끼 식사대용으로 거뜬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인도네시아 쌀이 잘 재배되지 않는 지역이나 건조한 지역에서 조차 쉽게 자라나는 씽콩은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식량이자 간식이자 영양까지 책임지는 친숙한 뿌리채소입니다.

씽콩의 학명은 *Manihot esculenta*입니다. 식물학계 층 구조를 살펴보면 속씨식물문(Magnoliophyta),

쌍떡잎식물강(Magnoliopsida), 쥐손이풀목 또는 말피기목(Malpighiales), 등대풀과 또는 대극과(euphorbiaceae)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마치스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습담(濕痰)을 제거하는 데 유용한 대표적인 한약재인 대극(大戟), 변비약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하기(下氣)하는 성질이 강한 파두(巴豆), 당뇨를 치료하며 림프선염과 수종(水腫) 그 밖에 치통에도 유용한 개감수등이 이 대극과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이 밖에도 잘 알려져 있는 등대풀, 꽃기린, 쥐손이풀등이 이 대극과에 속해 있습니다.

씽콩은 cassava, yuca, manioc, mandioca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남아메리카를 그 원산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000년 그 이전에 브라질에서 재배된 것으로 보이며, 멕시코, 엘살바도르, 파라과와이 등지에서 식용한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후 인도로 전해지고, 아프리카, 아시아의 열대 및

아열대 지방으로 전과 되어 지금은 기후와 토양이 적합한 지역에서는 어디든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키우기가 쉬어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재배되고 있습니다.

씽콩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마다 불리는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아체지역에서는 ubi kayee, 순다에서는 kasapen, 자와에서는 tela pohong, 마두라에서는 tela belada, 마카사르에서는 lame kayu, 파푸아에서는 pangala라로 불립니다.

씽콩을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기미(氣味)는 미온(微溫) 무독(無毒)하며 감고(甘苦)합니다. 귀경으로는 족양명위경(足陽明胃經), 족태음비경(足太陰脾經), 족소음신경(足少陰腎經)으로 되어 익기(益氣), 보비위(補脾胃), 보원기(補元氣)합니다.

감미(甘味)로 인하여 비위(脾胃)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니 소화 기능을 돕고 비장의 영양물질을 운화(運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천지기(後天之氣) 근간을 지켜 주니 원기(元氣)를 보하는 데에도 그 효능을 발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운 씽콩은 길쭉한 줄기에 작은 잎들이 옹기종기 붙어있습니다. 잎은 길이 10~20cm 정도이며, 각각 갈라진 손가락 같이 5~7개 정도의 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잎 모양은 끝이 뾰족하고 넓이도 4.5cm 정도로 하나하나의 크기는 작습니다. 그냥 먹으면 독이 있기에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꼭 요리해서 먹어야 합니다. 다운 씽콩의 맛은 씹싸래하며 씹을수록 향긋한 향이 올라와 더위에 지친 우리의 식욕을 북돋아 줍니다.

씽콩의 뿌리와 그 잎인 다운 씽콩을 같이 먹으면 더욱 더 영양이 풍부해진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운 씽콩은 특히 핑창히 많은 양의 단백질, 비타민 B, 비타민 A와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다운 씽콩 한 접시를 먹으면 어린이들의 비타민 A 하루 섭취량을 먹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성장에 있어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건강한 눈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섬유소 또한 풍부하고 칼로리도 낮아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좋으며, 밥이나 빵보

다 탄수화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포만감을 많이 느끼게 해준다니 요즘 시대가 원하는 건강 채소 요건을 다 갖춘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먹는 씽콩의 뿌리는 섬유질이 많아서 대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독소를 잘 빠지게 해주어서 소화를 촉진시켜줍니다.

다운 씽콩의 어린잎들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요리되고 있습니다. 보통 다운 씽콩을 볶아먹거나, 물에 데쳐서 국에 넣어 먹기도 하며, 쌈 싸 먹을 때 전통 삼블 소스와 함께 먹기도 합니다. 그 중 유명한 것이 gulai daun singkong (코코넛 우유를 넣어 만든 야채볶음)과 자바에서는 ‘urap’이라는 자바식 매콤한 샐러드, ‘buntit’이라는 자바식 야채말이로 많이 응용되어 요리되어 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먹는 거 외에 다운 씽콩은 약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특히 류마티스, 두통, 고열, 설사, 회충, 타박상, 이질등등 다양하게 응용됩니다. 한 예로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외치요법으로 씽콩 잎 5장, 15g의 생강, sirih(한방약재-빈랑)에 물을 섞어 부드럽게 만든 후 아픈 부위에 붙이며, 복용할 때에는 씽콩 100g과 15g의 생강, sere라는 약재를 넣고 끓여 마시면 이 나라 전통 류마티스 치료약이라 합니다.

씽콩의 뿌리는 고구마 같이 생기고 맛도 좋아 인기 만점 인도네시아 서민 음식입니다. 얇게 썰어 튀겨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테이토칩과 비슷한 과자로 변신하며, 배가 출출할 때 간식으로 썰먹으면 배가 든든해지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여기에 반찬으로 다운 씽콩을 같이 요리해서 밥과 같이 먹는다면 부족할 수 있는 영양까지 챙겨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다운 씽콩은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하고 접하기 쉽지 않은 뿌리채소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너무나도 손쉽게 전역에서 구할 수 있는 국민간식이기에 많이 누리고 드셔 보셨으면 합니다.





이왕규

KITA 해외마케팅 본부장

* tradeKorea.com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innekorea.or.id)에 게재하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한국무역협회(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는 사단법인 순수민간 비영리 단체로 1946년에 설립된 이후 한국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왔다. 소유하고 있는 삼성동 무역센터의 임대 수입으로 전시장 등을 운영해 무역진흥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일본 동경, 싱가포르, 미주 워싱턴 뉴욕, 유럽의 브리셀, 중국의 북경과 상해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인니는 첫 방문인가?

처음이다. 6월 7일부터 아세안 무역사절단으로 21개업체 26분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3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그 첫 번째 국가로 오늘 인니에서 수출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니 방문의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나?

인니는 주요 무역국 중 하나로, 현재 전세계가 WTO 체제하에 있지만 양자협정시대로 접어들었다. FTA에 관심을 가지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 한국과 아세안도 FTA를 체결했다. 중국이 무역 대국으로 부상한 것과 같이 인도나 인니도 큰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한-아세안 FTA로 인한 관세혜택을 기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인니를 포함해 BRIICS로 얘기되는데 이는 인니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인니는 제조업 기반이 약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제조기술이 필요하고 한국은 인니의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인니는 정치 안정과 함께 대중의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KITA는 올해 아세안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니,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이 우선 대상이다.

KITA는 KOTRA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국내업체와 연결하는 주된 업무 가운데 소외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KOTRA와 차별화하여 tradekorea.com을 활용하여 사이버, 온라인 마켓을 공략하려 한다. 인니 경제지표가 보여주고 있듯 향후 인니 온라인 마켓의 성장 잠재력이 크며 충분히 성공 가능하다고 본다.

tradeKorea.com에 대해 설명해 달라.

KITA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상에서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기업,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한 무역협회의 Global B2B e-Marketplace 이다.

tradeKorea.com의 주요 서비스로는 Global e-Marketplace(영문), 수출지원센터(국문), 한상Biz네트워크(국문) 로서 글로벌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 동포무역인(韓商)에게 전문성을 제공한다. 쉽게 말하면,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을 통해 상호간 Business Needs가 맞는지 체크하고 만나서 마무리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 비즈니스 성사율을 높이는 것이다.

KITA는 또한 세계 1위로 오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닷컴(www.alibaba.com)과 업무협력을 체결해 중국 북경, 천진, 상해, 왕조우, 신천 등에서 시장개척단이 온라인으로 브로셔등 매칭 과정을 통해 성공을 거둔바 있다.

오늘 인니 KADIN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온라인 거래알선을 활성화 할 경우 양국 무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니에서 사업하시는 코참 회원사들을 포함하여 동포기업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주주의 권리와 책임

이승민 변호사·변리사(YSM & PARTNERS)
yisngmin@centrin.net.id

자본주의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인원 제한이 없는 주주로부터 출자 받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의 명의로 출자금보다 천배 만배 제한이 없는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혹시 적자가 나면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그 이상은 무생물인 주식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주식회사 제도이다. 제도상으로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나 상장된 주식회사 이외의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형식 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없이 사주 혹은 가족들이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식회사법은 주주에게 주주 개인으로써의 권리 및 주주 단체로써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한 편으로는 책임을 묻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책임과 권리를 살펴 본다.

1. 주주의 유한 책임 원칙

인도네시아의 주식회사법은 주주의 책임은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로 무한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신경을 써서 읽어보면 오히려 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유한 책임을 먼저 간단하게 규정하고 무한책임을 더 강하게 부각시켰음을 느낄 수 있다. 주주의 책임 한계를 규정한 주식회사법 제3조는 다음과 같다.

- (1).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 가치를 초과하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기 (1)항의 유한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는 무한 책임을 진다).

- a.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설립된 회사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 b. 해당 주주가 불성심 혹은 고의로(in bad faith)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이용한 경우
- c. 회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데 가담한 주주
- d. 해당 주주가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회사가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 주주의 책임을 규정한 인도네시아 주식회사법 제3조의 취지는 현실적으로 제 (1)항의 상황보다는 제(2)항 “b”, “c” 및 “d” 의 상황 발생이 적지 않은 인도네시아의 현실을 직시하고 주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b”, “c” 혹은 “d”에 해당하는 행위를 주주가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강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2. 법인 자격 미획득 시 주주의 무한 책임

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금을 회사에 불입하고 구비서류 목록을 갖춰 법무부 장관에게 회사 설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법인 자격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먼저 형식 요건 구비 여부를 즉시 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 서류 목록이 통과되면 30일 이내에 구비서류 일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법무부 장관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자격을 부여한다. 제도상으로 회사 설립일부터 계산해서 최장 104일 이내에 법인 자격이 부여된다. 법인 자격을 갖추기 전이나 법인 자격을 상실한 회사의 경영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이 주주에게 있다.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Project을 추진하는 경우에 종종 보는 케이스이다. “예”를 들면 1억불짜리 지방정부 Project 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본금 2천5백만불짜리 회사를 만든 후 법인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실제로는 자본금 2천5백만 불을 불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가 2천5백만불을 불입했다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는 공증인이 작성한 회사 설립정관과 지방정부의 추천서를 근거로 외국 투자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는 회사이지만 주주가 계약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회사가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 제도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경우이다. 정관에 자본금을 불입했다는 내용은 실제로는 자본금을 불입하지 않았어도 주주가 구두로 공증인 앞에서 자본금을 불입했노라고 진술만 하면 그대로 정관에 기재되는 제도적인 허점을 사장이 악용하는 경우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주에게 무한책임으로 물을 수 있다. 주주가 출자금을 불입했는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발행한 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에 대한 승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8월 16일 신주식회사법 발효 이후는 출자금을 실제로는 불입하지 않고 전체 주주, 전체 이사회원 및 전체 감사회원이 주주들이 출자금을 전액 출자했다는 서면 확인서만 법무부에 제출하면 법인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3. 법인 자격 상실 시 주주의 무한 책임

주식회사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0호 제158조는 기존 모든 주식회사는 예외 없이 신주식회사법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즉, 2008년 8월 16일 이전에 회사의 기존 정관을 신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16일 이전에 회사의 기존 정관을 신주식회사법에 맞게 개정하지 않은 회사는 법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법인 자격을 상실한 회사의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단수 주주의 무한 책임

회사 설립은 반드시 설립인원 2명 이상, 즉 주주의 수가 2명 이상이어야 하나, 설립 후 출자금을 불입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 취득 후에는 단수 주주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양도, 증여, 상속, 법원 판결문 집행 등으로 주주의 수가 한 사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수 주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주식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여 복수 주주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 복수 주주 조건을 어기고 단수 주주 상태로 6개월이 지나면 회사의 명의로 행하여진 모든 불법행위와 손실에 대하여 주주 개인에게 무한 책임이 부여된다. 단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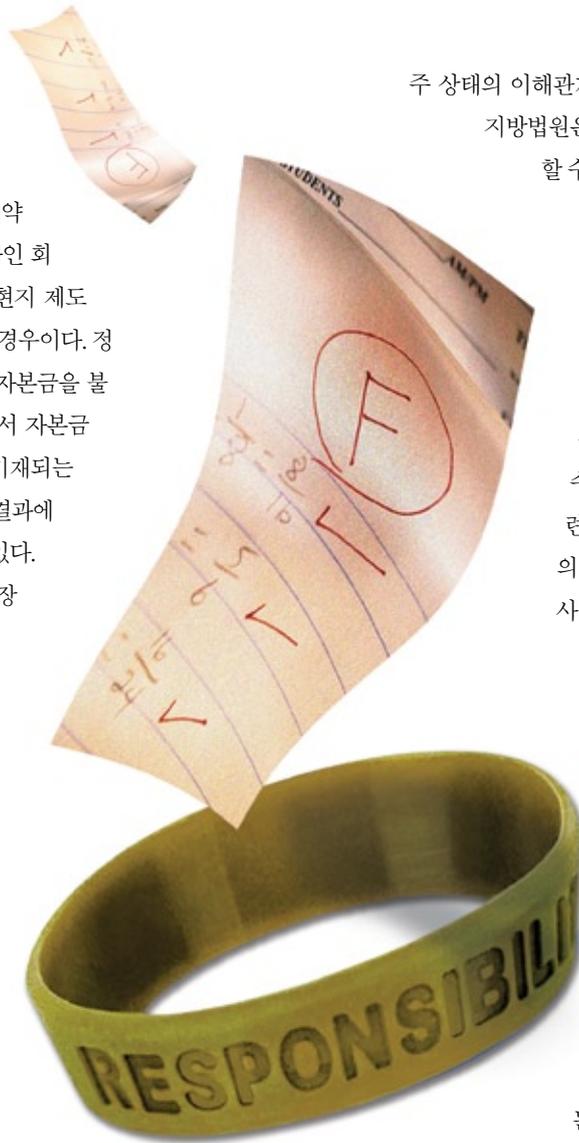
주 상태의 이해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관할 지방법원은 단수 주주 상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5. 주주 개인의 유익을 위해 고의로 회사를 이용 시 주주의 무한 책임

주주가 회사의 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주주의 사적인 일에 회사의 공금을 사용하거나, 주주의 사적인 사업을 임직원을 시켜 추진하거나, 회사 업무와 상관이 없으나 주주가 관련되어 있는 회사의 지급보증을 서게 하거나 (“에” 지급보증을 서 주는 회사 A가 그룹 내 다른 회사 B의 주주가 아니고 주주 개인 C나 C의 가족 D, 친인척 E 혹은 심복 F가 그룹 내 다른 회사 B의 주주 되어 있거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A가 B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서주는 경우), 주주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와 부당한 거래를 요구하거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가 직접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위하여 혹은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할 결산보고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요구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인이 회사의 주주이자 사장인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회사의 재산을 주주 명의로 등기해놓거나 회사의 공금을 주주의 개인 계좌에 입금시키고 회사의 지출을 주주의 개인명의 수표 혹은 기로(Bilyet Giro)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주주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

6.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가담한 주주의 무한 책임

형사상의 불법행위(범죄) 뿐만 아니고 민사상의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하지 않거나 법에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을 하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회사의 재무제표 조작, 탈세, 밀수, 불법 벌목, 불법 채광,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 회사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주주가 관여한 경우에 해당 주주에게 무한 책임이 있다.





원은 빛을 다 갚을 때까지 평생 시달리는 입장이 되며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유산이 있으면 유산을 받은 유족에게 빛도 상속이 되어 유산을 받은 유족이 빛을 갚아야 한다. 형사 처리는 주주나 이사회원이 국외로 잠적한 경우에는 경찰청 본청에 고소를 하여 인터폴을 통하여 전세계 인터폴 회원국가에 수배를 하면 국제 여행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면 채무의 일부를 갚을테니 형사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기대할 수도 있다.

7. 파산 선고된 회사의 주주의 책임

주주가 회사 밖에 있으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주의 권리를 주주총회를 통해서만 행사한 경우에는 주주의 책임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지면된다. 그러나 파산이 선고된 회사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주의 불법행위가 보이며 파산이 선고되면 일단 피신을 하는 주주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책임져야할 일이 없으면 피신하거나 국외로 잠적해할 이유가 없다. 돈을 빌렸거나 물품을 사거나 용역을 사용했다면 빌린 돈을 갚고 물건 값이나 용역비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물품을 판 사람은 물건 값을 받을 권리가 있고 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용역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시장경제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파산이 선고된 회사의 주주와 이사회원이 잠적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인 회사와 주주와 이사회원에게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 바람직한 방법은 제도를 이용한 방법이다. 실질적인 채권회수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방법이 피해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며 차후 같은 종류의 거래에서 두 번 세 번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며 공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채무자 회사의 주주와 이사회원이 잠적했으니 찾아서 피해를 배상받게 해달라고 관계 요로에 탄원서를 보내서 얻어지는 결과는 소문만 무성하게 만들 뿐 별로 기대할 것이 못될 것은 탄원의 본질이 주문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거래상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이다. 탄원서보다는 관재인을 통하여 파산이 선고된 회사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파산 사유와 주주 및 이사회원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어 파산 귀책사유가 주주나 이사회원에게 있거나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주주와 이사회원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형사 고소를 하여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잠적한 주주나 이사회원이 민사소송에 대응해 오지 않으면 원고인 채권자 승소가 확정될 것이며 대응해오는 경우에는 숨어사는 소재지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리가 더 용이해질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주주나 이사회

8. 주주의 권리

주식회사법 제52조 1항은 주주에게 i).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ii).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iii). 주식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무부의 회사 등기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었다는 법무부의 확인서와 회사에 비치된 주주 대장에 주주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주주의 권리는 주주총회와 관련된 권리와 주주총회와 관련이 없는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 8.1. 새로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선취권이 있다.
- 8.2.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주주가 팔려는 주식에 대하여 선매입권이 있다.
- 8.3. 보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8.4. 주주총회, 이사회 혹은 감사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8.5. 회사 정관을 개정하거나 회사의 재산의 50% 이상을 매각하거나 담보하는 회사의 법률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자신의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8.6.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삼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8.7. 이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8.8. 회사 청산 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8.9.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8.10.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와 주주총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병수

보험교실 - 1



안녕하세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험을 하늘이 내려주신 직업으로 알고 살아온 이병수입니다. 보험의 홍수시대에 함께 하면서 왠지 모르게 자꾸 멀어져 보이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잘 믿음이 가지 않는 보험이란 녀석을 가능한 만큼 쉽게 풀어헤쳐,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독자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믿음과 함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험이란 괴짜 녀석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기 위하여 한 발 한발 내디뎌 볼까요?

글: 이 병 수

보험이 우리 경제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정신적이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불행을 가져오는 수가 많지요. 즉, 화재나 홍수로 재산을 모두 잃거나,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병원신세를 지게 되어 우리의 경제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예를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경제보장(economic security)이라고 하며, 혼자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각종 재해 또는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가차원의 사회보장제도와 각 개인이 자기의 책임으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저축 또는 보험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하게 되었지요.

저축이 소극적인 위험대비 수단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이성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위험대비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찾아냈고 이는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찾아낸 가장 훌륭한 제도이며 이 보험의 발전은 바로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가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대보험의 기원을 찾아볼까요?

보험의 효시가 될 만한 근거를 찾아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상(낙타상인무리)의 일원이 여행 중에 강도 또는 뜻밖의 사고로 생긴 손해를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규정한 수천 년 전의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대의 발전된 보험의 모태가 되는 근대보험의 기원은 중세시대의 '해상보험대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상무역업자가 항해를 함에 있어서 선박과 적하를 담보로 금융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항해를 무사히 마치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그렇지 못하면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면제받기로 하는 계약이지요. 이 제도는 해상위험을 전가시키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해상보험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된 것이지요. '보험' 하면 무의식중에 소위 '로이드마켓'(Lloyd's)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 것도 영국에서 해상무역업자와 금융업자가 모여 해상보험대차를 실시한 시장의 이름인 Lloyd's가 근대보험이 태동한 산실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연유겠지요. 이제는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 등 여러 선진국들이 세계 주요 보험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지금도 영국의 로이드마켓은 전통적인(Traditional) '원보험'과 '재보험' 시장에서 그 상징적인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 위험, 위험단체?

보험은 우리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No risks, No insurance)는 말로 요약되지요!

위험이란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으로서 불확정한 것'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화재 등과 같이 그 발생여부가 불확정한 것도 있고 사망과 같이 그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한 것도 있지요. 상법조항에는 '위험'이란 것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불확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요?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의 공동의 힘으로 그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기술적으로 표현하면, 보험은 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통계적인 기초(대수의 법칙 = Law of Large Numbers) 위에서 '위험단체' 안에서 그 위험을 전가시키고 분산시키려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요? 이것도 다음에 우리와 가장 친숙한 보험종목의 하나인 화재보험의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의 정의와 기능을 다시 정리하면?

위에서 설명한 보험이란 녀석을 기술적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보험은 위험단체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또는 대량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확률로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산출한 보험료를 단체내의 각 구성원이 분담하고, 우연한 사고가 생긴 때에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덜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첫 시간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막연하게만 느껴온 보험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다소 기술적이고 생소한 용어들을 곁들인 탓에 흥미가 반감되었을 듯합니다. 보험교실의 횡수가 늘어날수록 점점 더 쉬운 말 풀이로 보다 실생활에 와 닿고 필요한 보험상식으로 접근할 것이니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인내와 아량으로 보험교실을 애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협의회 인도네시아 지회

주소: Korea Center Building, Jl.Gatot Subroto Kav.58, Jakarta
전화: 021) 520 6655 / 팩스: 021) 520 3535



|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를 다녀와서 |

북한 만행엔 16강 열정으로 함께 규탄해야



최 병 우
민주평통 인니지회 회원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금년은 다른 해에 비해 유난스럽다. 지나간 60년 동안 우리들의 잠을 설치게 했던 동백림 간첩단 사건, 1.21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동해 121기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금강산 관광객 총격, 효선 미선사건, 쇠고기 파동, 1, 2차 연평 해전, 그리고 최근의 천안함 폭침 등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던가? 이제는 어지간한 사건이 터져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니, 한국 국민들은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들이요, 현실에 초연한 선인들 같다. 그냥 귀찮아서 아니면 애써 대범한 척 하는 것일까?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폭침 때 군 부대 구내매점에 설치되어있는 공중전화 앞에 후방전출이나 대북방송을 하지 말도록 부모님께 부탁을 하겠다고 줄을 썼고, 후방에 있는 연인들은 군 복무 중인 남자 친구를 잃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민주평통자문위원의 일원으로서 본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보고 또 주재국 공관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에서 국정상황이나 북한의 실상에 관한 영상물들을 접하여 왔고, 특히 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해외지역회의'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한 실상을 좀더 심도있게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박세일 교수, 그리고 수십 년간 대북문제만 연구하여왔다는 남주홍 국제안보대사의 특별강의 시간에는 세계각국에서 오시느라 채 풀리지도 않은 여독마저 잠시 잊은 채 한 분도 흐트러짐이 없이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마지막 날의 안보현장답사 시간에는 수십 년 전의 군대생활을 회상케 하며 최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해외에서 손님들이 오신 다기에 철저히 준비하였는지는 몰라도 너무나 깨끗한 군복, 반짝 반짝 빛나는 군화를 보면서 군복이 구겨질까 봐, 또는 군화의 광이 벗겨질까 봐 혹시 훈련을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염려가 될 정도로 모든 게 청결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요즘은 고학력 입대자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취사병이 부족하여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의 아주머니들이 출퇴근을 하여 마련해 준다는 식사를 보면서 혹시라도 사소한 군사정보가 새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해보는 것은 나만의 어리석음일까? 보병 전투부대를 방문하였기에, 요즘 병사들은 구보를 얼마나 하느냐는 어느 방문객의 질문에, 요즘의 전쟁은 화력전이지 예전과 같은 형태의 전쟁이 아니라는 말에 일부는 공감을 하였으나 그 속뜻을 헤아려보며 그 정도의 훈련량으로 평양에 승리의 태극기

를 쫓는데 충분한 체력이 된다고 믿어도 될까? 전쟁이 나면 일격에 적을 분쇄할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해외에서 느끼는 것처럼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평택 제2함대사령부를 방문하여 연평해전의 영상물을 보고 나서는 연세 지긋한 방문객들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꽃다운 젊은이들을 그렇게 보내야만 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국가를 위해 장렬히 전사한 그들이 국가 차원에서 대우해 주지 못했을까? 천안함 폭침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46명의 해군장병들과 찾지 못한 한 구의 시신이라도 찾으려다 희생된 한 준위의 죽음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자식이 아니니까, 나의 친척이 아니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벌써 다 잊은 것은 아닐까? 나의 사농은 주식 값 아니면 나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더 염려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남아공 월드컵 축구에 온 국민이 열광하며 곳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 전력을 질주하여 16강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훌륭한 민족인 것은 분명한데, 왜 우리 국민의 허무한 주검 앞에는 그렇게 초연할까? 왜 나와 함께 공부하던 학우가 죽었는데 침묵으로 일관할까? 왜 나의 동문이, 나의 자식뻘 되는 군인들이 우리의 국토를 지키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렇게 침묵할까? 왜 미선 그리고 효선이의 죽음만 억울할까? 결국은 왜곡으로 판명이 난 쇠고기파동에 쉽게 휘말려가는 것은 아닐까? 무엇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고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는 풍토가 조성되었을까?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를 못하였을까?

흔히들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그 해피한 것도 다 구해서 드시는 적극적인 우리 국민들일진대, 왜 우리의 국가 안보에는 그토록 초연할까?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맡길 수 없기에 자주국방을 위하여 필사의 노력을 경주하고도 우리의 최대 자산인 정신무장마저 해이하여진다면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들과 우리 남한 지역의 일부 좌파의 요구대로 미군이 철수하고 난 후에 적화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들의 재산은 그들이 보장을 하여 준단 말인가? 그렇게 굶주렸던 저들이 자유 대만에 와서 우리를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하고 사업을 하도록 봐줄 것인가?

그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월드컵 축구팀이 16강에 오르기 위해 온 국민의 열정으로 북한을 향하여 규탄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참지 않겠다는 우리의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자. 회초리 박수치는 요령은 이렇게 하자.

“북한 만행 규탄한다 짹 짹 짹”

“평화 통일 이룩하자 짹 짹 짹”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분명히 그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아니구나 라고 함부로 행동을 못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등이 월가월부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 세울 수 있는 게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일 수 있겠지만 국가의 안보만큼은 누구나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하지 않을까? 그 어려운 여건하에서 굳건히 살아남은 이스라엘을 보자.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러기에 안보 측면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철통 같기에 아직도 저렇게 견재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민주평통은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찾아가는 민주평통’을 구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하나, 세계 각국에서 온 민주평통 위원들은 모름지기 우리 입장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더 젊은 위원들로 구성하여 우리의 실상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나, 새터민(탈북자) 분들을 각국으로 파견하여 해외동포 자녀들에게 생생한 사진들과 공산 치하에서의 삶은 어떻게 내가 왜 죽음을 무릎 쓰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탈출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는 안보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매년 맞이하는 6.25기념일에는 참전용사나 그들의 후손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하여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참전국에 한국정부에서 기념관을 지어 매년 기념식을 열면 어떨까?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작한 각종 영상물이나 실제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비디오 등을 정기적으로 각국으로 보내어 평통 위원들을 통해 각종 모임이나 동호회 그리고 주재국 현지인 지인들과 함께 본다면 자연스럽게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나, 말로만 평화를 외치며 행동을 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지식인들은 반성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직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해외에 살고 있는 평통 위원들과 회초리 박수를 칠 수 있는 단합된 젊은이들이 있기에

전작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후속조치



김현욱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얼마 전 한미 양국은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전작권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는 데 합의하였다. 왜 연기해야 하는가.

첫째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작년 5월 북한은 2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를 실험했으며, 최근 천안함 사태 역시 북한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위협은 최근 북한의 권력승계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2015년 이후 권력승계가 마무리되면 위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2012년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이유이다. 2012년은 한국, 미국, 러시아가 대선구도에 처하는 해이며,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가 종료하는 해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한 목표연도이기도 하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시기를 피하겠다는 이유다.

셋째는 현재 우리 군의 준비태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작전을 운용하기 위한 준비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70%를 주한미군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대북억지력을 위한 다양한 무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국방중기계획이나 국방개혁 2020은 국가재정문제로 달성 불가 상태에 있으며, 독자적 전쟁 능력 구축사업 9개중 6개 사업은 2012년 이전에 확보 불가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전환시점을 연기함으로써 우리군의 독자적 작전통제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천안함 사태는 1994년에 우리 측으로 넘어온 평시작전통제권 하에서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처한 사건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에 대해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러한 사건이 전시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군의 준비태세가 보다 잘 이루어진 후에 전시 작통권 환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연기 조치에 대해 국내적으로 논란이 많다. 진보진영은 현재 전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보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전시 작통권의 영구적 포기가 아닌 3년 남짓한 기

간의 연기이다. 정부도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전작권을 주권과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작권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휘통제권을 위임한다는 것인데, 이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은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보주권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비판이다.

또한 진보진영은 주한미군 유지 및 기지이전 비용의 증가를 주장하기도 한다. 즉, 우리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연기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관련된 비용을 더 많이 떠안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전작권전통제권 환수 이후 독자적 군의 운용을 위해서는 엄청난 액수의 국방예산이 필요하다. 전환연기로 인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할지도 모르는 비용은 독자적 군의 운용을 위해 한국정부가 쏟아부어야 하는 국방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떤 준비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설득 및 홍보강화이다. 천안함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고려해서 군사력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려야 하며, 전시작통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준비된 상태에서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 군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국방계획2020에서 책정된 국방예산이 비현실적임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미연합사령부 후속 지휘체계구축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정보전, 장기적 전투능력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동맹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역시 아프간이나 이라크 전과 같은 용도를 위해 차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이 경우 한-미합동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전작권 환수시점 이전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노돋돌」 등 단체의 동포청소년 의식화 교육



홍진표 / 시대정신 이사

한국정부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해 유엔안보리에 제소하자 한국의 좌파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안보리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요지의 서한을 보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때 미국 뉴욕에 있는 ‘노돋돌’이라는 한인청년단체 또한 국내의 ‘평통사’라는 단체와 함께 프랑스, 영국 등 11개국 유엔 대표부에 천안함 사태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차원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한국정부의 외교노력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벌이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편을 든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노돋돌은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도 유엔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북한 핵실험은 미국에게 원인이 있다는 적반하장격 주장을 편적이 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노돋돌의 협력단체인 평통사는 “핵 실험에 담긴 북의 속뜻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북미 대화 메시지”이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단의 도발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이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런 궤변은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미국사회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성장한 사람들이 주축인 노돋돌이 세계 최고의 억압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배경을 찾아보면, 그들이 북한정권과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노돋돌은 지난 2001년부터 DEEP(DPRK Education and Exposure Program)라는 북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에 2주간 10여명 내외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북한을 여행한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북한정권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떠한 외부사람도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허가와 철저한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DEEP 체험자들의 발표회 관련 기사를 보면, “북한의 혁명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느꼈다”, “한국전쟁기간 중 미국이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발표했다” 등 이 프로그램이 북한의 체제선전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외부인들이 방문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선별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증언한다. 북한을 직접 체험한 후 그들에게 호감을 갖는 반응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진다. 단순히 순진함과 무지로만 설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노돋돌은 다른 미주한인단체들과 공동으로 KEEP(Korea Exposure and Education Program)라는 한국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주간에 걸친 KEEP 프로그램은 농촌활동을 포함하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집회와 같은 각종 시위 현장에도 참가한다. “매년 10명에서 15명을 선발해 조국에 파견, 진보진영 단체에 견학을 시켜 조국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대해 배우고”라는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전형적인 의식화 사업이다.

미국에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한인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알게되었을 때, 분노하고 개선활동에 앞장서야 한다. 자신의 뿌리인 한국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역사발전의 견지에서 퇴행적인 흐름과 잘못된 만남을 가진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나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된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는 청년기에 어떤 사람, 어떤 사조와 만나고 친숙해지는가가 훗날의 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명제를 다시 생각해본다.

내가 겪은 6.25. (마지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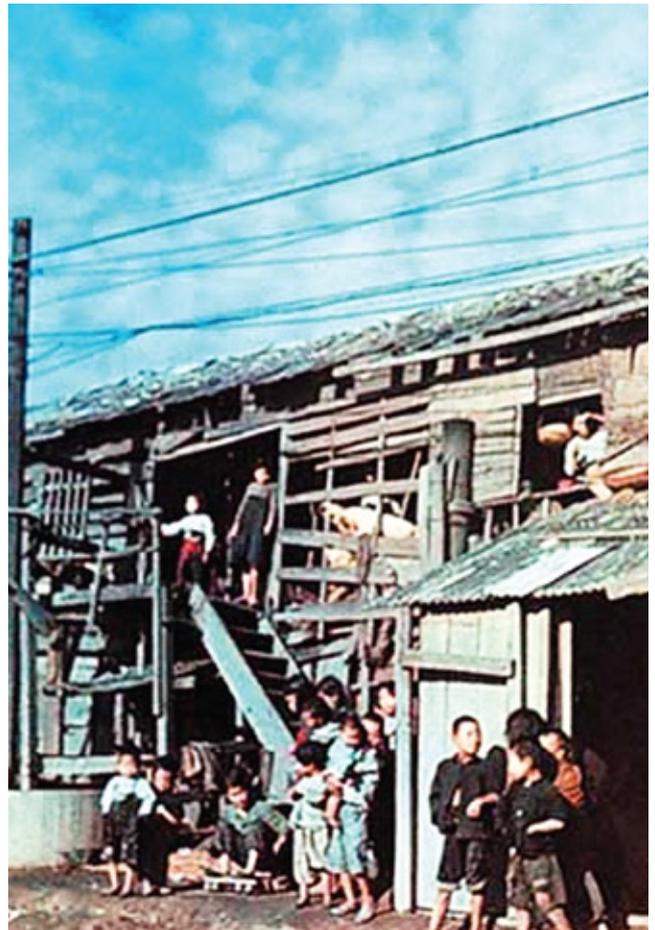
올해는 한민족끼리 서로 총을 겨누며 동족상잔의 최대 비극을 맞았던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지금도 남북한은 지리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갈라져 휴전이라는 긴장감속에 기약없이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과 가족과의 조우를 바라며 눈물로 수십년을 지새우고 있는 이산가족들, 최근 천안함 사태로 북한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6.25는 우리에게 있어 현실이고 진행형이다. 우리 교민들 중에도 6.25를 생생히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60년이 되는 이날 교민 이승민 씨가 직접 겪었던 6.25를 연재하며 그날의 현실을 다시 기억했으면 한다. -편집자 주-

<글: 이승민 변호사,변리사>

마을에 상륙한 해군 중에 한 분이 삼촌과 진해 해군학교 동기로 삼촌을 알고 계셔서 더 반가웠으나 전쟁 중이라 삼촌의 생사를 모르는 우리 가족은 마음이 더 애절했었다. 다음 날 해군들은 머슴을 데리고 섬을 떠났고 해군이 머슴을 목포 앞 바다 용머리에서 바다에 던져 버렸다는 소문이 나중에 들려 왔다. 공산주의자들이 마을을 떠난 후 3-4일 후에 죽창에 가슴이 찢린 경찰관의 아버지의 시신이 목포 역 광장에서 발견이 되어 섬 마을 고향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됐지만 국군을 따라 후퇴한 경찰관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가 한참 후 수복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서야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해군 함정이 함포를 발사하고 마을에 상륙하여 우리 두 가족의 생명을 구해준 날 다음 날부터 갑자기 비행기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알게 뜬 비행기가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섬 위를 돌면 바다에서 빨가벗고 물놀이를 하던 우리는 무서워서 바다에서 나와 바닷가에 벗어 놓은 옷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서 숨었다가 비행기가 사라진 뒤에 와서 옷을 집어 갔다. 몸통이 두 개인 쌍통 비행기가 가끔 높이 떠서 지나갔다. 몸통이 두 개인 쌍통 비행기는 호주 비행기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밤이면 목포 유달산 쪽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고 날아가는 빨간 큰 불 속에서 다시 작은 빨간 불이 줄지어 나가는 것을 구경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자 이번에는 카빈 소총을 멘 경찰관들이 섬 마을에 들어와 남자 어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잡아다가 군대로 보내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돛배에서 선창에 내리는 것이 보이면 동네 모든 남정네는 인공 때처럼 또 숨어야 했다. 한번은 몸이 건강한 청년을 동네 한 가운데서 발견한 경찰관이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민산이아이라우, 어디 사요? 도롱구테서 살아라우, 당신 몇 살이요? 육도 양현이랑 동갑이아이라우, 육도 양현이가 몇 살이요? 육도 양현이도 모르는 사람이 밥 먹고 사요?” 경찰관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몸은 멀쩡한데 지능이 정상이 아닌 사람하고 대화를 하니

대화가 되지를 않았다. 그 후 우리 동네에는 그 것도 모르고 밥 먹고 사느냐? 는 말이 한 동안 유행했었다. 수복이 되면서 동네 청년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군대로 징집되어 갔다. 군대에 가는 청년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꼭 머리에 흰 수건을 동여 메었고 온 동네 사람이 선창에 나와 배웅을 했고 동네 청년이 군대 가는 날은 온 동네가 초상집 분위기였고 눈물을 훔치는 어른들이 많았다. 할머니는 동네 청년이 군대 갈 때마다 “너희 때가 되면 군대 가는 일이 없는 시상이 되어야 할텐데” 하고 말씀이었다. 그런데 내가 군대를 갔다 왔고 아이들이 군대를 갔다 왔고 지금도 우리나라 징병제는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 전쟁이 치열할 때에 군대에 간 생사를 모르는 두 아들을 위하여 할머니는 절기가 되면 음식을 준비하고 가족을 인솔하여 고향 큰 산 바위 절벽 아래에 가서 음식을 차려 놓고 산신령께 공을 드렸다. 음식을 차려 놓고 촛불을 켜고 어두워질 때까지 간절하게 공을 드렸다. 우리 가족은 군대 간 삼촌 두 분의 생사를 모른 체 지냈고 큰집 제니스 라디오에서 매일 귀를 기울이고 전쟁 뉴스를 들었다. 해가 바뀌면서 구호 물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우유 가루, 강냉이 가루, 버터, 헌 옷, 문방구, 장난감 등 구호 물자가 들어오는 날은 섬 전체가 잔치 집처럼 활기가 돌았고 좋은 구호 물자가 배당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던 어느 날 육군에 근무하는 삼촌이 무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연락병을 보내왔고 조금 있다가 해군에 있는 삼촌이 전상으로 한쪽 폐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휴가를 오셨다. 가족들이 당한 기막힌 고통을 알게 된 삼촌은 조카인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쁜 짓을 한 빨갱이들이 누구 누구냐고 물으셨으나 할머니의 엄한 말씀을 어기고 삼촌에게 이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해군 삼촌은 뒷마을 짐시리 살고 있는 이기순씨 집을 야느냐고 물어 나는 안다고 대답을 했고 다른 섬에서 이사를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큰 동네에서 3Km 정도 떨어진 짐시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기순씨 집으로 삼촌을 안내했다. 삼촌은 당신이 이기순씨냐고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자마자 상대에게 주먹을

날렸고 상대는 넘어지면서 코피가 터졌으나 저항하지 않고 마당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삼촌은 몹시 흥분했었으나 상대가 저항하지 않고 용서를 빌자 상대를 때리는 행동을 멈추고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다음에는 죽을 줄 알라고 호통을 치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육군 삼촌이 집에 휴가를 오셨다. 삼촌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 왔으나 먹을 식량이 없는 시절이라 잔치에 꼭 있어야 하는 떡은 하지 못하고 배급 받은 밀가루로 전병을 만들어 일가 친척을 불러 잔치를 했다. 삼촌은 오시면서 종이 껍에 포장된 건빵과 담배를 선물로 가져와 일가친척과 동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선물하셨고 형집에 싸운 뼈 조각을 할머니에게 내보이셨다. 이천 지구 전투에서 발목에 총상을 입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자 낙오가 되어 부대와 같이 후퇴하지 못하고 농가 별墅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호박 넝쿨을 먹으며 버티다가 북진하는 아군에게 발견되어 생명을 구했고 병원에 후송되어 총상을 당해 부서져버린 다리 뼈를 제거해내고 뼈자리에 강철을 집어넣고 빼낸 뼈 조각들을 형집에 싸와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보이신 것이다. 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듣고 육군 삼촌도 많이 흥분이 돼서 나쁜 짓을 한 빨갱이들이 누구 누구냐고 물었으나 할머니는 보복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 말씀에 따라 어느 누구의 이름도 데지 않았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밤 중에 우리 가족에게 보리 한 가마니를 갖다 준 아랫 집 윤재련씨가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육군 삼촌은 윤재련씨를 찾아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다음 날 아침 삼촌은 마을 앞 바닷가에 서서 갯벌에 있는 돌 표적을 향해 상당히 오래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권총만 쏘다. 허리에 차고 온 밤색 가죽 가방에 있는 권총 실탄이 다 없어질 때까지 분노에 찬 얼굴로 권총을 쏘다. 삼촌이 쏘는 총소리에 마을에 남아 있는 부역자들은 많이 불안했겠지만 삼촌은 누구에게도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와 고향 집에서 하루 밤을 자고 다음 날 다시 전쟁터로 떠나셨다. 삼촌은 떠나시던 날을 나는 평생 기억하고 있다. 소 여물을 끓여주는 작은 방 가마 솥에 물을 데우시더니 조카를 마루 밑 토방에 앉게하고 삼촌은 내 앞에 앉아서 까맣게 때가 끼어있는 내 발을 세수대에 넣고 가지고 온 세수 비누를 무치고 발 때를 벗겨주셨다. 발 때를 벗겨낸 후에는 손등에 있는 때도 벗겨주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때를 베긴 첫 기억이다. 삼촌이 군대로 돌아간 후 어느 날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쓰시는 작은 방에 있는 농 뒤에 숨겨 있는 총을 우연히 발견했다. 삼촌이 집에 오시면서 가져온 카빈 소총을 도로 가져가지 않고 비상 시에 가족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라고 큰 형님에게 두고 가신 것이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아버지 몰래 자주 총을 꺼내 만져봤고 실탄이 우리 집 마당가에 쌓여있는 빨감용 말린 소나무 가지 벼늘 밑 땅에 묻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휴전 후 불법무기 자진 반납 기간에 아버지는 관할 경찰서에 카빈 소총을 자진 반납하셨고 나는 무척 아쉬운 마음으로 총을 보냈다. 6. 25가 터질 때 섬 마을에는 정식 학교는 없었으나 흙바닥인 동곽 마루에 가마니를 깔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놓고 언문을 가르치는 분이 계셨다. 검은 테 안경을 쓰시고 동곽에 참 대나무 매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치신 이복철 선생님이시다. 나도 그 분에게서 한글을 배웠고 월사금은 일년에 곶보리 한말 썩을 드렸다. 휴전이 되자 군대 갔던 동네 청년들이 한 꺼번에 돌아 왔고 많은 섬 마을 고향에 정식으로 국민(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학교



개교 준비를 위해 단칸 방에 흙바닥이던 동곽을 두칸 방으로 늘리고 산에서 소나무를 베어다 톱으로 썬 판재를 만들어 마루를 깔고 바닷가를 메워 운동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지게에 기발을 얹고 흙을 나르고 돌은 맨 지게로 나르고 아낙네들은 골망태에 흙을 담아 날랐다. 교실을 만들기 위한 동곽 리노베이션과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바닷가 매립 작업을 동네 어른들은 아무런 장비나 기구없이 100% 맨몸으로 해내셨다. 학교 운동장을 만들면서 온 동네 사람이 함께 나눠 먹었던 음식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보리 가루 죽, 껌 보리를 맷돌에 갈아 가루로 만들고 삶아서 쓴맛을 우려낸 썩을 섞어 쑤운 보리 가루 죽을 하얀 사발에 받아 먹었다. 개교하는 학교에 선생님 두 분이 부임하셨다. 이현택 교장 선생님과 김영환 선생님. 김선생님은 사범학교를 나오신 분이요 교장 선생님은 육군 장교로 제대하신 분인데 눈이 유별나게 노란 분이셨다. 현지 임관돼서 소대장으로 전투에 참가해 사람을 많이 죽여서 눈 색깔이 저렇게 노랗게 되어버렸다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고 교장 선생님은 부임하시자 마자 어린 학생들에게 체식훈련, 총검술, 수류탄 던지기, 구보, 물구나무 서기, 엎드려 뺨쳐 등을 가르쳤고 김만술 소위에 관한 무용담을 종종 하셨다.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때는 때리지 않고 엎드려 뺨쳐 벌을 줬고 수업 중에 졸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앞으로 불러내서 먼저 눈을 감으라고 말씀하신 후 검지와 장지 두 손가락으로 감고 있는 눈을 밀면서 전쟁터에서 보초이 졸면 다 죽는다고 언성을 높여하셨다. 나중에 내가논산신병훈련소에서 받은 기초 군사 훈련의 대부분이 알고 보니 교장 선생님이 그 때 가르쳐주신 것 그대로였다. 논산 훈련소에서 총검술을 배울 때 교장

선생님 생각이 났고 베트남전에서 아군이 설치한 부비 트랩 지역에 잘못 들어갔다가 아군의 총격을 받고 순간적으로 땅 바닥에 엎드릴 때에도 교장 선생님 생각이 났었다. 김선생님은 아이들을 면접하여 아이의 수업 능력이나 나이를 감안하여 학년을 결정하셨다. 나는 2학년으로 정해졌다가 한 달 후에 시험을 거쳐 3학년으로 올라갔다. 3학년에는 나보다 8살이나 더 먹은 학생도 있었다. 개교 후 얼마 안 돼서 섬에 장티푸스가 유행했다. 장티푸스는 나중에 생긴 병명이고 그 때는 젊잖은 표현은 장질부사라고 불렀고 일반인은 염병이라고 불렀다. 염병에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다 죽는다고 생각했고 장티푸스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화가 나면 “염병할 xx” 하고 저주하는 욕설의 단어였다. 나는 장티푸스에 걸려 거의 한 학기를 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약이 없는 섬이라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먹으면서 그냥 누워있는 수밖에 없었다. 기운이 없어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반 죽음 상태인 아들을 업고 병원이 있는 목포로 데려가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등에 나를 업자 어머니가 색깔이 얼룩덜룩한 체크 무늬 구호물자 반 코트로 나를 덮으셨고 돛배를 타기 위하여 선창가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지나갈 때에 교장 선생님이 다가 와서 나를 덮고 있는 반 코트를 떠들고 “꼭 나서 갔고 오너라” 하고 내려다 보셨다. 교장 선생님의 그 시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돌아 온 후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한 동안 네 발로 기어 다니다가 처음에는 벽을 잡고 일어나서 벽을 잡고 옆으로 걸으면서 걸음마를 다시 배웠다. 휴전이 되고 군대 간 동네 청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섬 동네에 두 종류의 불청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쟁터에서 팔이나 다리를 잃고 제대하고 생계 대책이 없는 상이 군인과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나병환자였다. 거지는 “밥 좀 줘쇼” 하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아니냐 죽고 또 왔네” 하면서 품바 노래를 큰소리로 불러서 거지가 오면 시끄러웠지만 동냥을 온 상이 군인은 언제 와도 아무 말이 없이 자루를 멘 채 그냥 집 앞에 우두커니 서서 주인의 눈에 띄기만 기다렸다. 대문이 없는 섬 마을 집이라 아무런 체지없이 집안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으나 상이 군인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나 마당 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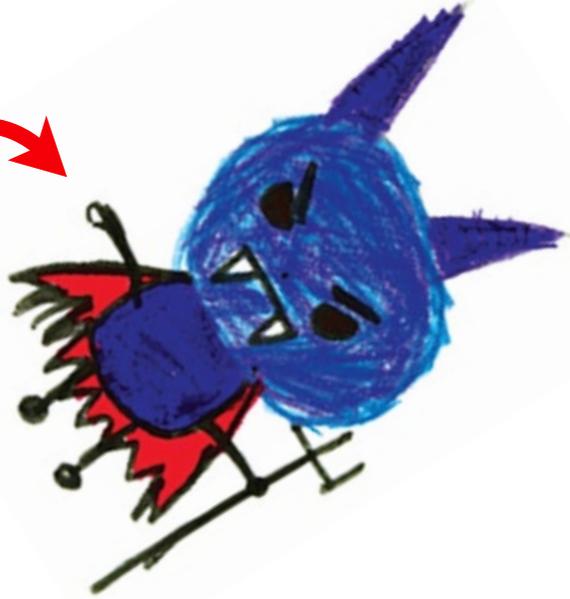
서서 주인의 눈에 띄기만 기다렸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고 아직도 아들 두 명이 군대에 있는 인자하신 할머니는 상이 군인이 나타나면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박대하지 않고 보리를 후하게 퍼주셨다. 쌀은 없는 섬이라 상이 군인이 오면 보리를 퍼주셨고 식사 때 찾아오면 밥상을 차려 주셨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고 계시는 어느 날 상이 군인이 동냥을 하러 왔다. 상이 군인에게 보리를 주라는 할머니 말씀대로 광에 들어가 보리를 한 바가지를 퍼와서 집 입구에서 있는 상이 군인의 자루에 보리를 부어주려다가 깜짝 놀랐다. 동냥 자루를 잡고 있는 손이 한 손은 정상 손인데 다른 한쪽 손은 손이 아닌 쇠 갈구리가 달려 있었다. 쇠 갈구리 손을 보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빨리 보리를 자루에 부어주고 돌아섰다. “할매, 상이 군인 손이 쇠 갈구리어라우” 하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으나 할머니는 못 들으신 척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히 김치만 담그셨다. 그 후 상이 군인이 동냥을 오면 내 시선은 항상 상이 군인의 손으로 먼저 갔다. 한 손만 쇠 갈구리인 상이 군인이 있고 두 손이 다 쇠 갈구리인 상이 군인도 있었다. 또 손은 멀쩡하나 한 쪽 다리가 없는 상이 군인은 양팔에 목발을 짚고 오는 사람이 있었고 외발 목발로 오는 사람도 있었다. 전쟁이 건강했던 청년들을 불구자로 만들었고 국가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 상이 군인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상이 군이들은 먹을 것이 있고 인심이 후한 섬 지역을 돌며 동냥으로 연명을 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병 환자가 병을 나으려고 아이를 죽여 간을 꺼내 먹는다는 소문이 돌아 상이 군인이 오면 걸 보리를 퍼주던 아이들도 나병 환자가 자루를 메고 나타나면 무서워서 숨어버려 어른들이 들에 나가고 아이들만 있는 집에서는 나병환자들은 아무 것도 얻지를 못했다. 그러나 어른이 집에 있는 시간에 집에 동냥을 간 나병 환자도 인심이 좋은 섬 사람들로부터 상이 군인처럼 보리 동냥을 후하게 받아 갔다. 그 시절 손바닥만한 고향 섬에는 동냥하러 온 상이 군인과 나병환자들이 적지 않았으나 섬 사람들은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섬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곡식인 보리를 듬뿍 듬뿍 퍼줬다. 금년은 6. 26.가 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남침한 공산군을 격퇴시키다가 희생된 군인들, 경찰관들, 민간인들, 참전 16개국의 용사들, 그 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나라가 존재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 6. 25.때의 내 나이가 된 손자들을 두었고 우리 나라는 6. 25.가 났을 때에 비해 천지개벽 같은 발전을 했다. 그러나 지금도 남북이 대치 상태이고 언제 전쟁이 터질 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6.25.같은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컴퓨터 바이러스



김 신
IT Engineer
kmsms007@gmail.com

오늘 이야기는 컴퓨터 바이러스 이야기 할까 합니다.

생물도 아닌 기계에 바이러스라니 그럼 이 바이러스는 기계일까 아닌 생물일까? 고민 여러분들 중에 거의 다 한번쯤은 컴퓨터 사용하시면서 바이러스 때문에 낭패를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왜 만들어서 선량한 컴퓨터 사용자들을 골탕먹이는 걸까요?



바이러스란?

사전적 의미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부분을 변형하여, 그곳에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변형을 복사하여 컴퓨터 작동에 피해를 주는 명령어들의 조합'이며, 생물학적인 바이러스가 생물체에 침투하여 병을 일으키는 것처럼 컴퓨터 내에 침투하여 자료를 손상시키거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파괴하여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한 종류입니다.



바이러스의 기원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1985년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브레인 바이러스이며, 파키스탄의 프로그래머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복제품이 성행하자 사용자들을 골탕먹이기 위해 데이터를 파괴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88년 예루살렘 대학에서 13일의 금요일에 맞춰 실행되는 예루살렘 바이러스가 넘버 투. 예루살렘

바이러스는 아마 고민들도 들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감염된 파일을 실행시키기 전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부트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놈은 감염 디스크로 부팅을 시켜야만 감염되고, 파일 바이러스는 감염된 파일을 실행시켜야만 다른 곳에 전염됩니다. 또한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감염 부위는 특정 부위로 한정하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시스템의 모든 파일에 바이러스에 확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종류

부트(Boot) 바이러스

시스템이 부팅되는 과정을 이용하여 플로피와 하드 디스크의 부트 영역에 감염되며, 대부분의 초기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파일(File) 바이러스

파일 자체가 실행되는 과정을 이용하여 COM, EXE, SYS 파일 등에 감염시키는 놈으로 전체 바이러스의 90% 이상이 파일 바이러스로 입니다.

예: CIH, Win95/CIH, Win32/Kriz, Win32.FunLove.4099 등

부트&파일 바이러스

부트와 파일 동시에 감염하는 형태로 바이러스 크기가 매우 커지고 복잡합니다.

매크로 바이러스(Macro virus)

1995년 여름에 처음으로 발견된 매크로바이러스는 감염 대상이 실행 파일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셀과 워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문서 파일입니다.

예: O97M.Shier.A, XM/Laroux, W97M.Class, W97M.Melissa.A

웜(worm)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하며, 웜은 다른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정 컴퓨터에 숨어 있다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해 감염시킵니다

웜은 단순히 자기 복사 기능만 가진 프로그램으로 결과적으로 막대한 시스템 과부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피해를 야기하는데 웜은 확산 속도가 바이러스에 비해 빨라 단시간 내에 네트워크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웜이 처음 알려진 것은 1988년 11월 발생한 '모리스 웜(Morris Worm)'사건으로, 유닉스 시스템을 통해 전파되는 프로그램이 퍼지면서 수 천대의 서버 시스템이 정지하는 등 혼란을 야기한 바이러스입니다. '브라이드 웜'은 e메일 프로그램을 통해, 그리고 '납다 웜'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취약한 경로를 통해 전파됩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해서도 웜이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웜은 바이러스처럼 기존의 프로그램에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동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이러스(virus)

파일, 부트, 메모리 영역에서 스스로를 복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파일 속에 숨어 옮겨 다닙니다. 컴퓨터 내의 프로그램을 변형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변형을 복제하고 다른 컴퓨터를 감염시킵니다. 확장자가 '.com' '.exe'인 실행파일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트로이목마(trojan)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자기 복제 능력이 없지만 실제로는 바이러스 등의 위험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일부러 특정 컴퓨터에 넣어놓았다가 컴퓨터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해당 컴퓨터내의 자료를 몰래 훔쳐내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 컴퓨터의 정보를 유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Win-Trojan/Back_Orifice, Win-Trojan/SubSeven, Win-Trojan/Secolys 가 대표적입니다.

혹스(Hoax)

혹스(Hoax)는 남을 속이거나 장난을 친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가짜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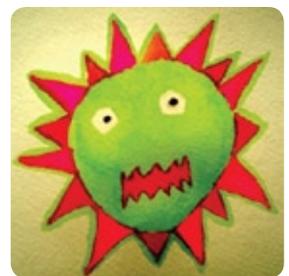
흔히 메일을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복잡한 기술 용어들을 나열해 가면서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큰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장난치는 바이러스입니다.

때론 정상적인 윈도 파일을 바이러스라고 속여, 이를 찾아 삭제하라는 내용을 보내기도 한다.

드로퍼(Dropper)

드로퍼는 컴퓨터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바이러스 혹은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사용자의 컴퓨터에 설치(install)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드로퍼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기능은 없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해야 하는 놈입니다.

99년 10월에 출현해 은행 계좌번호를 빼내는 등의 범죄에 사용됐던 에코키스(Ecolys)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프로그램에 드로퍼를 추가한 트로이목마 바이러스입니다.



악명 높았던 바이러스

마이둠(Mydoom) 웜 바이러스

2004년 2월 1일 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인 SCO그룹의 웹사이트를 다운시킨 웜바이러스로, 100만대 이상의 PC를 감염시켜 역사상 가장 신속하게 확산된 웜 바이러스라 할 수 있습니다.

분산 서비스 거부(DDoS)

- Distribute Denial of Service attack.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의 하나입니다. 서비스 거부(DoS)란 해킹수법의 하나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용자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독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 방법입니다. 이 수법은 특정 컴퓨터에 침투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서버가 다른 정당한 신호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만 합니다. 쉽게 말해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를 마비시키는 수법으로 얼마 전 전 세계 뉴스를 흔들었던 무시무시한 놈이지요..



해결방법

이거 참 어렵습니다. 지난번 인터넷 이야기 하면서 개선방법 고민했던 거 보다 더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딱히 주사 맞고 약 좀 먹으면 되는 간단한 감기 수준이 아니라서 기대하시는 답을 낸다는 것이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씩 해보시지요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 사용

위낙 많은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관계로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하기 곤란하지만 일단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산 프로그램과 인도네시아산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 국산을 하나 선택하시고 인도네시아나 인터내셔널 프로그램 두 가지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약, v3lite, avg, smadav 등이 있습니다.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 사용

윈도우에서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 파일을 내려주는 것을 성실히 업데이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아무리 업그레이드 잘 해도 컴퓨터 보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품을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업데이트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사용시 주의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파일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 자료 등을 다운받으면서 발생하는 필수과일을 다운로드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파일을 주고 받을 때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거의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배포되고 있는 관계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공신력 있는 사이트나 확실한 상대방에게 온 것만 선택하여 다운로드 하시는 것이 바이러스로부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일단 주고 받는 게 없다면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겠지요. 파일을 받을 때나 프로그램을 인스톨 하시겠습니까? 라고 컴퓨터가 물어볼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클릭을 하시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장디스크사용 시 주의

요즘은 usb 메모리나 외장 하드 등의 발달로 자료보관 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것 또한 바이러스가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본인만 사용할 때는 괜찮겠지만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갔다 왔다면 메모리를 본인의 컴퓨터에 연결하기 전에 내 컴퓨터가 보안에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결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란 놈은 한번의 클릭, 한번의 연결로 순식간에 컴퓨터에 잠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있는 메모리를 연결하는 순간 게임 끝납니다.



이상과 같이 바이러스의 종류 도 알아보고 대응책도 알아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종류보다 대응책이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필자도 직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이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하는 일반사용자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내용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로부터 공격에 조금은 안전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꼭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본인의 귀중한 자료와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글: 허영순 번역작가(KBS WORLD INDONESIA / OKTN)
자료제공: KBS WORLD INDONESIA / KORINDO

스킨십

인도네시아어를 배우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익숙해진 것 중 하나가 스킨십이 아닐까 합니다.

왼쪽 오른쪽 볼을 부비거나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새삼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상대방의 체온을 느끼고 나면, 알게 모르게 가까워 지는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악수를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힘 없이 하는 악수는 불안정감을 전달하고 너무 짧게 하는 악수는 상대방에게 오만한 사람으로 비춰 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악수를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자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상황에 따라 악수로 인사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게 먼저 손을 내밀곤 합니다.

악수는 수천 년 동안 평화와 비즈니스의 상징으로 행해진 전통의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존경과 신뢰를 표현 할 수 매우 중요한 사회 형성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그동안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책상에 앉아서 배우지 않아도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이들과 동화 되고 있는 제 자신을 돌아 봅니다.

한국에서 남성에게 악수를 청한다면 과연 그분의 반응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교민 여러분도 자주 악수 하시나요?



Manisnya Hidup 바람불어 좋은날

10살의 나이차이와 환경적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 합니다. 하지만 대한의 아들 독립을 위해 오복은 퇴사하고... 오복과 시종일관 같이 생활 하던 대한이 오복이 퇴사 한 후 기운 없어 보이자



Tn. Jang terlihat tidak **bernyawa** di mejanya.
장담장이 책상에서 활기가 없어 보이네.

Bernyawa 의 어근은 nyawa로 목숨, 생명, 영혼 등과 활기, 생기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ber가 붙어 생명이 있는(가지고 있는) 활기를 띠는(힘이 넘치고 생명력 있어 보이는(생기있는)으로 표현 됩니다. 또 nyawa 어근에 Se (satu(하나, 단일) 또

는 sama(동일한)을 붙여 직역하면 단일 영혼 같은 영혼 이지만 **sependapat/setuju** (동일한 견해/ 직역하면 동일한 방향 이란 뜻으로 어떠한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 와 유사하게, 생각이 같거나 통할때, **Senyawa** (의견을 교환 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의견이 일치된 하나가된 화합된 이란 뜻과 화학에서 동일한 성분, 요소를 표현 할때 사용 합니다. 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됩니다. (제 3자의 의견과 같을때/ 제 3자의 의견에 동의 할때)

ex)

Saya **sependapat** dengan 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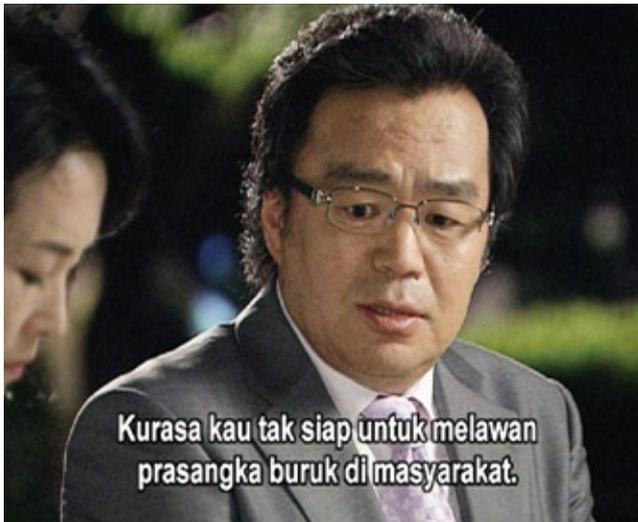
나는 그와 같은 생각이다. (견해를 갖고 있다)

Saya **setuju** dengan pendapatnya.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복과 대한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로 부터 축복 받지만 강희(민국의 고등학교 선생님/ 현재 유치원 원장)과 민국의 사랑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랑으로 비난 받습니다.

강희의 대학 동아리 선배 현우는 강희가 남편을 여의고 제자와의 사랑에 빠진 것이 외로움 때문일거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충고 합니다.



Kurasa kau tidak siap untuk melawan **prasangka** buruk di masyarakat.

내 생각엔 네가 사회적 편견(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견딜 준비가 안되어 있어.



Nikailah Aku 결혼해 주세요

잘나가는 형에 비해 매일 구박으로 먹고 사는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지만 연애 경험이 전무한 집안의 막내는 형 철호에게 여자 마음 사로 잡는 법을 알려 달라고 합니다.



Ajarilah aku bagaimana **menaklukan** hati perempuan.

여자 사로잡는 법 좀 가르쳐줘.

menaklukan 어근은 **takluk**으로 어떠한 권위나 위신에 종속, 정복으로 **kuasa**(권위) dan **kuat**(힘)보다 더 강한 뜻이며 사로잡다(생각이나 마음을 온통 한곳에 쏟게 하다/종속시키다)라고 표현 할 때 또는 신에 대한 경배, 절대적 복종을 뜻할 때 사용됩니다. 문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Kuasa는 어떠한 무형에 대한 권위, 힘을 나타내며 **kuat**은 물리적인 강함 힘을 나타내며 강인한 사람을 표현 할때의 강함은 **tegar**로 표현 합니다.

ex)

Saya **takluk** pada perintahnya.

나는 그의 명령에 복종한다.

Dia menguasai wilayah itu.

그는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Rumah ini dibangun dengan pondasi yang **kuat**.

이 집은 기초를 튼튼히 지은 집이다.

Wanita itu **tegar**.

그 여성은 끈은(강인한) 여성이다.



교육문화의 실제

인재 손인식(서예가, 시인)

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인들에게 참 익숙한 고사가 있다. 바로 맹모 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다. 이 고사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인의 교육열이고, 또 하나는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이야 이젠 세계에 드러난 바인데, 양질의 교육환경에 대한 욕구는 그야말로 진리여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에게 교육환경 좋은 곳이 곧 주거의 첫째 목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는 특별할 정도의 교육열을 지닌 한국인들이 그것을 해소할만한 환경을 지닌 곳일까? 즉 한국인들이 2세를 교육하는데 있어 선택할만한 곳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이다. 다만 이 칼럼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선택할만한 곳이다.’이다. 특히 이 결론은 이미 2세 교육을 마친 부모나, 이미 대학을 진학했거나 사회로 진출한 당사자들에게서 얻은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교육환경이 관련자들에게는 행복하고 듣는 이들에게도 기분이 좋은 이런 결론을 얻게 할까.

살펴볼 때 넓은 선택의 폭을 들 수 있겠는데, 우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JKKS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타국에 살지만 한국식 교육을 원하는 한국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JKKS, JKKS는 한국식 교육에 국제감각까지 덤처럼 익히고 경험할 수 있어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라 할만하다. 아울러 나름의 교육시스템을 갖춘 인터내셔널 스쿨들, 그리고 내셔널 플러스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 학교 등이 있다. 비싼 교육비 부담이 있지만 존재감이 큰 미국계 JIS와 NJIS, 영국계 BIS와 RIKS, 인도계 GMIS, 호주계 AIS, 싱가포르계 SIS 등 인터내셔널 스쿨과, 선진국

형 교육형태를 도입하여 인터내셔널을 지향하는 내셔널 플러스로서 SPH, STB, SCB 외 다수의 학교가 넓은 선택의 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학교는 다국적 학생들과 폭넓게 교류하며, 한국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영어습득을 우선케 할 수 있는 학교들이다. 곧 한국인들이 원하는 교육 환경이자 삶의 환경이 되는 것이고, 강력한 주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존재는 인도네시아의 큰 도시나 작은 도시를 막론하고 한국학생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하며, “기러기 아빠”라는 은어까지 생겨나게 한 조기유학 대상지가 되게 하고 있다. 한편 저렴한 교육비의 일반 인도네시아 학교도 선택권에 있는데,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수도 있지만 현지 전문가, 즉 특화된 재원을 기른다는 측면에서 이들 학교들 또한 분명한 선택의 한 축이 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교육환경이 좋은 곳으로 여기는 데는 그야말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대학진학의 결과이다. 그간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국내 명문대학 진학은 국내의 우수한 고등학교와 비교해볼 때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특례입학이란 제도의 혜택도 없지 않지만, 이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국내 대학의 취지와 잘 조화된 결과이기도 한다. 아울러 세계의 명문대학 진학 또한 이미 흔한 일이 되고 있는 일인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유수의 대학에 합격이야말로 가능성 있는 인재라는 증명이니 한국인들에게 인도네시아는 교육의 적소가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는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설 교육의 공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의 사설교육, 과열 현상 때문에 여

론의 못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퇴출의 대상으로 치부되기도 하는데, 변함없이 성행하는 것이 또한 사설교육이고 보면, 이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 경쟁사회에 있어서 사설 교육의 본질이요 무시할 수 없는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한국적 사설 교육은 다국적 인터내셔널 학교에서 채워주지 못한 일부 중요 과목들을 자국의 학습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커뮤니티의 규모로 인해 자국의 사설교육 시설이 생겨날 수 없는 다른 나라 학부모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편 사설교육은 많은 시간 집중을 필요로 하거나, 각별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주요 과목이나 예능계 과목에서 그 장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일부 미술과 입시학원들은 국내의 명문대 진학성과를 속속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미술 음악 등 예능계 사설교육은 꼭 진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더라도 모국과 타국의 문화충돌을 완화하면서, 모국과 현저히 다른 일상의 문화, 모국의 아름다운 산천이나 특징이 드러나는 사계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감성을 일깨우는 절대적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우리 한국인 초 중 고생이 대략 2000여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계 국제학교 JIKS의 경우 2009년 고등학교 졸업생 132명 중 약 98%가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으며, 외국계 인터내셔널 스쿨 중 가장 많은 한국학생이 재학 중인 JIS의 경우 2009년 하이스쿨을 졸업한 한국인 학생 37명 중 약 55%가 한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약 45%정도가 미국을 비롯한 제 3국의 대학으로 진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카르타의 여타 외국계 학교들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인데, 수라바야, 반둥, 족자카르타 등 지방도시에 산재한 인터내셔널 스쿨 졸업생들의 경우는 선진국대학 지향보다는 한국의 대학과 현지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도 한다. 안타까운 점은 약 600여명에 달하는 지방도시의 한인 학생들은, 한인회에서 봉사활동으로 운영하는 주말 한글학교를 통해서만 한국적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와 민간 모두가 다각적인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초청장학생, 언어연수를 비롯한 장단기 유학생들도 상당수에 이르는데, 인도네시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이들에게서 나름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은, 이미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언어, 경제, 의학, 법률을 전공한 몇몇 한국인들의 활발하고도 성공적인 활동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하여 학부모들의 소견 중 “자녀의 모국어 어휘력 부족”에 대한 걱정은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여기며, “영약스럽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는 그냥 미소로만 답하게 된다. 오히려 타국의 환경과 현지 문화 경험, 그리고 타국인의 부와 가난에 대한 간접 경험, 갖가지 봉사 체험

등으로 아쉬움을 대체하고도 남을 것이라 여기게 되는 것이다. 하물며 “국내보다 현저히 적은 청소년 위해환경”, “경쟁의 소용돌이를 비껴가는 여유로운 시간 운용”, “상대적인 순수함” 등의 평가와 “인도네시아 생활 중 가장 큰 소득이 있다면 자녀교육”이라는 결론 등에서는 함께 기꺼워하며 감사할 뿐이다. 특히 진학한 대학에서 적응기를 거쳤거나, 사회에서 연륜을 쌓아가는 시기의 당사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수학을 마음 깊이 감사하며 생활한다고 하니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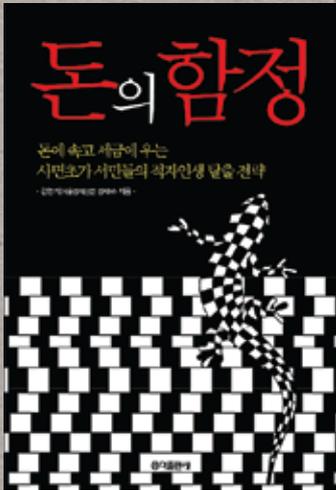
앞에서 살핀바와 같이 인도네시아가 한국인들에게 선호하는 교육 환경이 되기까지는 매우 실질적인 배경이 있다. 2000여 한국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그 이면의 절대적인 축은 가정 교육, 즉 학부모들의 열정과 노력이다. 초, 중, 고의 교육비로는 국내와 비길 바 없이 높은 수업료를 기꺼이 지출하면서 자식을 훌륭히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일념 하나로 자녀들에게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던 것이다. 하여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교육문화를 살펴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은 “한국인의 우수성”이다. 어떤 악조건이라도 거뜬히 이겨내고 아름다운 성공을 일구는 한국인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능력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나누어야 할 부분도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최소한의 교육비 지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배려이다. 한 때의 어려운 처지가 배움의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오랜 이쁨으로 남지 않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을 말할 때 흔히 쓰는 단어가 “교육지백년대계(教育之百年大計)”이다. 교육이란 백년을 내다보는 큰 계획, 또는 백년을 한결같이 비로소 성과를 올곧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어제가 한결같고 오늘과 내일이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은 곧 창조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주도해야 한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사람은 평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는 타국에 살면서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며, 또 조화해야 한다. 한결같은 노력으로

한결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설문에 응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돈의 함정 - 돈에 속고 세금에 우는 사면초가 서민들의 적자인생 탈출 전략

저자 김영기 | 출판사 흥익출판사

피땀 흘려 번 내 돈은 어디로 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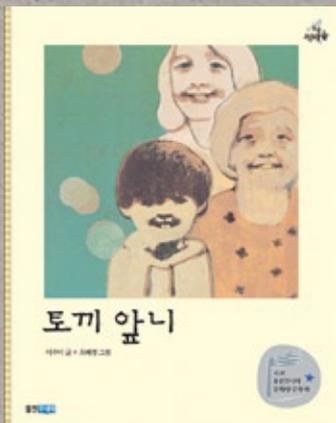
금융기관 상품의 실체를 파헤치고, 세금의 정체를 밝히는 경제관념 지침서 『돈의 함정』. 왜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적자 인생을 탈출하기 힘든 것일까? 경제 전문 기자인 저자는 교묘한 금융상품과 세금을 통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진단하고,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용카드, CMA, 정기 예금, 세금, 백화점, 금리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경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철저한 계획과 기록, 관리를 통해 눈앞에 보이는 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준다.

토끼 앞니

저자 이주미 | 그림 최혜영 | 출판사 웅진주니어

너에게 용기를 줄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문화의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주는 「작은 책마을」 제26권 『토끼 앞니』.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느라 웃음마저 잃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다. 엄마를 닮은 토끼 앞니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 친구들과 마음껏 웃지 못하는 소년 '경호'가, 고물 밥통을 고치기 위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겪는 소소한 일상 속으로 초대한다. 특히 경호가 외할머니에게 '용기'를 받아 자신만이 지닌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 외모 콤플렉스를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이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되, 타인에게는 찾기 어려운 자신만의 강점을 찾는 능동적 존재로 거듭나도록 인도한다. 파스텔화 기법의 신뜻한 그림을 함께 담아내 이야기에 푹 빠져들도록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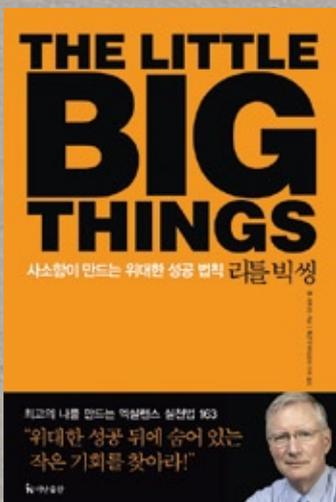


리틀 빅 씽 -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 법칙

저자 톰 피터스 | 역자 최은수 | 출판사 더난출판사

실행이 최고의 전략이다!

현대 경영의 창시자로 불리는 경영의 대가 톰 피터스의 『리틀 빅 씽』. 베스트셀러 경영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을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뛰어난 혜안과 통찰력을 심어온 저자의 첫 번째 자기계발서다. 사소함이 만드는 위대한 성공 법칙 163가지를 공개한다. 성공에 대한 저자의 모든 경영 철학을 혁신, 리더십, 변화, 네트워크, 열정, 그리고 경쟁 등의 핵심적 키워드로 압축했다. 사소함 속에 숨은 특별함을 발견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아울러 최고의 '나'를 만드는 엑셀런스(Excellence)를 추구하도록 이끈다. '엑셀런스'를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담아두지만 말고, 일상 속에서 당장 실행하여 위대한 성공을 거머쥐도록 도전하고 있다. 블루 오션을 이루어내는 '실행의 탁월함'도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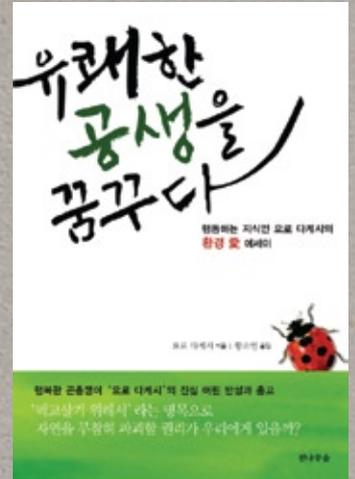


유쾌한 공생을 꿈꾸다 - 행동하는 지식인 요로 다케시의 환경 애에세이

저자 요로 다케시 | 역자 황소연 | 출판사 전나무숲

곤충채집을 통해 자연을, 인간을,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하다!

행복한 곤충쟁이 '요로 다케시'의 환경 애에세이 『유쾌한 공생을 꿈꾸다』. 일본 최고의 지성으로 꼽히는 요로 다케시의 저서로, 곤충의 특징, 채집 방법 등을 에세이 형식으로 꾸민 책이다. 책을 재미있게 읽으며 곤충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부학을 전공하고 뇌를 연구하며, 취미로 곤충채집에 열을 올렸던 저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가득 담은 과학에 대한 지식과 노학자다운 삶에 대한 통찰력을 유쾌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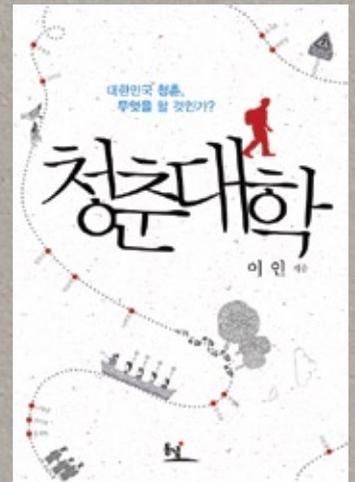


청춘대학 - 대한민국 청춘 무엇을 할 것인가

저자 이인 | 출판사 동녘

꿈을 꾸며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청춘대학!

‘참선생님’을 찾아 떠난 20대 청년의 유쾌한 지성 탐방기 『청춘대학』. 남들처럼 취업 준비에 열심이었던 저자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인생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자신에게 간절한 질문을 던져줄 선생님들을 찾아 나선 저자는 젊은이들에게 애정 어린 말을 하거나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이 책은 시인 김선우, 고전평론가 고미숙, 인문학자 강신주, 역사학자 한홍구, 코미디언 김미화, 한의사 고은광순 등 17명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담고 있다. 우리 시대의 청춘들에게 보내는 격려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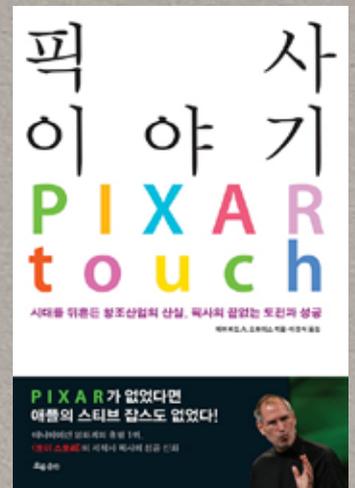


픽사 이야기 - 시대를 뒤흔든 창조산업의 산실, 픽사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

저자 데이비드 A. 프라이스 | 역자 이경식 | 출판사 흐름출판

시대를 앞서 간 ‘픽사’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 이야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픽사’의 성공 신화 『픽사 이야기』. 1995년 <토이스토리>가 개봉된 이후 픽사는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었고, 영화 산업의 지형을 바꾸어 놓으며 애니메이션 시장의 강자로 부상했다. 이 책은 뉴욕 공과대학에서 태동한 픽사가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기까지, 픽사가 걸어온 발자취와 그 성공 뒤에 가려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픽사는 어떤 곳인지,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낸 괴짜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영화를 만들어냈는지 등 픽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준다.





악마를 보았다

악마 같은 연쇄살인마 그리고...
그에게 약혼녀를 잃고 그 고통을 뺏속 깊이 되갚아 주려는 한 남자
그들의 광기 어린 대결이 시작된다

국정원 경호요원 '수현(이병헌)'은 약혼녀 주연이 잔인하게 살해당하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분노로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다짐한다.

수현은 연쇄살인마 '장경철(최민식)'이 범인임을 알아내고
죽을 만큼의 고통만 가하고 놓아주기를 반복하며 치절한 응징을 시작한다.

그러나, 악마보다 더 악랄한 살인마 장경철은
난생 처음 만난 대등한 적수의 출현을 즐기며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는데...

Step Up 3-D 스텝업 3D

꿈과 사랑, 젊음... 열정! 모든 것을 건 세계 최고의 댄스 배틀이 시작된다!

Stage 1. 목표는 월드잼이다!

뉴욕 최고의 댄스 크루 '해적팀'의 리더 루크는 곧 다가올 세계 최고의 댄스 배틀
'월드 잼' 준비에 한창이다. 우연히 거리의 댄스 배틀을 구경하던 루크는 최대의
라이벌 '시무라이' 팀을 단숨에 제압해버린 NYU 공대생 무스를 만나게 되고, 부
모님의 반대에 망설이던 무스는 타고난 댄스 본능에 이끌려 루크의 팀에 합류하
게 된다.

Stage 2. 우리가 추는 춤이 바로 우리를 말해주는 거야!

클럽에서 남다른 댄스 실력을 보이던 나탈리를 눈여겨 봐왔던 루크는 싸움에
휘말린 그녀를 구해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온다. 무스와 나탈리까지 합류한 '해적
팀'은 1차 배틀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한편, 함께 '월드 잼'을 준비하던 나
탈리는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루크의 모습에 점차 사랑을 느끼게 된다.

Stage 3. 춤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과 위풍찬 춤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하며 예선을 통과한 '해적팀'은
승리의 기운에 들뜬다. 하지만, 자신들의 비밀 리허설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되
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 그와 동시에 '나탈리'마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Eagle

since 1986 

1st Leading Indonesian Sports Shoes Brand



SWA
s e m b a d a

MARKETING
MAJALAH PEMASARAN & PENJUALAN



Eagle never rest driving it ahead,
to exceedingly create customers' value

visit our website: www.eagle.co.id